K-FISH

2018 Vol. 12

AROUND THE GLOBE

수산물수출길라잡이
KMI 해외시장분석센터



KMI 해외시장분석센터 심층 기획
잠재력 높은 북미선진시장 캐나다

주요 세계 식품 동향 정보
'미·중 무역분쟁'과 수산물 교역 구조 분석

수출 현장 리포트
(주)늘푸른바다, 대일수산(주)

전문가 포커스
중국 연육 시장 관찰기

수산식품 주요 성분 정보
EU의 해조류 통관 부적합 동향 분석

통계로 보는 세계 수산물 시장
통계로 파헤쳐보는 미·중 무역분쟁



EXPORT MARINE PRODUCTS GLOBAL NEWS

해양수산부 KMI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외시장분석센터

CONTENTS

KMI 해외시장분석센터 심층 기획

04 잠재력 높은 북미선진시장 캐나다

주요 세계 식품 동향 정보

40 '미·중 무역분쟁'과 수산물 교역 구조 분석

수출 현장 리포트

64 (주)늘푸른바다, 대일수산(주)

수출 포커스

70 중국 연육 시장 관찰기

수산식품 주요 성분 정보

74 EU의 해조류 통관 부적합 동향 분석
– 요오드편

통계로 보는 세계 수산물 시장

82 2018년 세계 수산물 시장의 핫 이슈!
통계로 파헤쳐보는 미·중 무역분쟁

04

KMI 해외시장분석센터 심층 기획

신흥 수출 유망 대상국을 중심으로 수산물 시장 정보
(생산, 교역, 유통, 소비, 통관) 및 이슈 등 소개



수산물수출길라잡이 KMI 해외시장분석센터
K·FISH AROUND THE GLOBE 통권 제12호

발행일 2018년 12월
발행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외시장분석센터(KFIC)
주 소 49111 부산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전 화 콜센터 1644-6419, Fax 051)797-4599
이메일 kfic@kmi.re.kr
홈페이지 수산물수출정보포털(www.kfishinfo.net)
디자인 크리커뮤니케이션(02-2273-1775)

40

주요 세계 식품 동향 정보

세계 주요 수산 이슈에 대한 이해 증진

70

수출 포커스

현장 중심 수산물 수산식품 시장 진출 모색

82

통계로 보는 세계 수산물 시장

주요 이슈별 정보를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이슈에 대한 이해도 증진 및 시사점 도출







잠재력 높은 북미 선진시장 캐나다

Overview

수도	오타와(Ottawa)	통화단위	캐나다 달러(Canadian Dollar(CAD))
면적	9,984,670㎢(세계 2위, 한반도의 45배)	민족	영국계(28%), 프랑스계(23%), 기타 유럽국가(15%), 원주민(2%), 기타 아시안, 흑인, 아랍계(6%), 기타 혼혈(26%)
인구	3,707만 명(2018년)	종교	천주교(39.0%), 기독교(28.3%), 무종교(23.9%), 기타(8.8%)
정부형태	입헌군주국, 의원내각제	국가원수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공용어	영어, 프랑스어	행정수반	쥐스탱 트뤼도(Justin Trudeau)

자료 : KOTRA, 캐나다 출장자료

캐나다 (Canada)

- **주요도시** 토론토(635만 명), 몬트리올(414만 명), 밴쿠버(257만 명), 오타와(138만 명), 캘거리(149만 명), 에드먼턴(141만 명), 퀘벡(81만 명)등
- **환율** USD 1 = CAD 1.32
1 캐나다 달러 = 852.72원(2019.2.21.기준)
- **GDP** 1조 6,520억 달러(2017년)
- **1인당 GDP** 45,070달러(2017년)
- **소비자물가상승률** 1.6%(2017년)
- **총수출(對한국 수출)** 4,210억 달러(41억 달러)(2017년)
- **총수입(對한국 수입)** 4,321억 달러(67억 달러)(2017년)
- **무역수지** -111억 달러(2017년)



캐나다 수산업 개관

생산(만 톤)		('14) 101.6 → ('15) 105.0 → ('16) 107.5	세계 21위 생산국(0.53%)
수출(억$)		('14) 47.2 → ('15) 49.1 → ('16) 51.5	세계 8위 수출국(3.74%)
수입(억$)		('14) 30.4 → ('15) 27.5 → ('16) 28.5	세계 14위 수입국(2.12%)
소비	총소비량(만 톤)	('11) 78.2 → ('12) 75.6 → ('13) 79.2	세계 25위 소비국
	1인 연간 소비량(kg)	('11) 22.69 → ('12) 21.72 → ('13) 22.52	세계 62위 소비국(세계 평균 소비량의 113%)

자료 : UN Comtrade 원자료(검색일: 2018.12.13.), KMI 가공
FAO Comsumption of Fish and Fishery Products(검색일: 2018.10.30.)

일반 경제 특성

GDP 세계 10위의 에너지 강국 캐나다

캐나다는 세계 10위 규모의 경제 국가로 2017년 기준 명목 GDP는 1조 6,520억 달러에 달한다. 1인당 GDP는 2017년 45,070달러로 세계 18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캐나다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2018년 약 3천 7백만 명을 기록하고 있다. 캐나다는 러시아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넓은 토지를 가지고 있는 국가이나 국토 대비 인구밀도가 낮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캐나다는 천연자원(금, 니켈, 우라늄, 다이아몬드, 납 등)을 가지고 있는 세계 4위 천연자원 강국이며, 세계에서 3번째로 많은 석유 매장량을 보유한 에너지 강국이다. 캐나다는 1990년대 이후 서비스업 및 첨단제조업 등 지식기반 산업을 중심으로 성장하였으며, 전체 GDP의 약 70%가 서비스산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캐나다 주요 산업은 금융·부동산업(20.0%), 제조업(10.4%), 광산업(8.7%), 건설업(7.1%), 의료복지(6.6%) 등으로 농림수산업은 1.6%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KOTRA, 2017).

| 캐나다 주요 경제 지표 |

구분	단위	2016년	2017년	2018년 예상
인구	만 명	3,515	3,671	3,724
명목 GDP	달러(USD)	1조 5,360억	1조 6,520억	1조 8,050억
1인당 GDP	달러(USD)	42,412	45,070	48,672
GDP 성장률	%	1.4	3.0	2.4
소비자물가상승률	%	1.4	1.6	2.2
실업률	%	7.0	6.3	5.8

자료 : KOTRA 경제동향 및 전망, 캐나다
자료원 : 캐나다 통계청, 캐나다 중앙은행, EIU, UNCTAD(2018)

무역수지 적자국, 최대 교역국 미국

캐나다는 세계 12위 수출, 세계 12위 수입 국가(2017년 기준)로,[1] 무역수지는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캐나다의 주요 수출품은 원유, 자동차 및 부품, 산업장비, 금, 천연가스 등이며, 주요 수입품은 자동차 및 부품, 산업장비, 전자기기, 원유, 플라스틱 등이다. 캐나다는 특히 미국과 밀접한 교역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2017년 수출금액 중 약 75.9%, 수입금액 중 약 51.3%가 미국을 대상으로 한다. 두 번째 교역국가는 중국으로 2017년 수입금액 중 약 12.6%를 차지하였다.
한국은 아시아 국가 최초로 캐나다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으며,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는 2015년 1월 1일 발효되었다. 한국은 캐나다에 승용차, 철강 구조물, 자동차 부품, 휴대전화 등을 수출하고 있으며, 수출금액은 2017년 약 46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수입금액은 2017년 약 50억 달러로 유연탄, 동광, 알루미늄괴, 철광석 등을 수입하고 있다.

1) UN Comtrade, 2017

| 캐나다 수출입 동향 |

(단위 : 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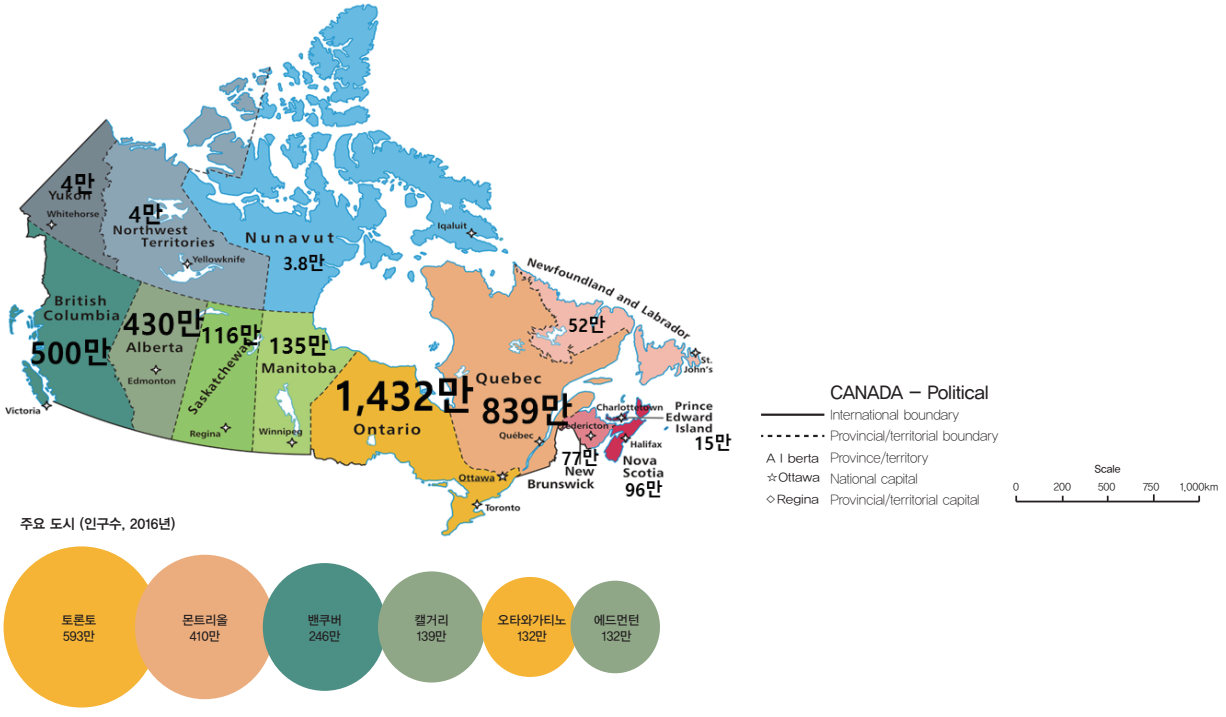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1분기)
수출	4,097	3,902	4,210	1,453
수입	4,194	4,026	4,321	1,501
무역수지	-96	-120	-111	-48
구분	주요 수출국(2017)		주요 수입국(2017)	
1위	미국	75.9%	미국	51.3%
2위	중국	4.3%	중국	12.6%
3위	영국	3.2%	멕시코	6.3%
4위	일본	2.2%	독일	3.2

자료 : KOTRA 국가정보 캐나다, global EDGE Canada: Trade Statistics

캐나다 인구, 온타리오와 퀘벡에 집중 분포

캐나다 지역별 인구분포는 온타리오(Ontario), 퀘벡(Quebec)에 집중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온타리오에는 캐나다 수도 오타와(Ottawa)와 토론토(Toronto)가 위치하고 있으며, 2018년 약 1,432만 명, 38.6%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 다음으로 퀘벡(약 839만 명, 22.6%), 브리티시 컬럼비아(약 500만 명, 13.5%), 앨버타(430만 명, 11.6%) 등의 순이다. 캐나다 주요 도시 인구(2016년)는 토론토(온타리오주) 593만 명, 몬트리올(퀘벡주) 410만 명, 밴쿠버 246만 명(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캘거리(앨버타주) 139만 명, 오타와~가티노 132만 명(온타리오주) 〉 에드먼턴(앨버타주) 132만 명 순이다.

| 캐나다 지역별 인구 분포 |



자료 : Statistics Canada, Population estimates, quarterly
Statistics Canada, 2016 Census of population, Population and dwelling cou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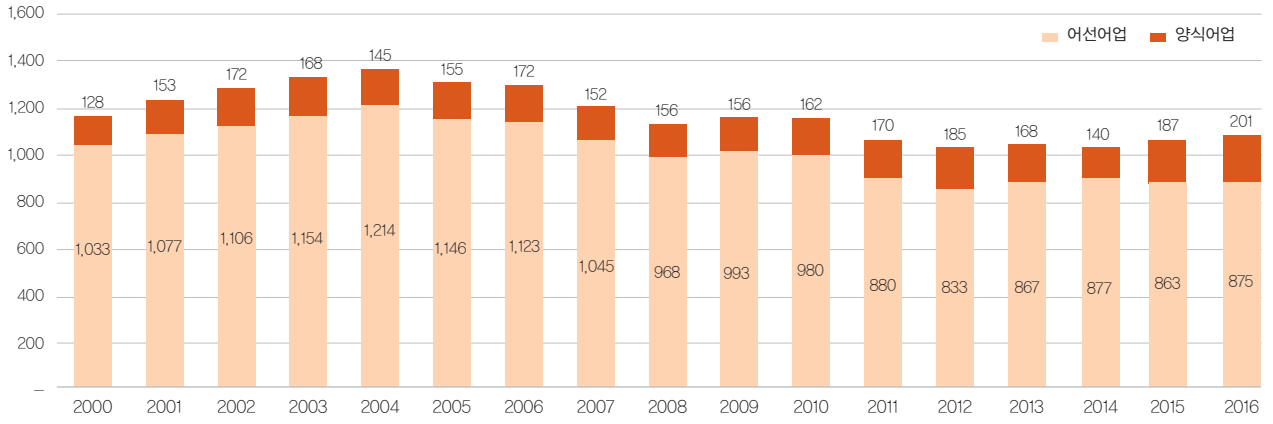
수산물 생산 동향

연간 생산량 108만 톤 내외, 어선어업 중심의 생산 구조

2016년 기준 캐나다의 수산물 생산량은 약 108만 톤이며, 2004년 이후 생산량이 감소하다가, 2012년을 기점으로 소폭 반등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캐나다는 수산물 생산의 약 80%가 어선어업을 통해 이루어지며, 최근 5년간 양식어업의 생산량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양식업은 다년간의 투자로 인해 캐나다 내 식품산업 중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분야이다. 캐나다 수산업은 현재 약 45종의 어패류 및 해조류를 생산하고 있으며, 2015년 10억 달러의 GDP를 기록하고, 30억 달러가량의 추가적인 가치를 창출하였다.

| 캐나다 수산물 생산 추이 |

(단위 : 천 톤)



자료 : FAO Global Fishery and Aquaculture Production Statistics(검색일 : 2018.11.17.)

(단위 : 천 톤,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연평균 증가율
전체		1,018	1,035	1,016	1,050	1,075	1.4%
어선어업	생산량(천 톤)	833	867	877	863	875	1.2%
	비중(%)	81.8	83.8	86.3	82.2	81.3	
양식어업	생산량(천 톤)	185	168	140	187	201	2.1%
	비중(%)	18.2	16.2	13.7	17.8	18.7	

자료 : FAO Global Fishery and Aquaculture Production Statistics(검색일 : 2018.11.17.)

연어·송어류, 청어·정어리류 및 대구류 등을 주로 생산

주요 생산어종은 연어·송어류, 청어·정어리류 및 대구류이며, 상위 3개 어종이 전체 수산물 생산량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연어·송어류는 양식이 80% 이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생산량 및 비중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청어·정어리류는 보합세를 유지, 대구류는 2016년에 특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캐나다 주요 생산 어종 |

(단위 : 천 톤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전체	1,018	1,035	1,016	1,050	1,075
연어·송어류	159(15.6)	154(14.9)	144(14.1)	177(16.8)	192(17.8)
청어·정어리류	123(12.1)	140(13.5)	138(13.6)	134(12.8)	141(13.1)
대구류	92(9.0)	92(8.9)	89(8.7)	91(8.7)	128(11.9)
새우류	149(14.7)	149(14.4)	132(13.0)	141(13.4)	109(10.1)
게류	102(10.0)	107(10.3)	105(10.4)	103(9.8)	92(8.5)
바닷가재류	75(7.3)	75(7.2)	93(9.1)	91(8.7)	91(8.4)
가리비류	53(5.2)	65(6.3)	70(6.9)	61(5.8)	54(5.0)
기타	264(26.0)	253(24.5)	247(24.3)	252(24.0)	270(25.1)

주 : 1) 괄호 내 수치는 총생산량 중 해당 어종의 생산 비중을 나타냄
2) 어종분류는 FAO ISSCAAP Group 분류에 따라 분류함
자료 : FAO Global Fishery and Aquaculture Production Statistics(검색일 : 2018.11.17.)

캐나다 수산물 교역 동향

세계 10위권의 수산물 교역국, 캐나다

캐나다는 세계 8위의 수산물 수출국이자, 10위권의 수산물 수입국으로 꾸준히 수산물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다. 2016년 기준 수산물 수출액은 51억 1천만 달러, 수입액은 28억 4천만 달러로, 수출 중심의 교역 구조를 보이고 있다. 캐나다의 주요 수출국은 미국으로 수산물 전체 수출액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그 외에는 중국, 일본, 홍콩, 영국 등지로 수출하고 있다. 주요 수입국은 미국, 중국, 태국, 베트남으로 최근 수출은 증가하는 반면 수입은 보합세를 보이는 추세이다.

| 캐나다 수산물 교역 추이 |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연평균 증감률
수출 (세계순위)	4,497 8위(3.3)	4,721 8위(3.3)	4,910 8위(3.8)	5,149 8위(3.7)	4.6
수입 (세계순위)	2,851 15위(2.1)	3,041 14위(2.2)	2,752 12위(2.2)	2,843 14위(2.1)	-0.1
수산물 무역수지	1,646	1,680	2,158	2,305	11.9

주 : 괄호 안의 수치는 전 세계 수산물 수출입액 중에서 캐나다가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 UN Comtrade(검색일 : 2018.11.17.), KMI 가공

주요 수출국 : 미국, 중국, 일본

캐나다는 전 세계 170여 개국으로 연간 51억 5천만 달러가량의 수산물을 수출하고 있다. 주요 수출국은 미국, 중국, 일본, 홍콩, 영국 순으로 미국이 65.1%를 차지하고, 그다음으로 중국(10.6%), 일본(4.6%), 영국(2.7%), 홍콩(2.5%) 순이다. 한국은 캐나다의 제 7위 수출대상국으로 약 6천 9백만 달러를 한국으로 수출하였다.

| 주요 국가별 수산물 수출액 |

(단위 : 백만 달러, %)

순위	국가	2014년	2015년	2016년	3년간 평균	
					수입액	비율
전체		4,721	4,910	5,149	4,927	100.0
1	미국	3,011	3,220	3,386	3,206	65.1
2	중국	468	514	582	521	10.6
3	일본	242	204	233	226	4.6
4	영국	134	150	121	135	2.7
5	홍콩	118	119	140	126	2.5
6	베트남	113	85	81	93	1.9
7	한국	39	59	69	56	1.1
8	덴마크	78	89	65	78	1.6
9	프랑스	69	53	49	57	1.2
10	벨기에	34	48	46	43	0.9

자료 : UN Comtrade(검색일 : 2018.11.17.), KMI 가공

주요 수출품목 : 바닷가재, 연어, 게

캐나다의 주요 수출 품목은 바닷가재, 연어, 게 등이며 상위 3개 품목이 전체 수출액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바닷가재는 캐나다 수산물을 대표하는 어종이며, 캐나다 정부 차원에서도 어획할당량 및 어획 과정을 철저하게 감독하고 있다. 연어 또한 캐나다가 대표 수출품목 중 하나로 동부의 노바 스코샤(Nova Scotia)와 서부 밴쿠버(Vancouver) 섬에서 많이 양식되고 있다.[2)]

| 주요 수산물 품목별 수출액 및 비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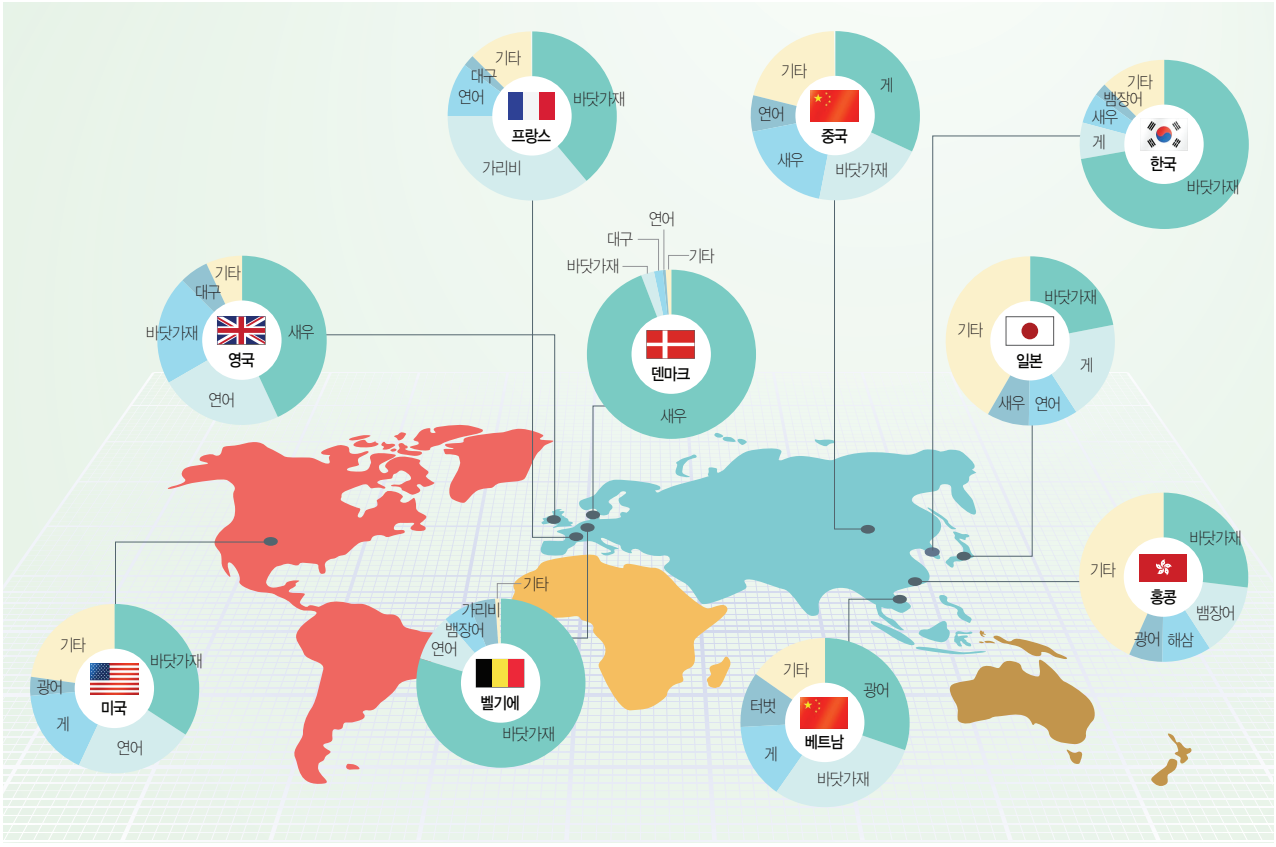
(단위 : 백만 달러, %)

순위	품목	2014년	2015년	2016년	3년간 평균	
					수입액	비중
전체		4,721	4,910	5,149	4,927	100.0
1	바닷가재	1,373	1,592	1,622	1,529	31.0
2	연어	613	685	917	738	15.0
3	게	821	765	843	810	16.4
4	기타	456	430	475	454	9.2
5	새우	446	453	359	419	8.5
6	광어	151	171	186	169	3.4
7	가리비	186	165	140	164	3.3
8	소금	199	171	116	162	3.3
9	청어	77	76	76	77	1.6
10	민대구	49	47	66	54	1.1

자료 : UN Comtrade(검색일 : 2018.11.17.), KMI 가공

2) http://atlanticcanadaexports.ca/product/lobster-live-2/
http://fooddaycanada.ca/foodnews/salmon-a-canadian-ic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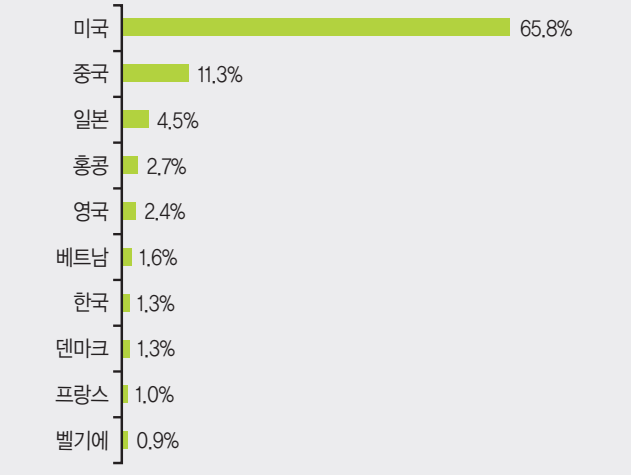
캐나다 수산물 수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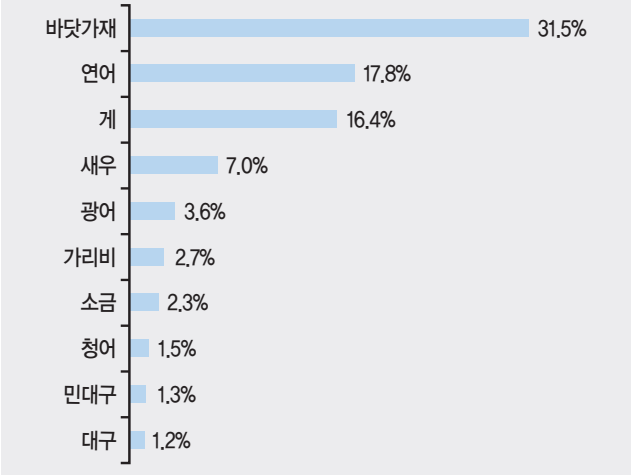
주 : 2016년 기준

자료 : UN comtrade 원자료(검색일 : 2018.3.13.) KMI 가공

| 국가별 수출 비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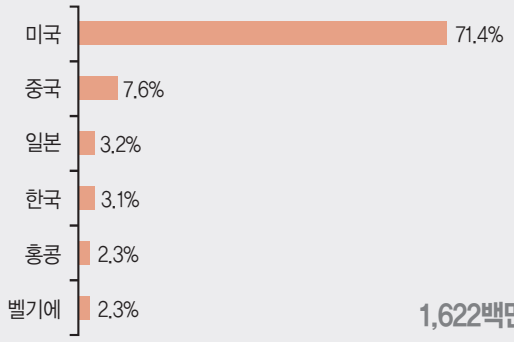


| 품목별 수출 비중 |



바닷가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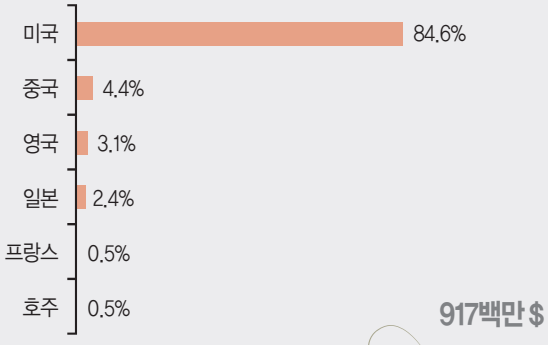




1,622백만 $

연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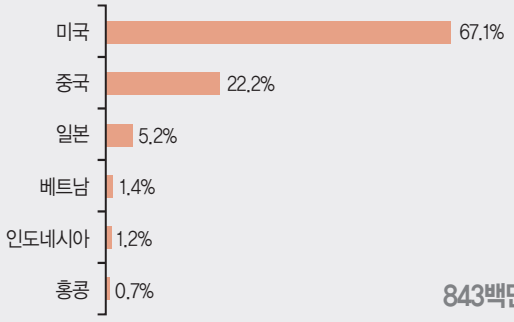




917백만 $

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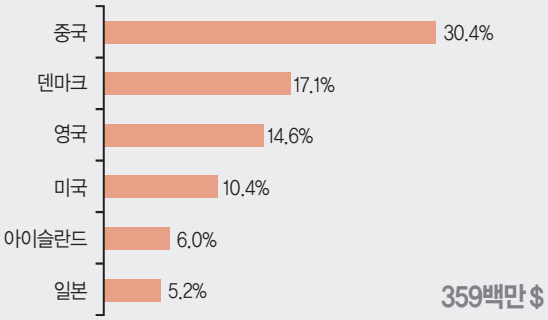




843백만 $

새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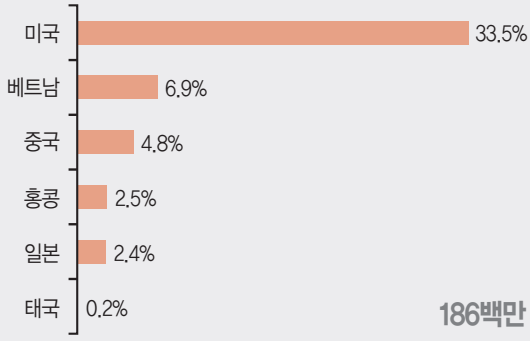




359백만 $

광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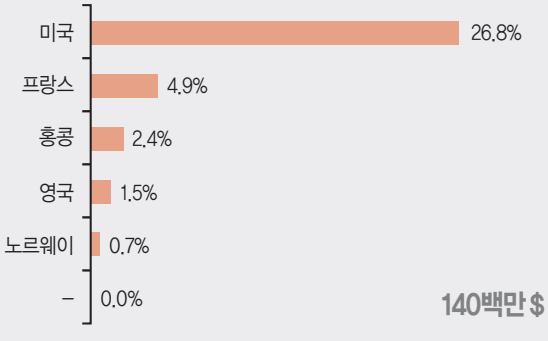




186백만 $

가리비





140백만 $

주요 수입국, 미국, 중국, 태국

캐나다는 전 세계 150여 개국으로부터 연간 28억 4천만 달러가량의 수산물을 수입하고 있으며, 수입액은 수출액의 약 절반 수준에 해당한다. 주요 수입국은 미국(36.6%), 중국(13.7%), 일본(9.7%) 등이다. 한국은 캐나다의 제20위 수입대상국으로 약 1천 4백만 달러의 수산물을 한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수산물은 전체 0.5% 수준으로 점유율이 낮은 편이다.

| 주요 국가별 수산물 수입액 |

(단위 : 백만 달러, %)

순위	국가	2014년	2015년	2016년	3년간 평균	
					수입액	비율
전체		3,041	2,752	2,843	2,879	100.0
1	미국	1,048	1,010	1,103	1,054	36.6
2	중국	418	362	407	396	13.7
3	태국	299	268	272	280	9.7
4	베트남	245	204	184	211	7.3
5	인도	152	124	117	131	4.5
6	칠레	204	150	114	156	5.4
7	노르웨이	105	100	85	97	3.4
8	인도네시아	46	36	37	40	1.4
9	아이슬란드	25	27	34	29	1.0
10	페루	39	32	30	34	1.2
20	한국	15	12	14	14	0.5

자료 : UN Comtrade(검색일 : 2018.11.17.), KMI 가공

주요 수입품목, 새우, 연어, 바닷가재

캐나다의 주요 수입 품목은 새우, 연어, 바닷가재 등이며 상위 3개 품목이 전체 수출액의 45%를 차지하고 있다. 상위 3개 품목은 캐나다에서 가공 형태와 관계없이 수입과 수출 양면에서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외 참치, 대구, 게, 어분 등을 수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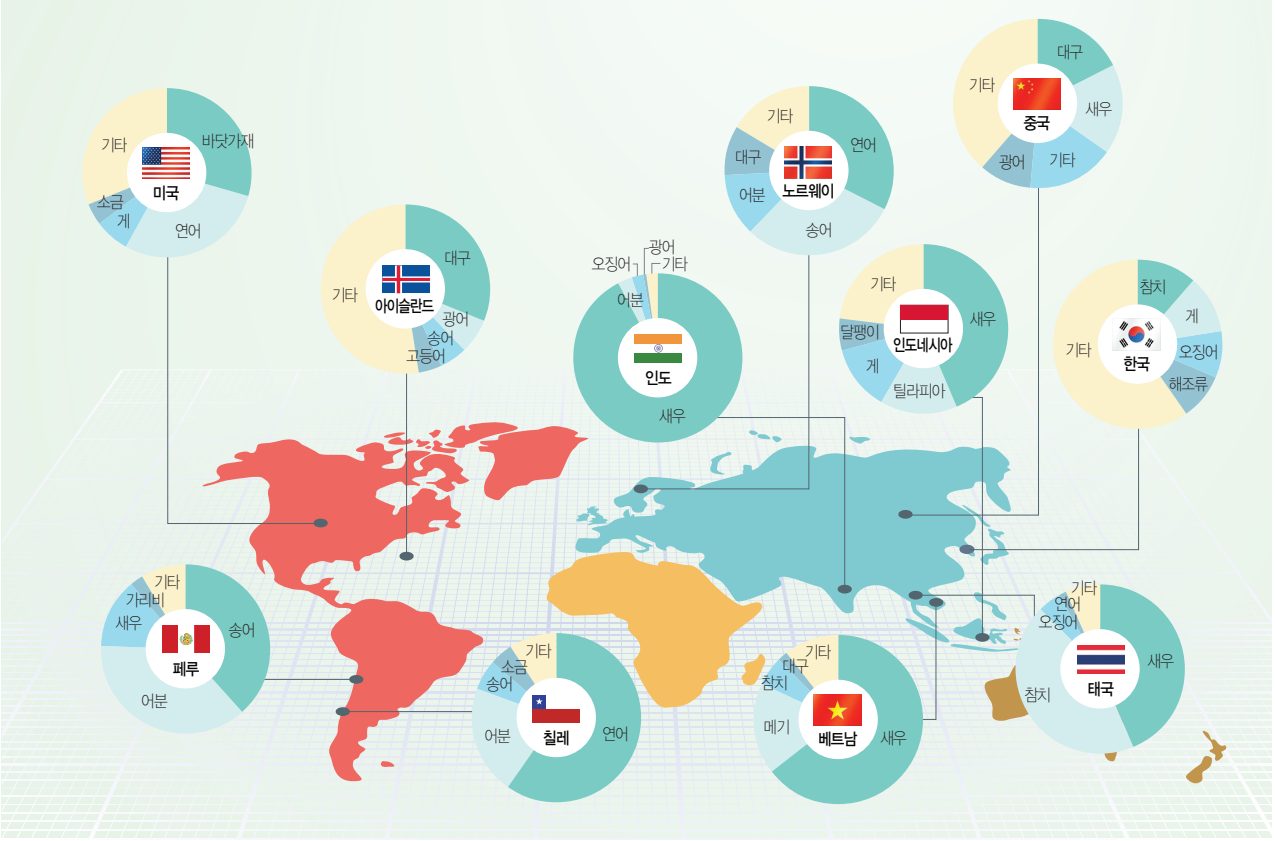
| 주요 수산물 품목별 수입액 및 비중 |

(단위 : 백만 달러, %)

순위	품목	2014년	2015년	2016년	3년간 평균	
					수입액	비중
전체		3,041	2,752	2,843	2,879	100.0
1	새우	640	513	490	547	19.0
2	연어	426	403	475	435	15.1
3	바닷가재	330	343	348	340	11.8
4	기타	379	348	346	358	12.4
5	참치	191	183	190	188	6.5
6	대구	116	116	129	120	4.2
7	게	121	95	115	110	3.8
8	어분	92	98	96	96	3.3
9	소금	126	93	87	102	3.5
10	광어	84	79	83	82	2.8

자료 : UN Comtrade(검색일 : 2018.11.17.), KMI 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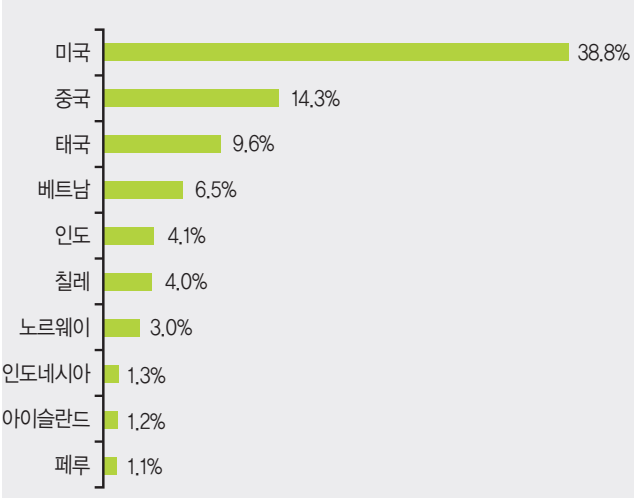
캐나다 수산물 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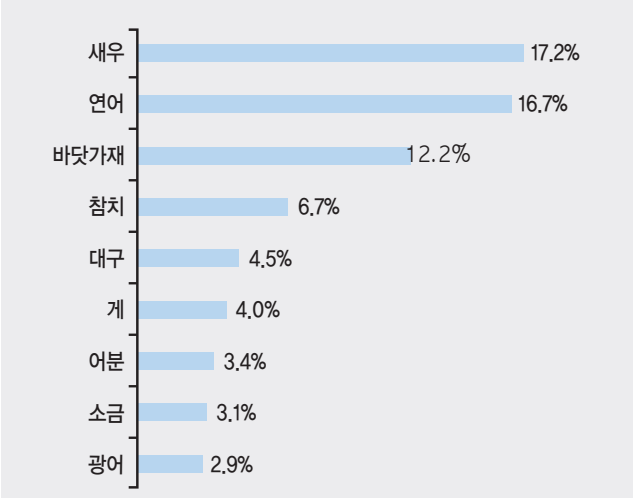
주 : 2016년 기준

자료 : UN comtrade 원자료(검색일 : 2018.3.13.) KMI 가공

| 국가별 수입 비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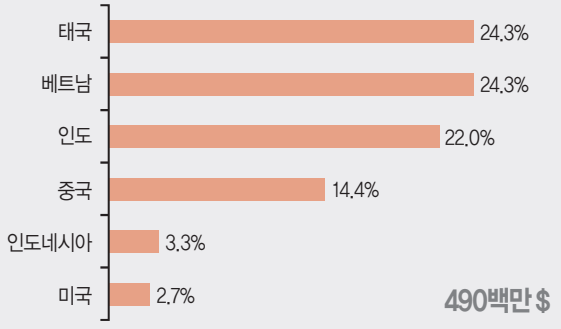


| 품목별 수입 비중 |



새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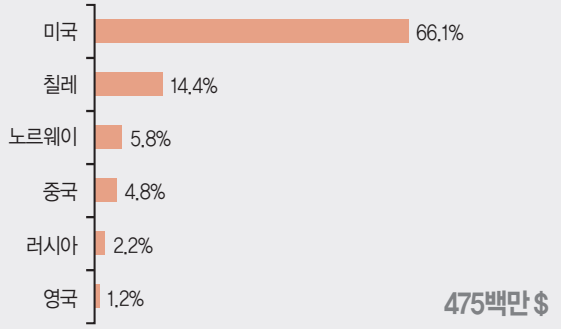




490백만 $

연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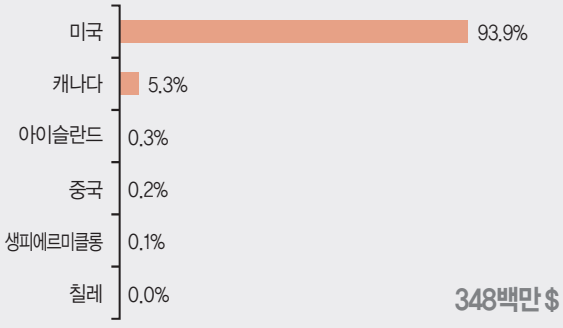




475백만 $

바닷가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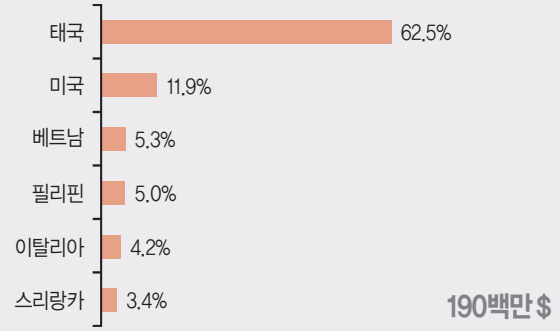




348백만 $

참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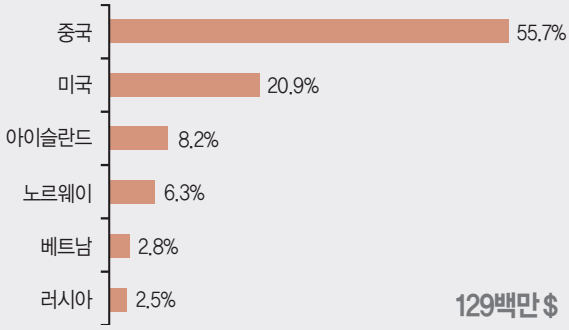




190백만 $

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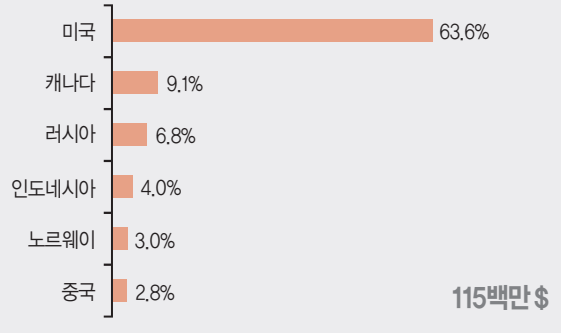




129백만 $

게





115백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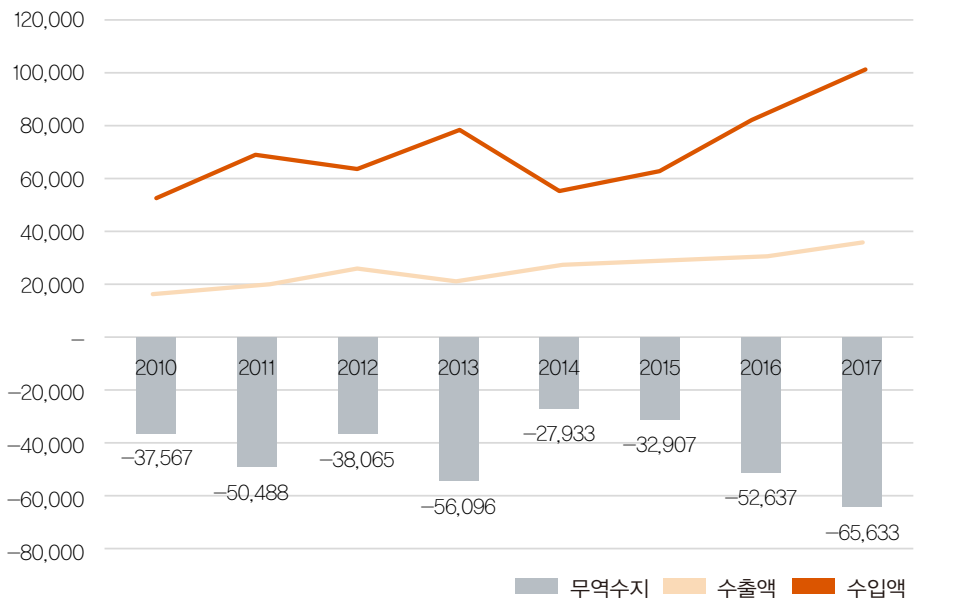
한국-캐나다 수산물 교역 동향

주요 수입품목 : 새우, 연어, 바닷가재

한국과 캐나다의 수산물 교역 동향을 살펴보면, 한국은 對캐나다 수입액이 수출액보다 항상 상회함으로써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2017년 기준 한국의 수입액은 약 1억 달러이며 무역적자 폭은 6천 6백만 달러이다. 특히, 무역적자는 2014년을 기점으로 한국의 연어, 바닷가재에 대한 수입이 증가하면서 급격히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한국-캐나다 수산물 수출입 추이 |

(단위 : 천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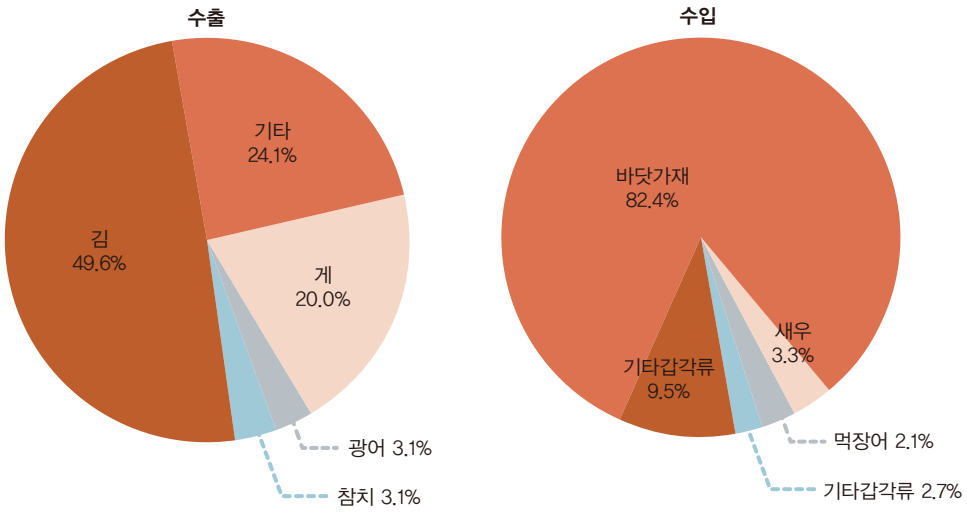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원자료(검색일 : 2018.11.20.), KMI 가공

주요 수출 품목은 김과 게, 주요 수입 품목은 갑각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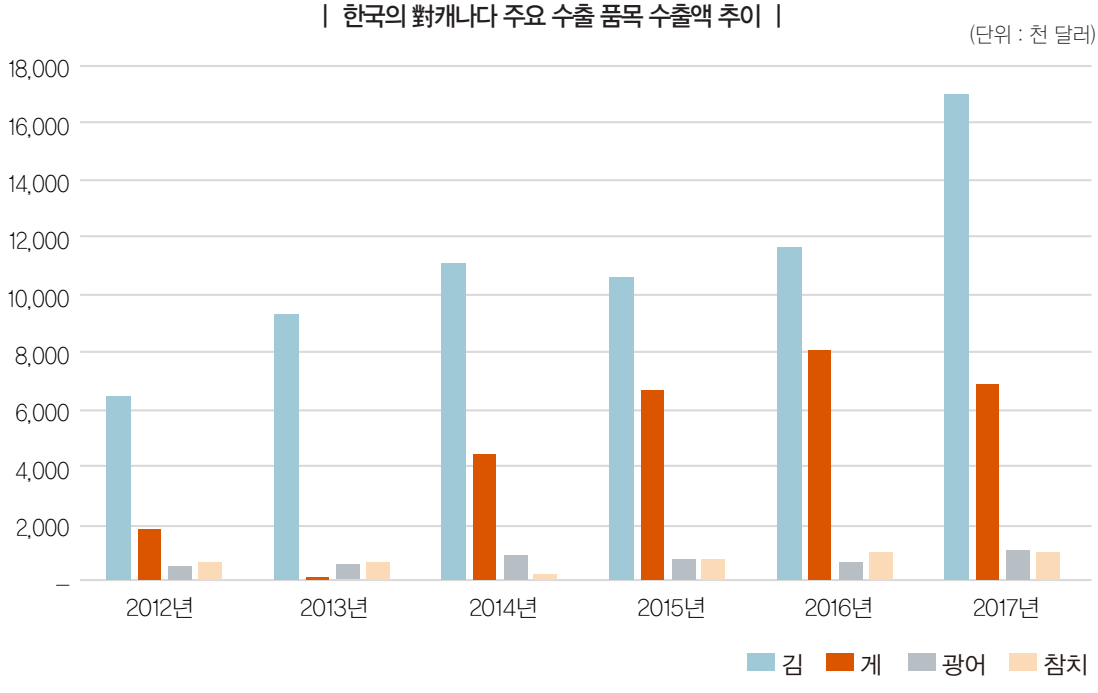
양국 간의 주요 교역 품목(2017년)은 김, 갑각류, 광어 등이며, 한국은 캐나다에 김과 게를 수출하고 바닷가재, 새우, 기타 갑각류 등을 수입하고 있다. 수출 품목 중심으로 살펴보면, 제1위 수출품목인 김은 2012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게 또한 함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 한국의 對캐나다 주요 수출입 품목 비중(2017년) |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원자료(검색일 : 2018.11.20.), KMI 가공

| 한국의 對캐나다 주요 수출 품목 수출액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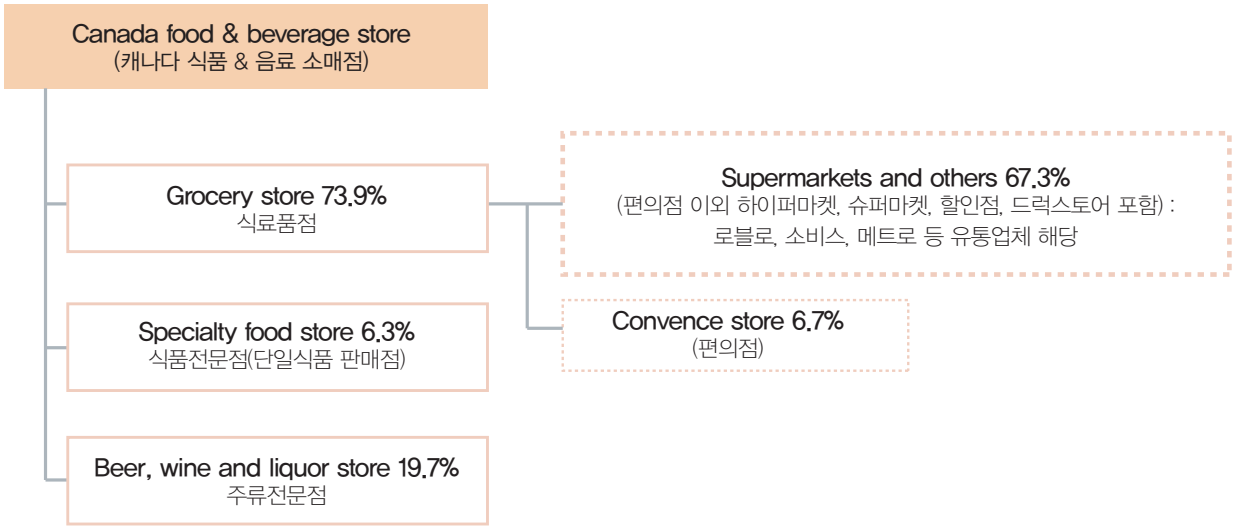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원자료(검색일 : 2018.11.20.), KMI 가공

캐나다 농수산물 유통채널 현황

농수산물 주요 유통채널, 오프라인 슈퍼마켓(Supermarket) 중심

캐나다 식품 및 음료 유통채널은 캐나다의 유통산업은 크게 슈퍼마켓, 식료품점, 편의점과 대형상점 및 전문 상점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 중 가장 비중이 큰 유통채널(2018년 8월 기준)은 식료품점(Grocery store)이 73.9%로 절대적으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식료품점 내에서는 로블로, 소비스 등 슈퍼마켓(Supermarket) 형태가 67.3%로 주도적인 유통채널을 형성하고 있다. 편의점은 6.7%로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은 편이다. 이외 주류 전문점(Beer, wine and liquor store) 19.7%, 식품 전문점(Specialty food store) 6.3%로 구성되어 있다.

| 캐나다 식품·음료 소매점 주요 유통채널 구조 및 점유율(2018년 8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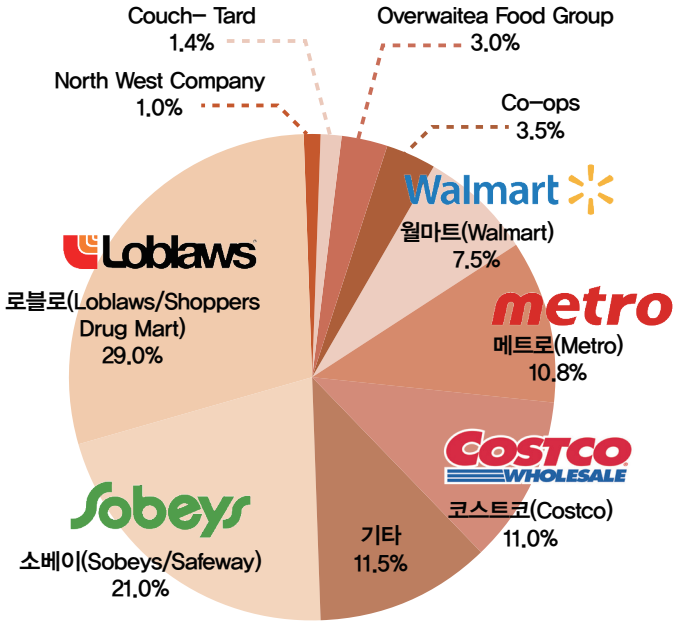


자료 : Statistics Canada, Retail trade sales by industry (x 1,000)

주요 식료품 유통업체, 로블로, 소비스, 메트로, 월마트, 코스트코 등이 대표적

캐나다 식료품 유통은 로블로, 소비스, 메트로 등 전통 식품 유통업체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대형 소매업체들은 지난 수년간 매장을 새롭게 단장하여 푸드코트를 비롯한 휴식공간까지 마련하여 매장의 고급화를 추구하고 있는 추세이며, 인종 구성의 다양성과 웰빙라이프를 추구하는 트렌드에 발맞춰 유기농 식품 및 에스닉 푸드 코너를 확장하고 있다. 또한 대형 소매업체는 프리미엄 PB상품 출시로 이윤과 판매량을 늘리고 있다.

| 캐나다 주요 식품 유통업체별 시장점유율 |



자료 : USDA, Canada Retail Sector Overview 2018

온라인 식품 유통시장, 초기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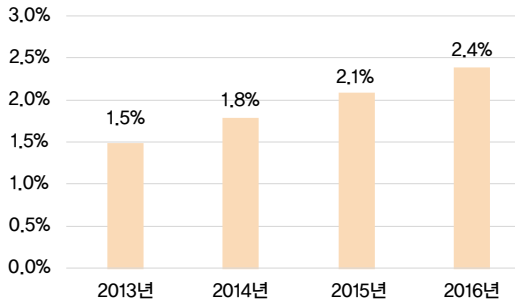
캐나다 식품 유통 전자상거래 시장 또한 아직 초기 단계에 있으며 그 성장 속도도 느린 편이다. 이는 온라인에서 장 보는 비용이 오프라인보다 더 비싸다는 인식이 소비자들에게 강하게 자리 잡고 있으며 신선식품처럼 상하기 쉬운 식품은 직접 보고 선택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캐나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비중은 2013년 1.5%에서 2016년 2.4%로 매년 소폭 상승하는 추세이다. 전자상거래 식료품 판매 비중(2016년)은 1.6%로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최근 밴쿠버 리서치 업체인 NRG(2018)가 1,004명의 캐나다인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3]에서 식료품을 구매한 응답자 중 주요 업체별 이용 비중은 아마존 62%, 월마트 37%, 로블로 23%로 아마존이 상대적인 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마존은 전자상거래 측면에서 전통적인 식료품 업체들보다 경쟁우위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캐나다 소비자들은 향후 높은 온라인 식품 구매 의사를 보였고, 품목별로는 개인 및 통조림 제품 51%, 신선 육류·수산물 20% 비중으로 나타났다. 캐나다 대형 식료품 소매업체는 전자 상거래에 대한 명확한 확신을 하지 못하였으나 최근 트렌드 변화로 전통 식료품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경쟁적으로 온라인 식품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로블로는 2014년부터 클릭 & 콜렉트(click and collect) 서비스로 온라인 식품시장을 확대해나가고 있으며, 메트로 또한 2017년 말 클릭 & 콜렉트를 시작하여 전통 식료품 유통업체들의 온라인 식료품 시장 진출이 확대되고 있다.

3) http://www.canadiangrocer.com/top–stories/amazon–leads–online–grocery–shopping–in–canada–survey–79916

| 전자상거래 비중, 식료품 전자상거래 비중 |



전체 소매거래 중 전자상거래(e-commerce) 판매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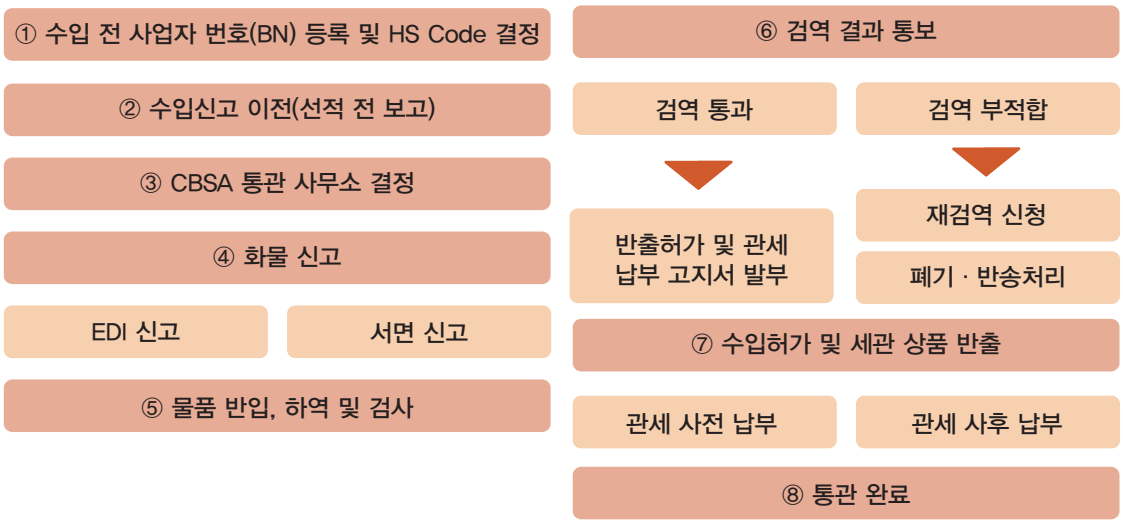
캐나다 식료품 전자상거래 판매 비중(2016)

자료 : Statistics Canada, Retail trade, total sales and e-commerce sales
Statistics Canada, Food services and drinking places, e-commerce sales

수출 및 통관 절차

캐나다 수출 및 통관 절차는 ① 수입 전 사업자 번호(BN) 등록 및 HS Code 결정 → ② 수입신고 이전(선적 전 보고) → ③ CBSA 통관 사무소 결정 → ④ 화물 신고 → ⑤ 물품 반입, 하역 및 검사 → ⑥ 검역 결과 통보 → ⑦ 수입허가 및 세관 상품 반출 → ⑧ 통관 완료 순서로 진행된다.

| 캐나다 수출 및 통관 절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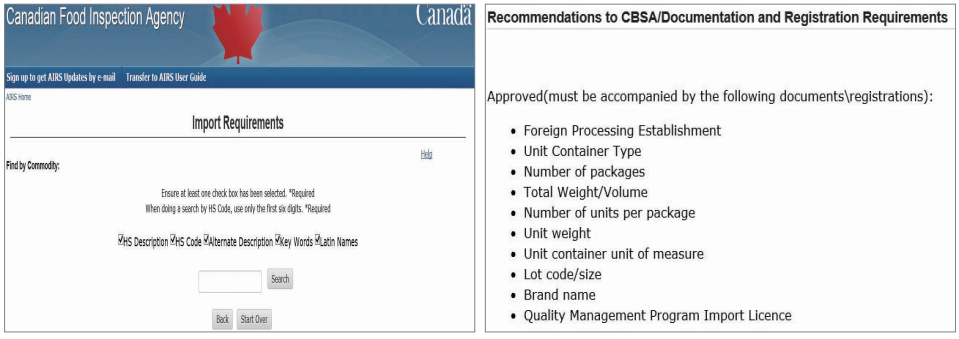


자료 : aT(2018), 수출국가정보ZIP 미주·EU 기초세우기

① 수입 전 사업자 번호(BN) 등록 및 HS Code 결정

캐나다로 물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번호(Business Number)를 발급해야 한다. 사업자 번호는 온라인 사이트(https://bit.ly/2Q6RL3t)에서 등록 할 수 있다. 사업자 번호 신청 심사 및 발급은 캐나다 연방정부 국세청(Canada Revenue Agency)이 담당하고 있다. 품목의 수입 요건, HS Code 및 필요 서류는 AIRS(Automated Import Reference System, 수입참조 자동화 시스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4]

| AIRS 품목 검색창 및 검색 결과 화면 |



라벨링 제작에서는 제품명, 중량, 성분 및 알레르기 유발항원, 주사업장 소재지, 제조 및 수입·유통 업체명, 유통기한, 저장방법, 영양정보, 1회 제공량, 감미료, 원산지가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며 영어와 프랑스어가 동시에 표기되어야 한다. 영양성분표는 판매 시 보이는 곳에 위치해야하고 용량은 영어와 프랑스어 모두 미터법으로 입력해야 한다. 라벨링과 관련한 식품검사청(CFIA) 규정은 해당 사이트[5]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수입신고 이전(선적 전 보고)

선적 준비가 완료되면 선적 전에 한국에서 캐나다 세관으로 ACI(Advance Commercial Information)를 전송한다. 미국 영토를 먼저 경유할 때에는 ACI와 더불어 미국 세관에 AMS(Automated Manifest System)와 ISF(Importer Security Filing)를 전송한다.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운송수단, 미국 경유 여부에 따라 보고 방법이 상이하다.

- 항공화물(Air)은 화물 도착(처음 도착할 곳)에 4시간 전에 국경관리청(CBSA)에 관련 서류 및 데이터를 전자 송부한다.
- 선박화물(Marine)은 화물 종류 및 원산지에 따라 도착 혹은 적재 24시간~96시간 전에 관련 서류 및 데이터를 전자 송부한다.
- 도로화물(Highway)은 화물 도착 1시간 전에 서류를 전자 송부한다.
- 철도화물(Rail)은 화물 도착 2시간 전에 서류를 전자 송부한다.

③ CBSA 통관 사무소 결정

대다수의 화물은 도착한 곳의 CBSA 통관사무소에서 진행된다. 수입자는 관련 수입정보, 증빙서류 및 수입신고서를 CBSA에 제출해야 한다. 보세운송인을 사용하는 경우는 수입업자의 편의에 따라 내륙 사무소에서 통관이 가능하다.

④ 화물 신고

화물이 수입항에 도착한 후, 수입자는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입신고서를 관할 세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통관 제출 서류는 EDI 시스템 또는 서면제출로 신고한다.

---

4) http://www.inspection.gc.ca/food/imports/airs/eng/1300127512994/1326599324773
5) Labelling Requirements Checklist(https://bit.ly/1dUiGeZ), Food Labelling and Advertising(https://bit.ly/1sYKumQ)

④-1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신고

수입화물의 수하인이나 위탁을 받을 통관기업이 전산 시스템을 통하여 세관에 수입신고서 전자 자료를 전송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한다. EDI 신고는 특정 사이트를 통한 신고가 아니라 통관 기업 내 관세청과 연결된 S/W를 설치한 후 수입신고를 진행한다.

④-2 서면 신고

수입화물 수하인이나 위탁 통관기업이 수입신고서를 작성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구비하여 세관에 직접 제출한다. 원산지증명서는 한-캐나다 FTA 발효에 따라 철폐된 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제출하는 것으로 별첨 양식에 수출업체가 서명하여 발급한다.

| CBSA 관련 증빙 서류 |

구분	증빙 서류	수량(부)
1	화물통제문서(CCD : Cargo Control Document)	2
2	인보이스(Invoice)	2
3	B3 form(세금 부과 목적으로 운송가액이 1,600달러를 넘을 시 3부 필요)	2
4	수입허가증(Import Permit) 또는 검역증명서(Health Certificate)	1
5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1

자료 : aT(2018), 수출국가정보ZIP 미주·EU 기초세우기

⑤ 물품 반입, 하역 및 검사

캐나다 관세청은 수입제품의 신속한 통관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 물품을 검사(Inspection 또는 Exam)한다. 검사 대상은 최초 수출되는 제품으로 검역 인증 대상 제품은 종자, 사료, 비료, 신선식품(고기, 생선, 달걀, 유제품, 과일, 채소), 조리식품, 포장식품 등이다. 면제 대상은 예전부터 주기적으로 수입되는 제품, 국민 건강·안전성과 밀접한 관련이 없는 제품, 과거 수입규정 위반 사례가 없었던 수출입자 등이다. 육류 및 어류제품은 식품검사청(CFIA) 수입 프로그램에 따른 검역 과정을 거친다. 수산물 수입업체는 수입하는 상품의 유형, 물량, 생산업체명, 원산지, 창고 위치 등에 관한 정보를 캐나다 식품검사청(CFIA)에 통보해야 한다.

⑥ 검역 결과 통보

⑥-1 검역 통과

수입신고 이후 검역을 통과하면 상품 반출 허가 및 관세 납부 고지서(K84)가 발부된다.

⑥-2 검역 부적합 판정

통관 물품이 검역 부적합 판정 시에는 반송 혹은 폐기 처분한다. 수입자는 재검역 신청을 할 수 있다.

⑦ 수입허가 및 세관에서 상품 반출

수출입허가법(Export & Import Permit Act)과 특별 수입 규제 조치법(SIMA: Special Import Measure Act)에 의해 지정된 품목이나 농수산물, 의료기기 등 국민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품목의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해 수입허가를 받고 안전인증 등 별도

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수입허가가 필요한 품목은 매년 캐나다 법무부(Justice Canada)가 업데이트하고 있는 Import Control List(https:// bit.ly/2HkPgem)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⑦-1 관세 사전 납부

수입신고서 제출 시 관세 및 세금을 현금 또는 직불카드로 납부한다. 다만, 물품검사(Exam)를 하는 경우, 추가 관련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세의 납부는 물품검사가 종료된 후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납부하면 된다.

| 관세 납부 관련 증빙 서류 |

구분	증빙 서류
1	B3-3(캐나다 세관 코딩 서류)
2	A8A-B(화물 통제 서류)
3	CCI1(캐나다 세관 송장)
4	기타 수입허가 증명서
5	면허 혹은 기타 정부 부처나 에이전시가 필수로 정한 문서 및 전자 복사본

자료 : aT(2015), FTA로 다시 보는 캐나다

⑦-2 관세 사후 납부

담보 제공(Bond 등) 및 면허가 있는 통관중개업자는 15일~30일 이내에 관세를 납부할 수 있다. 세관과 신뢰관계가 구축된 경우는 RMD 신청을 통해 통관 수속을 진행할 수 있다.

⑧ 통관 완료

수입신고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관세 결정 후 납부되면 수입물품에 대한 통관이 완료된다.

| 캐나다 수출입 관련 주요 기관 및 URL |

수출입단계	기관명	내용	URL
수입신고 전	국세청	사업자 번호 (Business Number) 신청	https://bit.ly/2Q6RL3t
	식품검사청	AIRS 통해 서류, 수입 요건 등 확인	https://bit.ly/2lHEjbh
		라벨링 제작	https://bit.ly/1dUiGeZ
			https://bit.ly/1sYKumQ
선적 및 화물운송	국경관리청	수송화물 적하목록 전자 제출	https://bit.ly/2U9W9BC
		eManifest Portal	https://bit.ly/2KPQBle
		EDI 서류 다운로드	https://bit.ly/2EanhM6
		통관 제출 서류	https://bit.ly/2KS1ny0
수입신고	국경관리청	EDI 소프트웨어/서비스 제공업체	https://bit.ly/2Pdg1QM
세관신고	국경관리청	관세율 확인	https://bit.ly/2BL8WDp
	TCS	한국-캐나다 FTA	https://bit.ly/2rjt9ui
관세 납부	국경관리청	전자 결제 방법	https://bit.ly/2FTxq1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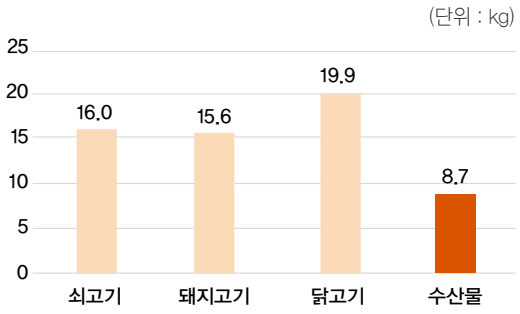
자료 : aT(2018), 한눈에 알아보는 캐나다 수출입 프로세스

캐나다 수산물 소비 동향

캐나다 1인당 연간 수산물 소비량 8.7kg,[6] 육류에 비해 낮은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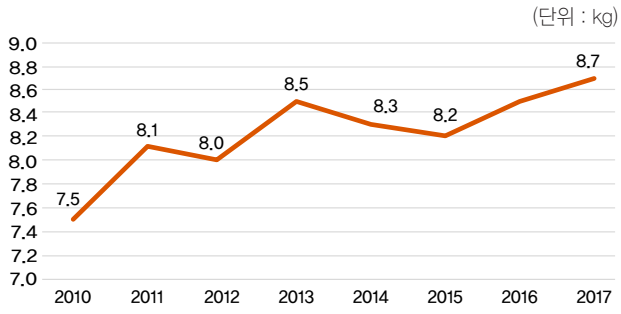
캐나다 1인당 연간 수산물 소비량은 2017년 8.7kg로 닭고기, 돼지고기, 소고기와 비교할 때 약 절반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캐나다에서 가장 소비가 많은 단백질 공급원은 닭고기로 1인당 19.9kg을 기록하고 있다. 다음으로 소고기 16.0kg, 돼지고기 15.6kg 순이다.
캐나다 1인당 연간 수산물 소비량의 증기 트렌드를 살펴보면, 2010년 7.5kg에서 2017년 8.7kg으로 16%가 증가함으로써 캐나다 내 수산물 소비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캐나다 1인당 연간 육류, 수산물 소비량(2017년) |



주 : 식용 중량(edible weight) 기준임
자료 : Statistics Canada, Food available in Canada

| 캐나다 1인당 수산물 소비량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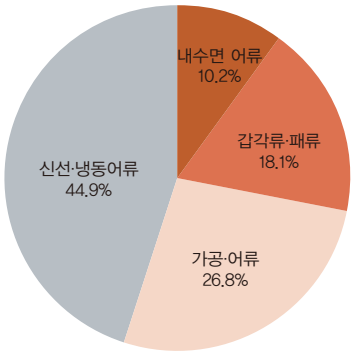


주 : 식용 중량(edible weight) 기준임
자료 : Statistics Canada, Food available in Canada

신선냉동 어류 중심의 수산물 소비

2017년 캐나다 수산물 품목별 소비량 비중은 신선·냉동 어류가 44.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신선·냉동 어류에는 연어, 대구, 그린랜드 터봇, 청어, 정어리, 광어, 고등어 등이 주요 소비어종이다. 두 번째는 가공 어류로 26.8%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훈제 연어, 통조림, 피시 스틱, 요리용(튀김·오븐구이용·수프용) 피레트 등이 있다.
갑각류·패류는 18.1% 비중으로 바닷가재, 대게, 새우, 가리비, 굴, 홍합이 주요 소비 어종이다. 내수면 어류는 10.2% 비중으로 송어류 등이 있다.

| 캐나다 수산물 품목별 소비량 비중(2017년) |



자료 : Statistics Canada, Food available in Canada

6) OECD-FAO 2018-2027 전망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은 23.65kg으로 캐나다 정부의 통계보다 높은데, 이는 공급량과 소비량 집계에 따른 차이로 이해됨

캐나다 식품 시장 트렌드

유기농, 건강식품, 글루텐 프리 식품에 대한 수요 증가

캐나다는 웰빙 트렌드가 확대되면서 기존 식품에 대한 소비 성향에 변화를 보이고 있다. 건강관리에 관심이 많은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유기농, 무설탕, 무색소, 건강식품 또는 렌틸콩, 아보카도 등 영양가 높은 식재료와 유기농, 글루텐 프리 식품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7년 캐나다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유기농식품 구매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82%가 정기적으로 유기농 제품을 소비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는 전년도에 비해 77% 증가한 수치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캐나다 소비자들의 유기농식품 추구 및 소비성향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7]

한편, 글루텐프리 식품은 과민증·알레르기 시장(intolerance category)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시장으로 높은 성장 잠재성을 가진 시장이다. 셀리악병(Celiac disease)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흔한 만성질환으로 캐나다 인구의 약 10% 미만이 이 병을 가진 것으로 진단되고 있다.[8] 이들은 글루텐에 대한 민감한 소비자들로 부작용을 예방하는 제품 성분 및 생산 방법에 대한 정보를 찾고 있다. Canadian Celiac Association(2013)에 따르면 캐나다 소비자 3명 중 1명은 글루텐 프리 식품을 구매하고 있으며, 글루텐 프리 식품이 가족 구성원에게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9] 향후 글루텐이 없는 제품에 대한 수요는 식품뿐만 아니라 외식, 주류 소매점 등에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 캐나다 유기농 식품 |



캐나다 유기농 식품 인증 로고



캐나다 유기농 식품 인증 제품

간편식 시장 확대 : 밀 키트(Meal Kit), 가정대용식(HMR)

캐나다 밀 키트(Meal Kit) 시장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식품 시장 중 하나로 차세대 가정간편식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현재 GodFood, Chef's Plate, HelloFresh와 같은 밀 키트 업체들이 경쟁적으로 시장을 넓혀나가고 있다. 시장조사 업체인 Nilson(2017)에 따르면 아직까지 캐나다 밀 키트 시장은 초기 단계로 2017년 캐나다 가구 중 4% 만이 밀 키트를 구매한 것으로 나타나 미국에서 붐이 일어난 이후 캐나다 시장에서도 본격적인 유행이 시작되고 있다.[10]

---

7)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609136/organic-food-product-purchasers-canada/
8) Health Canada(2008), Celiac Disease The Gluten Connection
9) Canadian Celiac Association, Gluten-Free Certification Program presentation, 2013
10) https://www.nielsen.com/ca/en/insights/news/2017/the-meal-kit-opportunity-in-canada.html

NPD group(2017)에 따르면 캐나다 밀 키트 시장은 2017년 1억 2천만 캐나다 달러시장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주로 저녁에(81%), 당일에 주문 결정(44%), 성인 식사용(78%), 가정식사 대체용(66%)으로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캐나다 소비자들은 요리용 재료가 모두 구비되어 있고, 쿠폰/할인 제공, 신선한 원료 사용, 건강한 식단 제공, 요리 준비가 쉬운 점 때문에 밀 키트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1)]

밀 키트를 이용해 식사를 준비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30분 내외이며, 1인당 비용은 10 캐나다 달러(한화 8,500원) 수준이다. 밀 키트는 1인 가구나 맞벌이 부부뿐만 아니라 평소 음식을 만드는 데 어려움을 겪는 남성들도 가족을 위한 요리를 준비할 수 있어 향후 변화하는 간편식 시장에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 캐나다 밀 키트(Meal Kit) 제품 |



Persian Chicken Thighs with Meyer Lemon



goodfood 밀 키트 제품

자료 : goodfood(https://www.makegoodfood.ca)

캐나다 간편식 시장에서는 1인 가구 증가를 배경으로 가정대용식(HMR : Home Meal Replacement) 시장이 식품업계 전반에 급격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 캐나다 1인 가구는 2016년 전체 28.2%로 그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12)] Mintel의 Home Meal Replacement Canada 2017 report[13)]에 따르면 캐나다 소비자의 85%가 3개월간 식료품점에서 가공 또는 주문 제조 식품(made-to-order foods)을 구매한 경험이 있으며, 특히 18세~34세의 젊은 소비자들의 구매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의 36%가 외식 혹은 테이크아웃 식품보다 HMR 식품이 품질대비 합리적인 가격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Grocerant"의 개념이 확산되면서 HMR 식품이 외식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 또한 나오고 있다.

캐나다 소비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HMR 식품 구매장소는 Grocery Store라는 응답이 72%로 가장 많았으며, Mass Merchants (32%), Club Store(31%) 순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HMR 제품으로는 2018 캐나다 Best New Product를 수상한 'Minute Rice Ready To Serve Cups'를 들 수 있다. Minute Rice는 바쁜 일상으로 건강한 요리를 먹기 힘든 사람을 위해 1분 만에 식사를 준비할 수 있는 건강식 밥(rice) 제품이다. 밥 종류는 통곡물, 채소 잡곡밥 등 총 7가지가 있으며 컵을 개봉하고, 안에 날달걀 등을 넣어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즉석 밥이 완성된다.

11) https://www.theglobeandmail.com/report-on-business/meal-kits-grow-into-120-million-industry-in-canada/article37312803/
12) Statistics Cadada, 2016 Census of Population
13) http://www.canadiangrocer.com/research/hmr-driving-grocerys-evolution-mintel-77318

| 캐나다의 대표적인 HMR 제품 |



Minute Rice Ready To Serve Cups 제품
(2018 캐나다 Best New Product 수상)
자료 : minuterice 홈페이지(https://www.minuterice.c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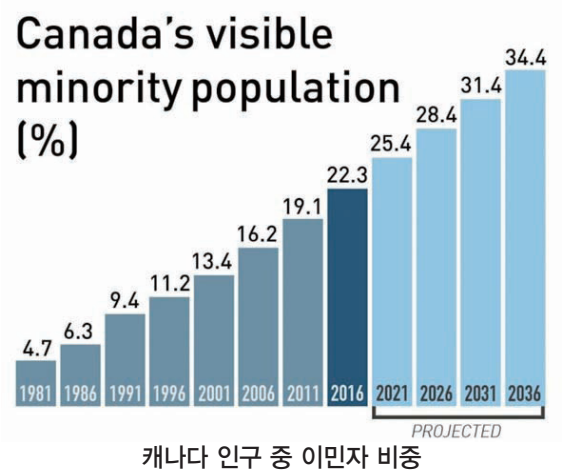
Minute Rice Ready To Serve Cups 제품
요리 완성 모습

맛에 대한 새로움, 다양성, 즐거움 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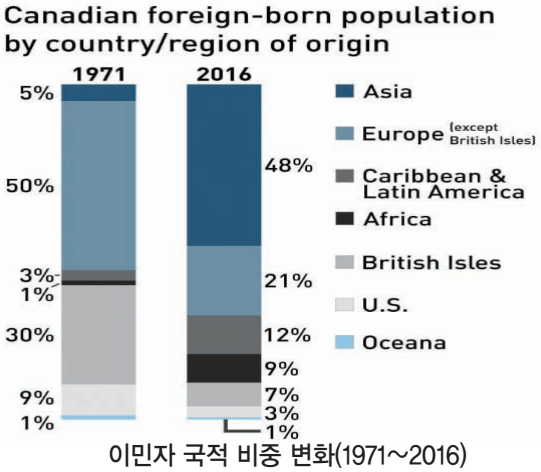
캐나다는 매년 25만~30만 명의 신규 이민자를 수용하는 다민족 국가로 다양한 인종의 음식문화와 조리법 등이 발달하였으며, 캐나다인들의 식습관과 외식문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캐나다 대도시 토론토에서는 시리아 식료품 가게, 필리핀 음식점이 증가하고 있으며, 초밥이 대중적인 외식 메뉴로 인기를 얻고 있다.[14]

캐나다 전체 인구 중 캐나다 이민자 비중은 22.3%(2016년)를 차지하고 있다. 이민자 국적(2016)은 아시아인(필리핀, 인도, 중국, 이란, 파키스탄, 시리아, 한국 등) 48%, 유럽인(영국, 프랑스) 21%, 카리브해 및 라틴 아메리카 12%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캐나다 통계청은 2036년까지 이민자 비중이 전체 인구 30%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캐나다 이민자 현황(2016년) |



캐나다 인구 중 이민자 비중



이민자 국적 비중 변화(1971~2016)

자료 : https://www.cbc.ca/news/politics/census-2016-immigration-1.4368970

14) TNTmagazine, Food delivery trends in Torento(2018.1.26.)

캐나다에서는 밀레니얼 세대(80년대 중반~90년대 후반)들이 소비 트렌드를 이끌어 가고 있다. 이들은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고, 색다른 맛, 다양성을 선호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특정 국가의 전통 음식인 '에스닉 푸드(Ethnic Food)'에 대한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McGuire(2018)에 따르면 최근 캐나다에서 인기가 상승하고 있는 수산물과 생선 요리는 Poke Bowls, Seafood Boils 등으로 이들 요리는 미국 지역 또는 세계의 각지에서 넘어온 것으로 현재 캐나다 식품 트렌드를 이끌고 있다.

| 캐나다에서 인기 있는 수산물 에스닉 푸드 |



하와이 수산물 샐러드 요리 : Tuna Poke



미국 걸프만 지역 요리 : Seafood Boils

자료 : https://www.restobiz.ca/evolving-trends-spur-demand-fish-seafood/

배달 편의 시장(Delivery Convenience Market)의 부상

최근 캐나다 전역에서 식료품 편의 배달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캐나다 1위 유통업체 로블로(Loblaw)는 2017년 전국의 식료품 배달 서비스 확대 계획을 발표하여 본격적인 배달 시장에 뛰어들었으며, 식료품 배송업체 인스타카트(Instracart)와 제휴하여 가정 배달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또한 퇴근 후 귀가하는 직장인이 손쉽게 식료품을 픽업할 수 있는 전철역 픽업(Loblaw express pick up) 서비스를 2017년부터 시작하여 토론토 지역 전철역으로 확대를 진행하고 있다. 캐나다 대표 식료품 배송업체인 인스타카트는 쇼퍼(shopper)를 통해 소비자가 모바일로 주문한 식료품을 구매하고, 1시간 이내 배송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캐나다 배달 편의 시장 서비스 |



인스타카트 식료품 배송 서비스(1시간 이내 배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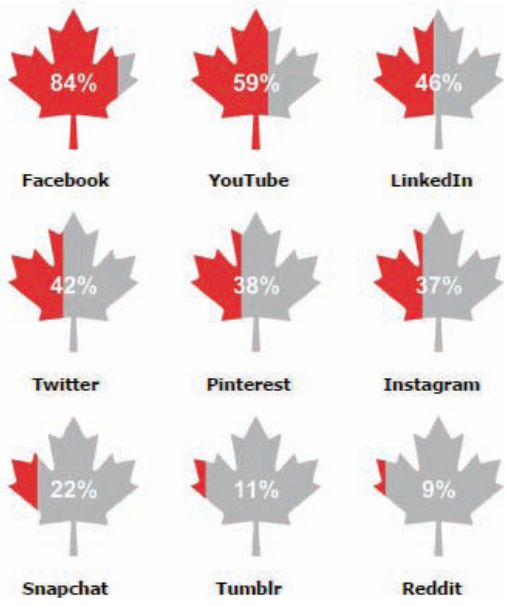
Loblaw 전철역 픽업(express pick up) 서비스

자료 : Instracart, Loblaw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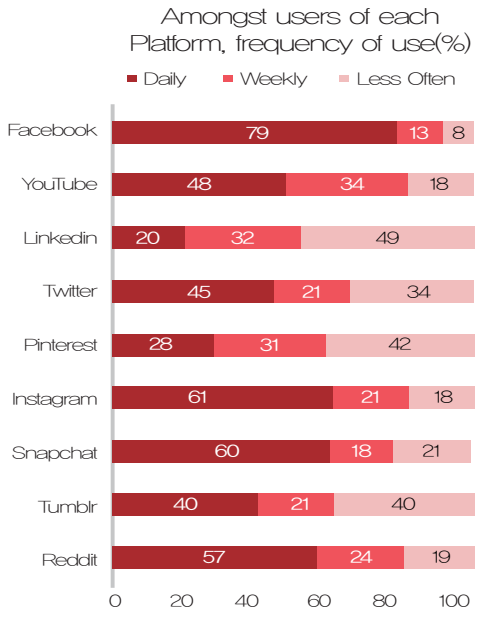
소비자를 변화시키는 강력한 영향력, 소셜 미디어(SNS)를 통한 인플루언서 마케팅

캐나다에서는 소셜 미디어의 영향력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The State of Social Media in Canada 2017 조사에 따르면 캐나다 1,500명의 소셜미디어 사용행태를 조사한 결과 페이스북이 가장 인기 있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으로 나타났다. 페이스북 가입자는 84%이며, 매일 사용하는 사람(daily usters)의 비중이 79%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55세 이상 연령층에서도 높은 사용률을 기록하는 유일한 소셜미디어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유튜브(가입률 59%), 링키드인(가입률 46%), 트위터(가입률 42%), 핀터레스트(가입률 38%), 인스타그램(가입률 37%) 등으로 나타났으며, 매일 사용하는 사람이 대부분 50% 이상으로 높은 소셜미디어 이용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캐나다 소셜미디어 가입률 & 이용빈도 |



캐나다 소셜미디어 가입률



캐나다 소셜미디어 이용빈도

자료 : Ryerson University Social Media Lab(2018), The State of Social Media in Canada 2017

인플루언서는 영향을 주다(influence)에 접미사 'er'을 붙인 것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을 가리키며 인스타그램, 블로그, 페이스북,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SNS) 채널에서 수백에서 수백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인을 의미한다. 전 세계적인 추세와 마찬가지로 캐나다에서도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캐나다의 소비자들은 의사결정을 할 때, 소셜미디어를 통해 구독 또는 팔로우하고 있는 유명인을 통해 정보를 전달받고, 이를 구매에 반영하고 있다. 캐나다 유튜브 스타의 경우 1위에 해당하는 유튜버 Evan Fong과 Lily Singh는 1천만 명이 넘는 구독자 수를 보유하고 있다. 향후 이러한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식품 마케팅 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수산물 소비 트렌드

지속가능한 수산물에 대한 관심 증가

캐나다에서는 레스토랑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수산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2017년 캐나다 레스토랑 요리사 설문 조사(2017 Canadian Chef's Survey)에서 지속가능한 수산물은 상위 10대 트렌드 중 7위를 차지했으며, 떠오르는 트렌드 중 6위를 차지하였다.[15] 캐나다 소비자는 10명 중 6명이 스스로 윤리적인 소비자로 생각하며, 기업이 보다 책임 있는 관행을 보이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6] 또한 수산물 소비자 약 40%는 레스토랑에서 지속가능한 수산물만을 제공할 것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의 연어 양식장 중 25%가 ASC 인증을 받았으며, 양륙 되는 66%의 수산물이 MSC 인증을 받았다.[17] MSC 인증(2017)은 로브스터 & 크랩(8종), 대구, 해덕, 핼리벗(6종), 북부 줄무늬 새우(6종), 연어(3종), 조개류(3종), 청어(3종), 황새치 & 참치(3종) 등이 인증을 받은 상태이다. Canadian Centre of the Plate 소비자 트렌드 조사(2017)에 따르면 수산물 소비자 약 40%는 레스토랑이 지속가능한 수산물만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8]

한편 캐나다 지속가능한 수산물 프로그램 중 하나인 SEACHOICE는 소비자들에게 수산물의 지속가능성에 따라 최적(Best, 초록색), 우려(Some concerns, 노란색), 회피(Avoid, 붉은색)로 소비자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수산물에 대한 노력은 주요 식품 유통업체를 통해서 이루어져 왔다. 캐나다 1위 식품 유통업체 로블로(Loblaw)는 해양 환경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위해 2009년 자사에서 판매하는 모든 수산물을 지속가능한 출처에서만 공급하겠다고 선언하였으며, 2013년까지 모든 판매 수산물을 지속가능한 수산물로 전환하였다. 로블로는 연어 등 지속가능성이 확인된 수산물만을 유통하고 있으며, 수산물이 사용되는 2,500개가 넘는 식품(동물 사료 포함)에 이를 광범위하게 적용시키고 있다.

| 캐나다 지속가능한 수산물 SEACHICE 프로그램 |



자료 : https://vancouversun.com/news/local-news/seachoice-raises-red-flags-about-eco-certified-seafood

15) https://www.foodserviceandhospitality.com/riding-the-wave-of-sustainable-seafood-trends/
16) BDC(2013), Mapping Your Future Growth: Five Game-Changing Consumer Trends
17) Seachoice(2017), what's behind the Ibabel? Assessing the impact of MSC and ASC Seafood Certifications in Canada
18) Technomic(2017), Canadian Centre of the Plate Consumer Trend Report

로블로는 MSC/ASC 및 에코라벨 인증마크가 부착된 수산물, 수산물 통조림, 생선 필렛을 판매하고 있으며, 판매대에도 MSC 인증에 대한 설명과 자원고갈 위기에 처해 있는 어종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2위 수산기업인 클리어워터(Clearwater)도 가리비, 바닷가재, 새우, 대게 등 모든 제품에 MSC 인증을 부착하고 있다.

| 로블로(Loblaw)의 지속가능한 수산물 홍보, MSC 인증 연어 가공품(Salmon cake) |



자료 : http://goodlifevancouver.com/loblaw-sustainable-seafood-campaign/

캐나다산·지역 신선 수산물에 대한 높은 구매의사

캐나다 소비자들은 캐나다산 수산물에 대해 긍정적(positive)이고 깨끗(pure)하다고 지각하고 있다.[19] 또한 BDC 조사(2016)에 따르면 캐나다인의 3분의 2가 지난 1년 동안 현지 또는 캐나다산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응답하였으며, 3분의 2가량의 소비자가 현지 또는 캐나다산 식품에 대해 더 많은 돈을 지불할 의사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20]

캐나다 소비자들은 현지에서 생산된 수산물을 신선하고 맛있다고 인지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캐나다인들은 레스토랑에서 모든 재료가 현지에서 생산된다면 더 많은 돈을 지불하겠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다. 캐나다 소비자 81%는 자연(야생)에서 생산된 수산물을 더 구매하고 싶어 하며, 지역 수산물과 야생에서 잡은(wild-caught) 수산물 그리고 지속가능한 수산물을 가치 있는 수산물 메뉴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속성들은 투명한 유통, 환경친화적인 생산, 높은 제품품질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소비자들에게 인식되고 있다.[21]

또한 소비자들의 레스토랑 수산물에 대한 신선하고 우수한 품질을 갖춘 수산물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신선함은 캐나다 소비자들이 수산물을 구매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주요 특성으로 소비자의 약 87%가 레스토랑에서 신선한 것으로 묘사된 수산물을 구매할 의사를 보였으며, 소비자 50%는 추가적으로 돈을 더 지불할 의사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22]

19) Clearwater Corp(2017), Canadian Seafood Industry, European Seafood Imports & Trends
20) https://thisfish.info/generic/article/game-changing-trends/
21) https://www.restobiz.ca/evolving-trends-spur-demand-fish-seafood/
22) Technomice(2017), Canadian Centre of the Plate Consumer Trend Report

| 캐나다 수산물 원산지 및 자연산·양식 표시 |



자료 : Seachoice(2017), taking stock sustainable seafood in canadian markets

수산물 건강식에 대한 수요 증가, 고령화 & 건강 추구 소비자 증가

2017 Canadian Centre of the Plate Consumer Trend Report에 따르면 캐나다 소비자들은 수산물을 닭고기에 이어 두 번째로 건강에 좋은 단백질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소고기와 돼지고기는 수산물에 비해 건강 인식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산물이 건강에 좋지 않다고 믿는 소비자는 3%에 불과할 정도로 수산물은 건강한 식품이라는 이미지를 강하게 가지고 있다.[23]

수산물에 대한 건강식 인지도는 캐나다 인구 고령화와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캐나다는 2031년까지 약 23%(약 9백만 명)가 65세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24] 최근 연구에 따르면 고령자들이 수산물 섭취가 증가하는 큰 원인 중 하나는 건강 문제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수산물은 오메가3 지방산과 기타 영양성분이 뛰어난 저지방 단백질 공급원으로 높은 명성을 가지고 있다.[25] 향후 고령화 현상과 더불어 수산물을 건강식으로 소비하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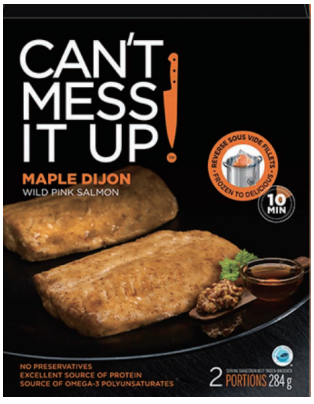
캐나다 소비자의 이러한 건강 매니아(Health mania)적인 성향 증가는 단순히 건강한 다이어트, 운동에 머무르지 않고, 라이프스타일, 식품 소비 등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건강식에 대한 수요는 유기농 시장에서도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 캐나다 Organic Trade Association에 따르면 2017년 유기농 시장 규모는 54억 캐나다 달러로, 이는 2012년 대비 54.3%, 35억 캐나다 달러가 증가한 수치이다. 또한 캐나다 소비자 66%가 매주 유기농 식품(신선 채소, 과일 중심)을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6] 이러한 트렌드는 수산물 소비에서 친환경 수산물, 지속가능성 인증 수산물, 자연산 수산물, 신선 수산물, 이력추적 수산물 선호 현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3) Technomic(2017), 2017 Canadian Centre of the Plate Consumer Trend Report
24) https://www.cbc.ca/news/politics/2016-census-age-gender-1.4095360
25) https://thisfish.info/generic/article/game-changing-trends/
26) Organic trade associatioin(2017), CANADIAN ORGANIC MARKET REPORT 2017

수산물 간편식에 대한 관심 증가

캐나다 수산기업들은 수산물 간편식에 대한 신제품을 집중적으로 연구·개발하여 출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캐나다 1위 식품 회사 HIGH LINER FOODS INC가 개발한 'CAN'T MESS IT UP' 연어 가공품이 있다. 이 제품은 캐나다 소매위원회에서 주관하는 2018년 캐나다 그랜드 프릭스 신제품 어워즈에서 식품 부문 특별상(혁신·독창성 부문)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이 연어 가공품은 초보자들도 전문가 수준의 연어 요리를 할 수 있다는 컨셉으로 Pink salmon fillet(BPA free 플라스틱 포장, 냉동)을 끓는 물에 10분간 담그기만 하면 즉석에서 연어 요리가 완성되는 신제품으로 간단하게 연어 요리를 완성 시킬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 Canadian Grand Prix Winners Awards(2018) 식품부문 특별상을 수상한 연어가공 신제품(CAN'T MESS IT UP)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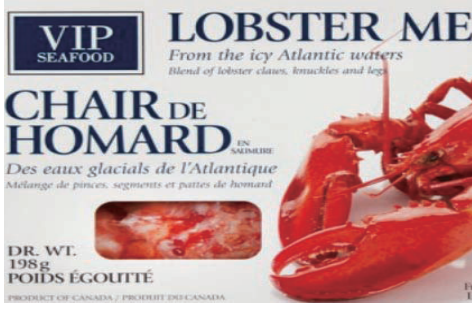
자료 : https://cantmessitup.ca/

랍스터는 원물 중심 제품에서 HPP 가공 제품, 순살(raw meat) 제품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소비자·요리사들의 입장에서 원물의 경우 손이 많이 간다는 단점이 있으나, 가공제품의 경우 즉석에서 쉽고 빠르게 요리에 활용할 수 있다는 간편성을 갖추고 있다. 순살 랍스터 제품은 HORECA 채널(호텔, 레스토랑, 카페)에서 식자재로 주로 유통되고 있다. 생선 피레트(연어, 대구 등) 또한 단순 냉장 진열이 아닌 MAP(Modified Atmosphere Packing) 방식으로 트레이에 소포장 패키징하는 제품이 출시되는 추세이다.[27]

| 캐나다 랍스터 순살 가공제품 |



캐나다 랍스터 HPP 가공
(High Pressure Processing)제품



랍스터 순살(raw meat) 제품

자료 : http://www.gidneyfisheries.ca/hpp_frozen_lobster

27) Clearwater Corp(2017), Canadian Seafood Industry, European Seafood Imports & Tren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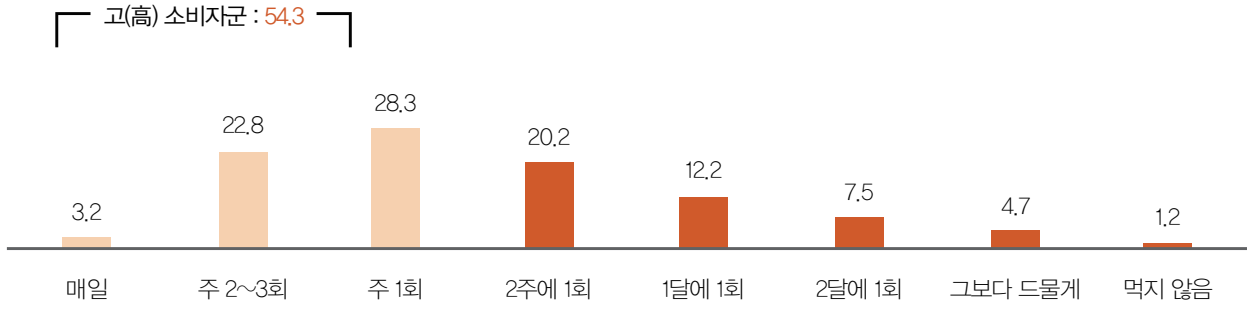
캐나다 소비자의 수산물 소비 행태 조사 결과

주 1회 이상 수산물 소비 54.3%

캐나다 소비자들의 수산물 섭취 빈도는 응답자의 54.3%가 평소 주 1회 이상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비빈도순으로 살펴보면 '매일'이 3.2%, '주 2~3회'가 '22.8%', '주 1회'가 '28.3%'로 집계되었다.

| 수산물·수산식품 섭취 빈도(수산물 전체) |

(Base=전체(600개), 단위 : %)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캐나다 수산물 소비실태 조사 결과(2018.11.)

품질이 가장 중요한 구매 요인

수산물·수산식품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으로는 '품질'이 33.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가격'이 25.7%, '생산방식'이 9.2%, '원산지'가 6.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수산물·수산식품 선택 시 고려 요인 (1순위) |

(Base=전체(600개), 단위 : %)

품질	가격	생산 방식	원산지	영양 성분	요리·섭취 편리성	인증·라벨링	브랜드	포장 상태	평판·입소문	광고·홍보 프로모션	기타
33.8	25.7	9.2	6.2	6.0	5.7	4.8	3.2	3.0	1.2	0.5	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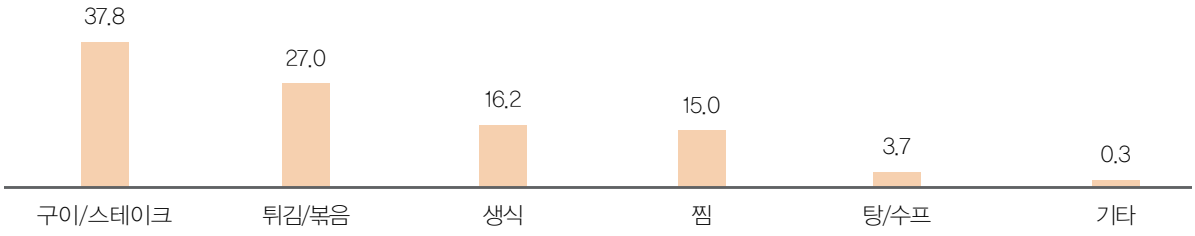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캐나다 수산물 소비실태 조사 결과(2018.11.)

수산물 요리법은 서구적인 방식을 선호

선호하는 수산물·수산식품 요리법은 '구이/스테이크'가 37.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튀김/볶음'이 27.0%, '생식'이 16.2%, '찜'이 15.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선호하는 수산물·수산식품 요리법 |

(Base=전체(600개), 단위 : %)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캐나다 수산물 소비실태 조사 결과(2018.11.)

대부분 가정에서 소비되며, 주로 슈퍼마켓에서 구매

수산물·수산식품을 주로 섭취하는 장소로는 '집'이 63.3%로, 가정에서 직접 조리해서 섭취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레스토랑' 25.0%, '야외' 7.5% 순으로 나타났다.

| 수산물·수산식품 섭취 장소 |

(Base=전체(600개), 단위 : %)

집	레스토랑	야외	기타	합계
63.3	25.0	7.5	4.2	100.0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캐나다 수산물 소비실태 조사 결과(2018.11.)

가정에서 조리하는 경우 수산물·수산식품의 주요 구입처는 '일반 슈퍼마켓'이 31.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시장'이 29.0%, '프리미엄 슈퍼마켓'이 23.2% 등의 순으로 집계되었다.

| 수산물·수산식품 구입 경로 |

(Base=전체(600개), 단위 : %)

일반 슈퍼마켓	시장	프리미엄 슈퍼마켓	에스닉 슈퍼마켓	인터넷 쇼핑몰	편의점	기타	무응답
31.3	29.0	23.2	10.3	2.3	2.2	1.5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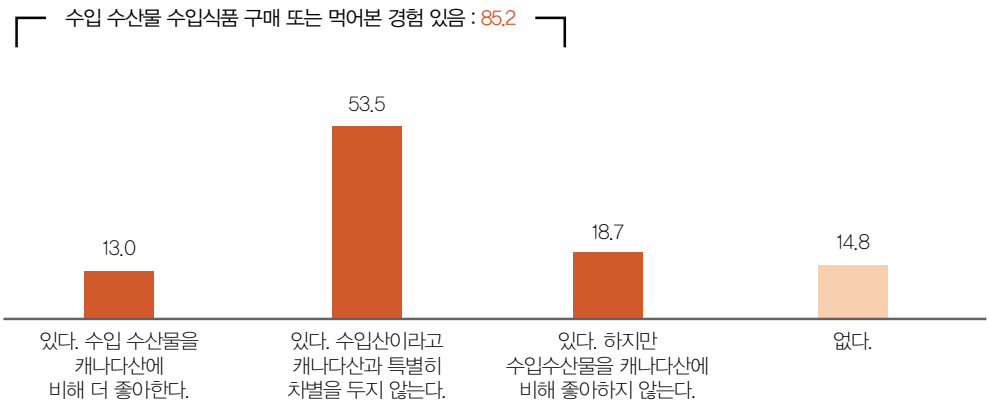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캐나다 수산물 소비실태 조사 결과(2018.11.)

수입 수산물에는 개방적, 노르웨이·미국·일본 순으로 높은 인지도

캐나다 소비자들의 수입수산물 구입 여부를 조사한 결과 85.2%의 소비자가 수입수산물을 구매 또는 먹어본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다. 수입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 중 53.5%의 소비자는 수입산과 캐나다 자국산의 수산물을 차별을 두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13.0%의 소비자는 수입산을 캐나다산보다 더 선호한다고 응답했다. 수입수산물 구매 경험은 있으나 캐나다산 구매 의향이 더 높은 소비자는 18.7%로 나타났다. 한편, 수입수산물을 구매하거나 먹어본 경험이 없는 소비자는 전체 조사 대상 중에 14.8%로 집계되었다.

| 수입 수산물·수산식품 구입 경험 |

(Base=전체(600개), 단위 : %)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캐나다 수산물 소비실태 조사 결과(2018.11.)

캐나다 소비자가 익숙한 수산물 수입 국가를 조사한 결과 미국이 14.2%로 1위를 차지했다. 미국은 캐나다 수입시장에서 36.6%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높은 인지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중국, 일본, 태국, 노르웨이 순으로 높은 인지도를 갖고 있다. 한국 수산물은 0.5% 미만으로 집계되었다.

| 잘 알고 있는 수입 수산물·수산식품 원산지 국가 (1순위) |

(Base=전체(600개), 단위 : %)

수산물·수산식품 원산지 국가	비율	수산물·수산식품 원산지 국가	비율
미국	14.2	러시아	0.8
중국	10.3	아르헨티나	0.8
일본	6.2	이탈리아	0.8
태국	5.7	필리핀	0.8
노르웨이	2.7	아시아	0.8
베트남	2.0	대서양	0.7
칠레	2.0	네덜란드	0.5
인도	1.2	프랑스	0.5
포르투갈	1.2	한국	0.5
뉴질랜드	0.8		

*0.5% 미만 생략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캐나다 수산물 소비실태 조사 결과(2018.11.)

아직은 낯선 한국 수산물, 구매의향은 높아

캐나다 소비자들의 한국산 수산물에 대한 구매동향을 조사한 결과 '직접 구매한 적도 없고 먹어본 적도 없다'가 49.7%로 가장 높았으며, '직접 구매한 적도 있고 먹어본 적도 있다'가 26.8%, '직접 구매한 적은 없으나 식당 등에서 먹어본 적이 있다'가 23.5%로 나타났다. 한국산 수산물을 직·간접적으로 섭취한 경험은 50.3%로 아직까지 높은 편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 한국산 수산물·수산식품 구매 경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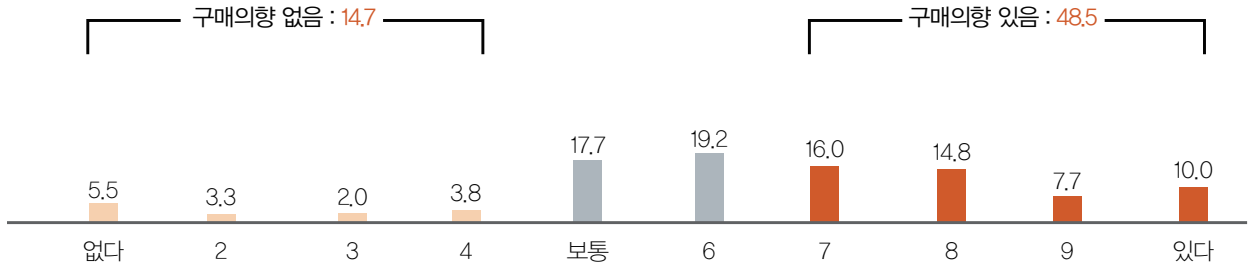
(Base=전체(600개), 단위 : %)

구분	비중
직접 구매한 적도 있고 먹어본 적이 있다.	26.8
직접 구매한 적은 없으나, 식당 등에서 먹어본 적이 있다.	23.5
직접 구매한 적도 없고 먹어본 적도 없다.	49.7
전체	100.0

향후 한국산 수산물·수산식품을 구매할 의향에 대해서는 구매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48.5%로 긍정적인 구매의사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구매의향이 '없다'는 14.7%로 부정적인 응답은 비교적 낮은 수치를 보였다. 캐나다 소비자들의 한국산 수산물에 대한 구매경험, 구매의향 등을 고려해볼 때, 향후 지속적인 對캐나다 수출 확대를 기대해볼 만하다.

| 향후 한국산 수산물 구매 의향 |

(Base=전체(600개), 단위 : %)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캐나다 수산물 소비실태 조사 결과(2018.11.)

읽을 거리

캐나다 유행 수산물 요리

본 내용은 캐나다 레스토랑 & 식품 서비스 전문 매체인 RESTROBIZ(The official website of canadian restaurant & Foodservice News)에서 선정한 2018년 캐나다에서 유행하는, 떠오르는 수산물 요리이다.[28]

참치 포케(Tuna Poke) : 하와이 해산물 샐러드 요리

포케(Poke)는 하와이 해산물 샐러드 요리로 일반적으로 밥 위에 큐브형태로 된 참치 또는 황참치, 다양한 토핑(아보카도, 망고, 당근, 고추, 무, 할라피뇨, 옥수수 등), 드레싱(간장, 마요네즈, 꿀, 참기름, 레몬 & 라임)을 올리는 형태이다. 포케에 사용되는 참치 큐브는 간장, 식초, 생강 등을 넣어 양념한 상태로 사용된다. 포케는 선홍색의 색상이 매력적이고, 가볍고 상쾌한 맛과 질감을 자랑하는 요리로 여러 외식업체에서 포케를 적용한 요리를 선보이고 있다. 포케는 여러 식사 메뉴와 함께 곁들일 수 있고,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이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Moxie's Grill & Bar에서는 참치 포케를 에피타이저로 제공하고 있으며, 밴쿠버의 Burgoo는 옥수수 칩이 들어 있는 참치 포케 스타터를 제공하고 있다.

| 포케(Poke) |



참치 포케(Tuna poke)



밴쿠버 The Poke Guy 메뉴

사진 : https://www.restobiz.ca/evolving-trends-spur-demand-fish-seafood/
https://www.foodnetwork.ca/dining-out/photos/tasty-poke-restaurants-canada/

랍스터 핸드헬드(Lobster Handhelds) : 랍스터 샌드위치의 발전된 형태

랍스터 핸드헬드(lobster handhelds)는 인기 있는 랍스터 롤 샌드위치(lobster roll sandwich)에서 한층 진화된 형태로 발전하고 있는 음식이다. 외식업체들은 랩(wrap)과 타코(tacos)와 같은 형태를 랍스터에 적용하고 있다. 캐나다 외식업체들은 랍스터 핸드헬드를 제공함으로서 가격을 인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된다. Technomic의 메뉴 모니터에 따르면 캐나다 샌드위치 평

28) https://www.restobiz.ca/evolving-trends-spur-demand-fish-seafood/

균가격은 9.53캐나다 달러(한화 8,100원)인 반면 랍스터 샌드위치는 평균 17.09달러(한화 14,500원)로 판매되고 있다. Vera's Burger Shack's의 한정판 제품인 골든 랍스터 버거에서는 제일 위에 랍스터를 배치하고 있다.

| 랍스터 핸드헬드(Lobster Handhelds) |



랍스터 롤(Lobster Roll)



골든 랍스터 버거(Golden Lobster Burger)

사진 : http://dailyhive.com/vancouver/lobster-gold-burger-veras-vancouver-2017
https://www.foodnetwork.ca/seafood/

씨푸드 보일스(Seafood Boils) : 나만의 씨푸드 보일스를 만들어라

미국 걸프만 지역에서 유래된 수산물 요리인 씨푸드 보일스(Seafood Boils)는 최근 소비자들의 개별화된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는 인기 있는 요리이다. 씨푸드 보일스는 일반적으로 랍스터, 대게 다리, 홍합, 새우를 사용하고 조미료, 향신료, 소스를 선택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는 소시지, 옥수수, 감자, 호박, 버섯을 추가 옵션으로 넣을 수 있다. 모든 재료는 양념과 함께 삶아져서 포장지에 담겨서 제공된다. 소비자들은 양념이 묻지 않도록 플라스틱 턱받이와 장갑을 끼고 식사를 하게 된다. 캐나다 대표 씨푸드 보일스 브랜드는 Captain's Boil이 있다. 이 브랜드는 현재 캐나다에 20개 이상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 씨푸드 보일스(Seafood Boils) |





사진 : Captin's Boil 홈페이지(https://www.thecaptainsboil.com/)

수산물 통조림(Tinned fish & Seafood) 요리 : 타파스 with Canned Seafood

수산물 통조림은 스페인과 프랑스에서 들어온 보존식품으로 기름, 소금물, 소스가 든 캔 또는 보관 용기에 담은 식품이다. 최근 통조림에는 참치 뱃살(Tuna Belly), 허리살(Tuna Loins), 정어리, 문어, 홍합 등 고급 수산물 통조림에 대한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다. 수산물 통조림은 주로 에피타이저에 빵과 함께 테이블에 제공되거나 타파스로 제공되고 있다.

토론토의 바인 Raval tapas는 메뉴에 수산물 통조림을 추가하여 트렌드를 이끌고 있다. 이들은 메뉴에 홍합, 훈제 고등어, 로즈마리 오일 통조림과 함께 육류 및 타파스를 제공하고 있다. 캘거리 지역의 Ox Bar de 타파스에서는 문어 통조림, 오징어 통조림, 가리비 통조림 등을 제공하고 있다.

| 수산물 통조림 요리 |





사진 : https://www.macleans.ca/society/a-whole-other-stratosphere-of-canned-food/
https://www.blogto.com/toronto/the_best_tapas_in_toronto/



'미·중 무역분쟁'과 수산물 교역 구조 분석

2018년 하반기 미·중 무역분쟁에 대한 이슈가 온 매체를 뒤덮었다. 특히 수산부문에서 세계 제1위 수산물 수출국인 중국, 세계 제1위 수산물 수입국인 미국 간의 무역분쟁은 세계 수산물 교역환경을 뒤바꿀 수 있는 중요한 이슈였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세계 주요 수산국들은 양국간의 협상에 주목해왔고 이에 따른 '기회' 및 '위기'를 파악해 전략적으로 움직이기도 했다.

미·중 무역분쟁의 관세 부과 과정을 살펴보면 총 3차례(7월, 8월, 9월)에 걸쳐 일어났다. 우선 미·중 무역분쟁은 미국이 지난 7월 6일, 중국산 수입품 818개 품목(철강, 전자제품, 펌프, 알루미늄 등)에 대해 25% 관세 부과 조치를 발효하고, 중국은 보복으로 545개 품목(농수산, 전기 자동차 등)에 관세를 부과하면서 무역분쟁은 시작되었다. 수산부문만 따로 떼어내서 살펴보면, 미국은 1차 관세부과 시 중국산 수산물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지만 중국은 미국산 수산물의 일부에 관세를 부과하며 직접적인 교역 환경에 영향을 미쳤다. 2차로 미국은 8월 23일 추가로 279개 품목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했으며, 중국 역시 333개 품목에 보복을 하였다. 2차 관세 부과 시점 역시 미국은 중국산 수산물 수입과 관련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은 반면, 중국은 어분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였다. 3차(9월 24일)로 넘어오면서 양국 간 무역분쟁은 본격화되었으며 이 때 미국은 총 5,745개 품목에 대해 관세를 부과, 중국은 5,207개 품목에 맞불을 놓으며 교역환경에 큰 격변이 예고되었다. 이때 미국은 처음으로 중국산 수산물 364개 품목에 대해서 10% 수입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은 추가로 16개 수산물에 대해 10%~5% 차등적으로 관세를 부과하였다.
즉, 수산물에 한정해 미·중 무역분쟁 관세 부과 동향을 살펴보면, 중국은 7월(1차)부터 對미 수산물 수입 관세 부과, 미국은 9월 이후(3차) 對중 수산물 수입 관세를 부과한 것이다.

* 본 분기보에서는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는 가정하에 실시한 교역 분석으로, 환율 및 제3국 시장 동향, 기타 수출 영향 요인을 제외하였으므로 해석 시 주의가 요망됨

| 미·중 무역분쟁 단계별 관세 부과 현황 요약 |

단계	미국	중국
1차('18년 7월 6일)	340억 달러 / 818개 품목 / 25% 관세 부과	340억 달러 / 545개 품목 / 25% 관세 부과
2차('18년 8월 23일)	160억 달러 / 279개 품목 / 25% 관세 부과	160억 달러 / 333개 품목 / 25% 관세 부과
3차('18년 9월 24일)	2000억 달러 / 5,745개 품목 / 10% 관세 부과 ('19. 1. 1부터 25% 적용 예정이었으나, 유예)	600억 달러 / 5,207개 품목 / 10%, 5% 품목별 차등 관세 부과

자료 : USTR 및 Ministry of Finance the People's of Republic of Chin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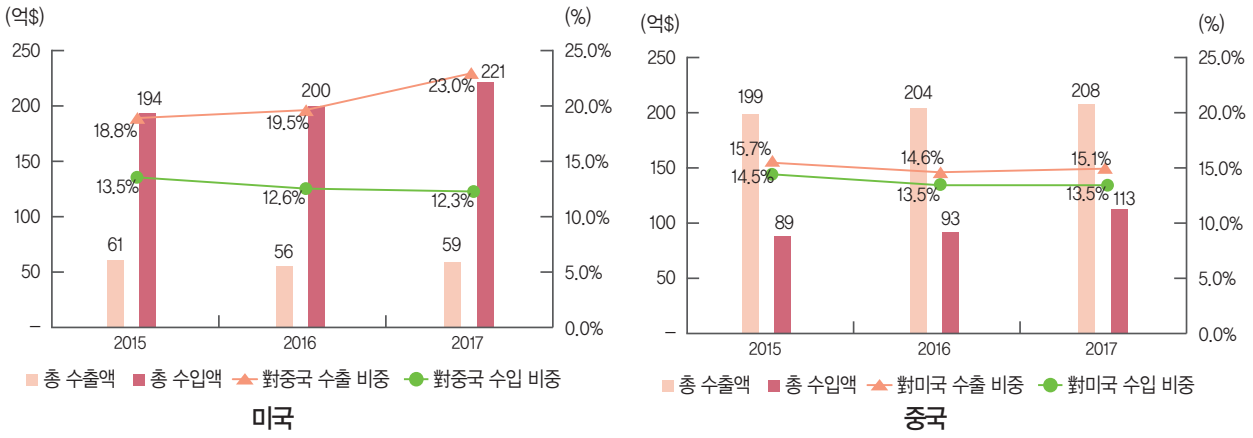
미·중 무역 구조(2015~2017년)

세계 제1위 수산물 수출국 중국, 세계 제1위 수산물 수입국 미국 간의 무역분쟁, 수산물 교역 환경 대격변 예고

– 미국과 중국은 세계 수산물 교역 시장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이다. 참고로 미국은 연평균 200억$가량의 수산물을 수입하는 최대 수산물 수입국이고, 중국은 연평균 200억$가량의 수산물을 수출하는 최대 수산물 수출국이다.

– 양국 간 교역을 살펴보면, 교역 비중이 10%를 넘는 높은 의존성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의존성은 양국 간의 정세변화가 제3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 미국과 중국의 수산물 교역 및 양국 간 비중 변화(2015~2017년) |



자료 : GTA 자료를 저자 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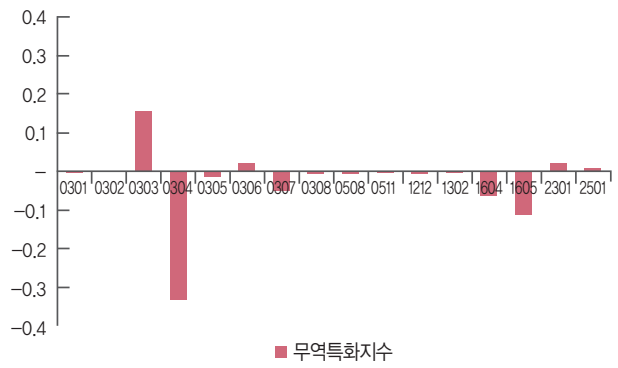
양국 간 수산물 교역, 비교우위에 입각한 뚜렷한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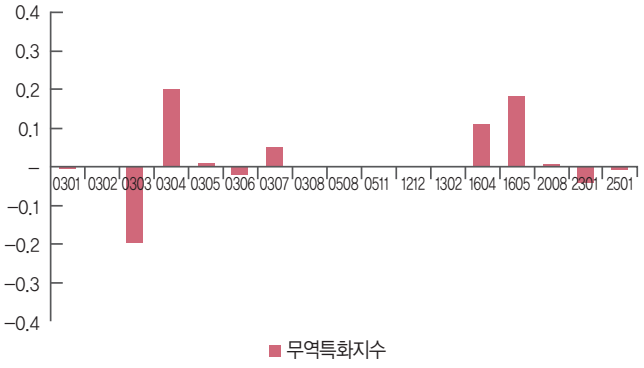
– 미국과 중국은 수산물 전체 교역액에서도 알 수 있듯이 뚜렷한 교역 특징을 지니고 있다. 전반적으로 미국이 수산물 수입 중심형 국가라면, 중국은 수산물 수출 중심형 국가에 해당 된다. 이러한 국가별 특징은 양국 간 교역에서도 적용된다.

– 미·중 수산물 무역특화지수 결과, 미국은 중국과의 교역에 있어 0303류(냉동어류) 수출에 특화된 반면, 0304류(냉동피레트), 1604류(조제보존 어류), 1605류(조제보존 갑각류·연체동물)는 수입에 특화되어 있다. 반면, 중국의 경우 반대로 0304류(냉동피레트), 1604류(조제보존 어류), 1605류(조제보존 갑각류·연체동물) 수출에 특화된 반면, 0303류(냉동어류)는 수입에 특화되어 있다.

– 즉, 미국은 중국과의 교역에 있어서 냉동원물 수출에 특화되어 있는 반면 가공품은 수입에 특화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은 반대로 가공품 수출에 특화되어 있는 반면, 냉동원물은 수입에 특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 미중 對상대국 수산물 무역특화지수(2015~2017년 평균) |





HS CODE	TSI	HS CODE	TSI
0301	0.0	0511	0.0
0302	0.0	212	0.0
0303	0.2	1302	0.0
0304	–0.3	1604	–0.1
0305	0.0	1605	–0.1
0306	0.0	2008	0.0
0307	0.0	2301	0.0
0308	0.0	2501	0.0
0508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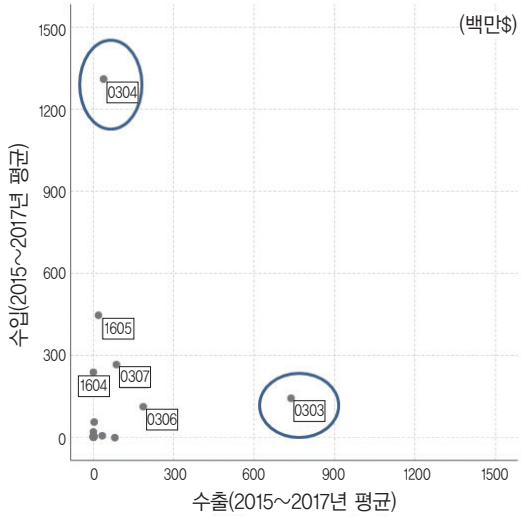
미국의 對중 무역특화지수(TSI)

HS CODE	TSI	HS CODE	TSI
0301	0.0	0511	0.0
0302	0.0	212	0.0
0303	–0.2	1302	0.0
0304	0.2	1604	0.1
0305	0.0	1605	0.2
0306	0.0	2008	0.0
0307	0.1	2301	0.0
0308	0.0	2501	0.0
0508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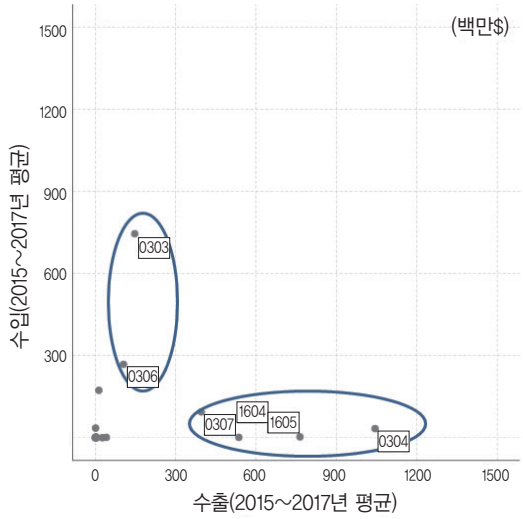
중국의 對미 무역특화지수(TSI)

자료 : GTA 자료를 저자 가공

| 양국 간 수산물 교역 동향(2015~2017년) |



미국 기준



중국 기준

자료 : GTA 자료를 저자 가공

수입 시장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미국은 가공품, 중국은 냉동 원물을 수입

– 수입 시장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연간 27억$가량을 수입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연간 15억$가량의 수산물을 수입하고 있다. 즉,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더 많은 수산물을 수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국 간의 수산물 관세 인상은 표면적으로만 보았을 때, 미국으로 많은 수산물을 수출하고 있는 중국 측에 더 큰 피해를 야기시킬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0304류를 가장 많이 수입하고 있으며, 그다음으로는 1605류, 0307류, 1604류 순으로 수입을 많이하고 있다.

– 반면, 중국은 03류(원물) 수입이 전체 수입액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0303류(냉동 어류)를 가장 많이 수입하고 있다.

| 양국 간 HS CODE 별 수산물 수입 추이(2015~2017년) |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2,630**	**2,524**	**2,723**	**합계**	**1,294**	**1,252**	**1,527**
03	1,902	1,839	1,949	03	1,085	1,026	1,315
(0303)	(137)	(150)	(144)	(0303)	(731)	(645)	(858)
(0304)	(1,407)	(1,246)	(1,277)	(0304)	(26)	(28)	(44)
(0306)	(65)	(106)	(166)	(0306)	(229)	(283)	(292)
(0307)	(226)	(277)	(299)	(0307)	(97)	(65)	(119)
050800	4	3	2	050800	0	0	0
051191	7	7	5	051191	2	4	3
121221	26	16	11	121221	0	0	0
121229	3	3	4	121229	0	0	0
130231	6	4	6	130231	0	0	0
1604	244	221	251	1604	0	1	2
1605	433	426	483	1605	2	4	3
230120	0	0	–	230120	173	184	161
250100	6	5	11	250100	30	32	43
미국의 對중 수입액				**중국의 對미 수입액**			

자료 : GTA 자료를 저자 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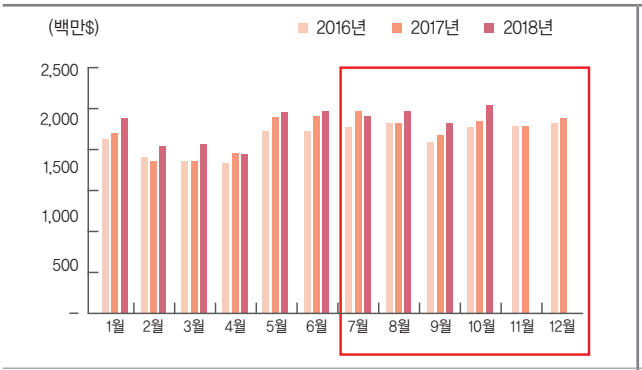
미·중 對세계 수입 동향(2018년)

2018년 세계 경기 회복세 및 건강식에 대한 수산물 수요 증대로 양국의 對세계 수산물 수입은 증가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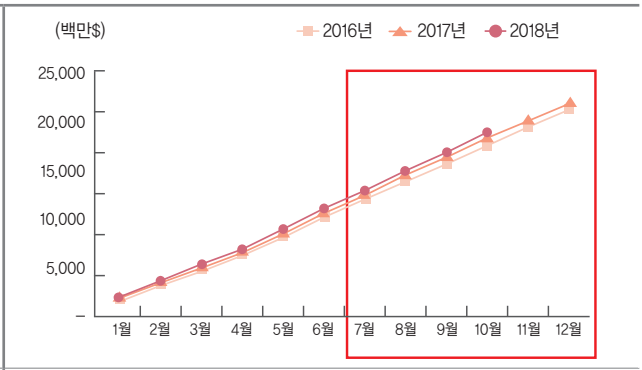
– 2018년 미국과 중국의 對세계 수산물 수입액은 경기 호조 및 건강식에 대한 수산물 수요 증대 등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세계 최대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중국에서의 중산층 증대 및 수입산 수산물에 대한 수요 증대로 높은 수산물 수입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다.

– 무역분쟁 기간인 2018년 7월~10월 간[1]에도 양국의 對세계 수산물 수입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경우 2018년 7월 전년대비 수산물 수입액이 감소하기도 했으나 8월~10월 간 증가했으며, 중국의 경우 어떠한 영향 없이 매우 크게 수산물 수입액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 미국의 對세계 수산물 수입 동향(2018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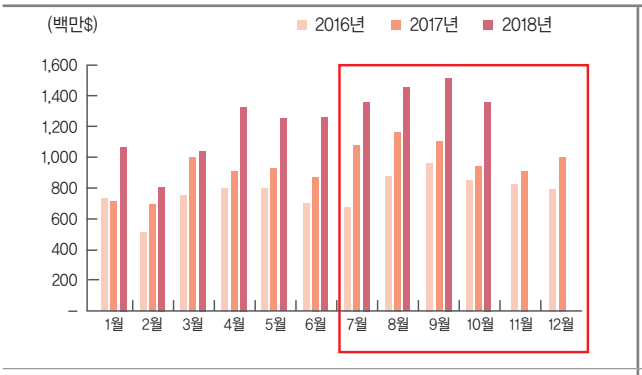
미국의 對세계 월별 수산물 수입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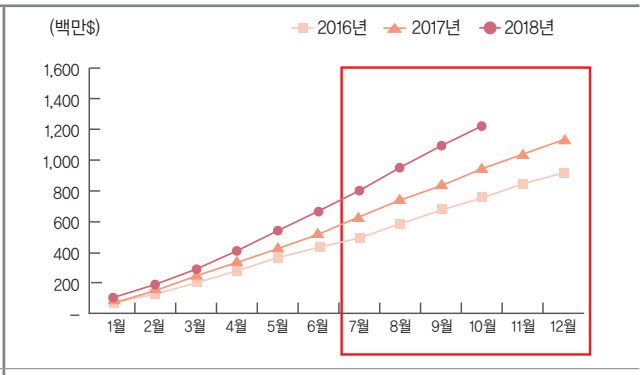
미국의 對세계 월별 누적 수산물 수입 동향

자료 : GTA 자료를 저자 가공

| 중국의 對세계 수산물 수입 동향(2018년) |



중국의 對세계 월별 수산물 수입 동향



중국의 對세계 월별 누적 수산물 수입 동향

자료 : GTA 자료를 저자 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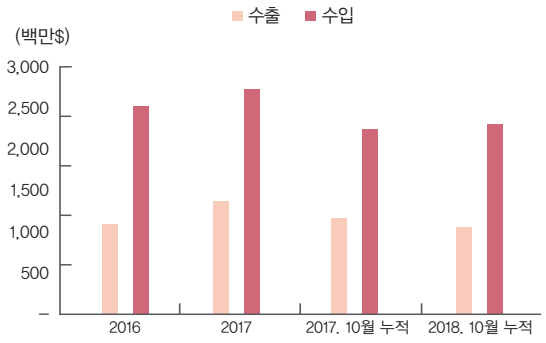
1) 분석대상시점의 최신 교역자료가 2018년 10월까지임

2018년 미국의 對중국 교역 동향

2018년 10월 누적 미국의 對중 수산물 수출 감소, 수입은 증가

– 중국이 對세계 수산물 수입을 늘리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對중 수산물 수출은 10억$로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국의 對중 수산물 수입은 23억$로 전년 대비 증가하였다.

| 미국의 對중 수산물 수입 동향(2018년) |



구분	2016년	2017년	2017년 10월 누적	2018년 10월 누적
수출	1,089	1,366	1,164	1,042
수입	2,524	2,723	2,247	2,294
무역수지	–1,435	–1,357	–1,083	–1,2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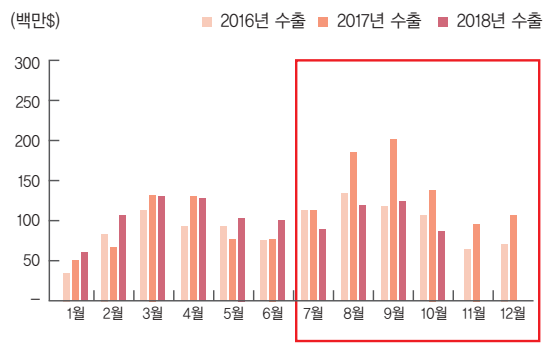
자료 : GTA 자료를 저자 가공

미·중 무역분쟁 기간(2018년 7월~10월), 미국의 對중 수출 크게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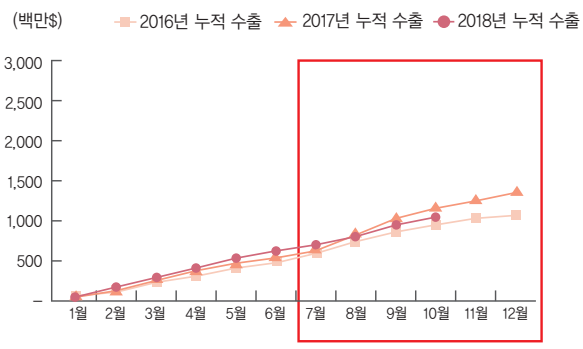
– 미국의 對중 수산물 수출은 2018년 6월까지 호조세를 보였다. 그러나 중국이 미국 수산물에 관세를 부과한 시점(2018년 7월) 이후 미국의 對중 수산물 수출은 크게 감소 추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미국은 중국으로 원물 중심의 수출구조를 보이고 있는 만큼, 관세부과로 인한 가격변동이 미국산 수산물 수출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 미국의 對중 월별 수산물 교역 동향 |



미국의 對중 월별 수산물 수출 추이



미국의 對중 월별 누적 수산물 수출 추이

자료 : GTA 자료를 저자 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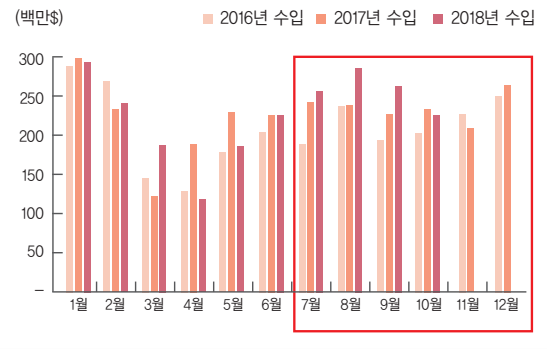
미·중 무역분쟁 기간(2018년 7월~10월), 미국의 對중 수입은 증가

– 미국의 對중 수산물 수출은 감소한 반면, 미국의 對중 수산물 수입은 7월에서 9월까지 크게 증가한 이후, 10월 이후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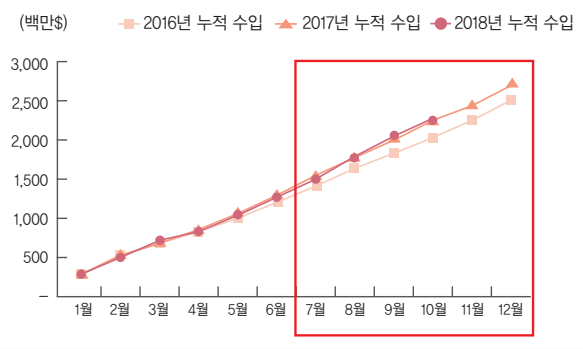
– 이는 미국이 중국 수산물에 관세를 부과한 시점이 중국보다 늦은 10월부터 적용되면서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즉, 중국산 수산물에 대한 관세부과를 우려한 미국 업계에서의 수입수요가 일시적(7월~9월) 늘었다가 10월에 관세가 일부 부과되면서 수입이 감소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또한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가공품 위주의 수산물을 수입하고 있는 만큼, 상대적으로 가격변동에 의한 수입 영향이 중국(원물 수입)에 비해선 적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 미국의 對중 월별 수산물 교역 동향 |



미국의 對중 월별 수산물 수입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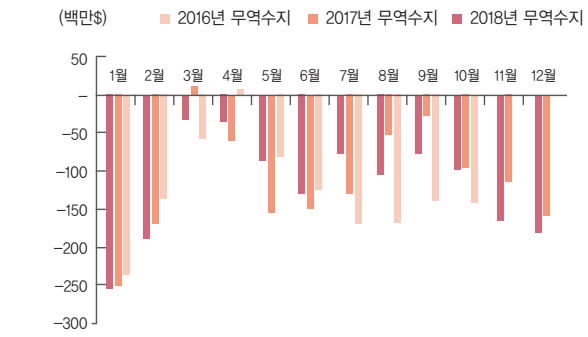
미국의 對중 월별 누적 수산물 수입 추이

자료 : GTA 자료를 저자 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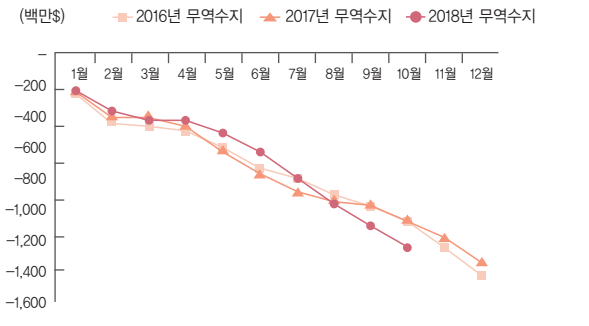
미·중 무역분쟁 기간(2018년 7월~10월), 미국의 對중 무역수지 적자기조 강화

– 관세 부과 시점(10월) 및 양국 간의 취급 품목 간의 차이(원물 vs 가공품)로 인해 미국은 미·중 무역분쟁 이후 오히려 무역수지 적자기조가 더 강화된 양상을 보였다.

| 미국의 對중 월별 수산물 무역수지 동향 |



미국의 對중 월별 수산물 무역수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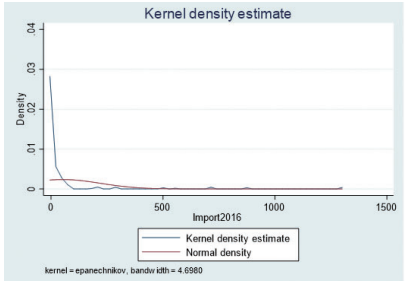
미국의 對중 월별 누적 수산물 무역수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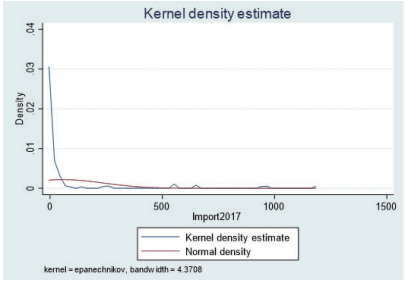
자료 : GTA 자료를 저자 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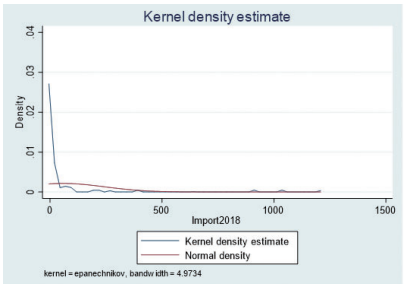
미·중 무역분쟁 기간(2018년 7월~10월), 미국의 對세계 수입, 수입국 다변화 도모

– 미·중 무역분쟁은 미국과 중국으로 하여금 수입선 다변화를 꾀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어 우선 미국의 對세계 수산물 수입 커널밀도함수를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2016년에서 2018년간 표준편차는 일부 증가했지만, 그 정도가 작고, 수입국가 역시 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미국의 對세계 수산물 수입 커널밀도함수 추정 결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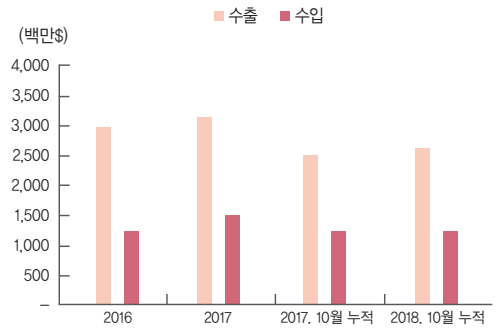
2016년		2017년		2018년	
수입국	143	수입국	136	수입국	139
평균(백만$)	52.01	평균(백만$)	56.86	평균(백만$)	58.01
표준편차	**167.97**	**표준편차**	**182.19**	**표준편차**	**185.42**
왜도	4.85	왜도	4.32	왜도	4.39
첨도	29.24	첨도	22.02	첨도	22.59

2018년 중국의 對미국 교역 동향

2018년 10월 누적 중국의 對미 수산물 수출 증가, 수입은 보합

– 미국이 對세계 수산물 수입을 늘리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對미 수산물 수출은 26억$로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국의 對미 수산물 수입은 對세계 수산물 수입을 크게 늘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은 보합세를 기록하였다.[2)]

| 중국의 對미 수산물 수입 동향(2018년) |



자료 : GTA 자료를 저자 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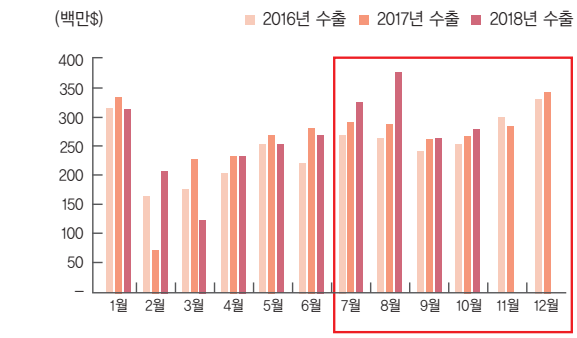
구분	2016년	2017년	2017년 10월 누적	2018년 10월 누적
수출	2,982	3,145	2,519	2,636
수입	1,252	1,527	1,244	1,254
무역수지	1,730	1,618	1,275	1,383

미·중 무역분쟁 기간(2018년 7월~10월), 중국의 對미 수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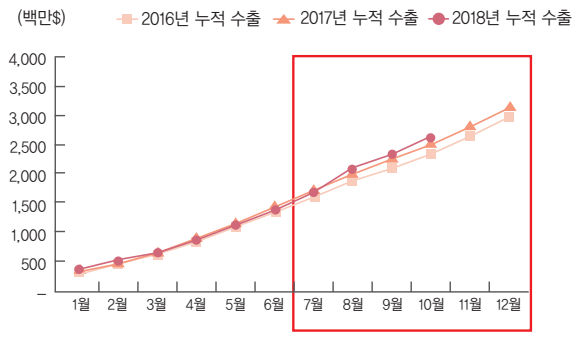
– 중국의 對미 수산물 수출은 미·중 무역분쟁 기간인 2018년 7월~8월, 더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이 중국산 수산물에 대한 관세 부과를 10월부터 하게 되면서 나타난 결과로, 관세 부과 시점 이전까지 미국이 상당량의 수산물을 중국으로부터 사전에 수입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집계 국가에 따라 교역액에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중국의 對미 월별 수산물 교역 동향 |



중국의 對미 월별 수산물 수출 추이



중국의 對미 월별 누적 수산물 수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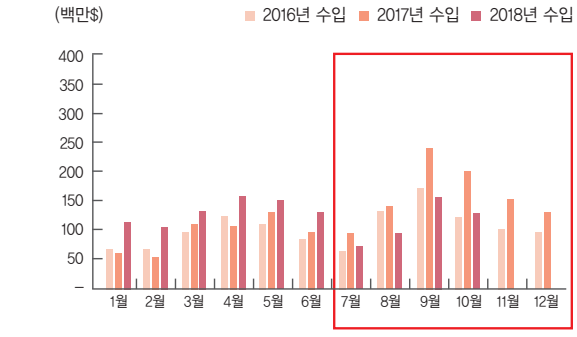
자료 : GTA 자료를 저자 가공

미·중 무역분쟁 기간(2018년 7월~10월), 중국의 對미 수입은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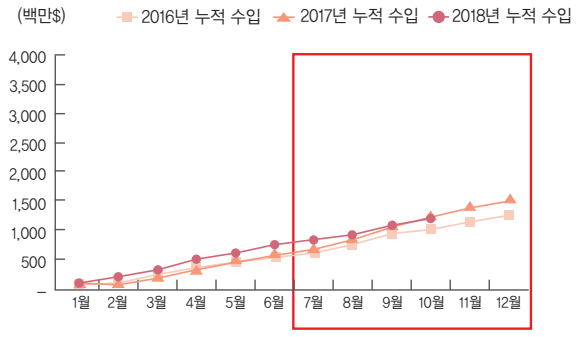
– 중국의 對미 수산물 수입은 7월에서 10월까지 전년 대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는 중국은 미국산 수산물에 대한 관세를 7월부터 부과했기 때문이며 상대적으로 미국에 비해 높은 관세를 부과(25%) 그리고 원물을 중심으로 수입하고 있어 가격에 상대적으로 민감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 반면 해당 기간 중국은 對ASEAN 수산물 수입 비중을 10.9%(2016~2017년 평균)에서 12.9%(2018년)로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 중국의 對미 월별 수산물 교역 동향 |



중국의 對미 월별 수산물 수입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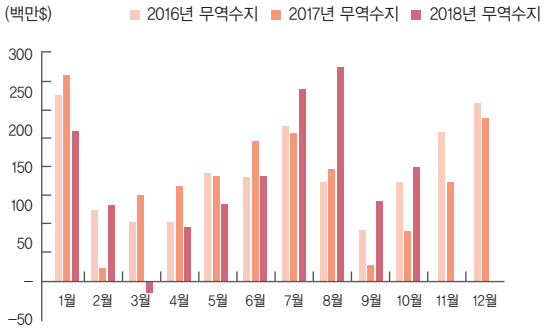
중국의 對미 월별 누적 수산물 수입 추이

자료 : GTA 자료를 저자 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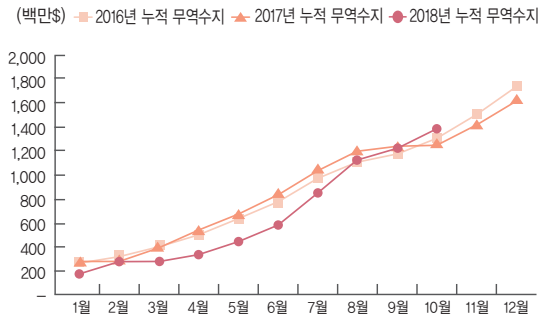
미·중 무역분쟁 기간(2018년 7월~10월), 중국의 對미 무역수지 흑자기조 전환

– 미국에 비해 중국은 오히려 무역분쟁 기간 동안 무역수지가 전년 대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對미 수출은 증가한 가운데, 수입은 크게 감소하면서 무역수지가 개선된 것이다.

| 중국의 對미 월별 수산물 무역수지 동향 |



중국의 對미 월별 수산물 무역수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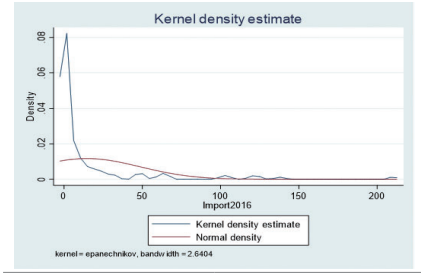
중국의 對미 월별 누적 수산물 무역수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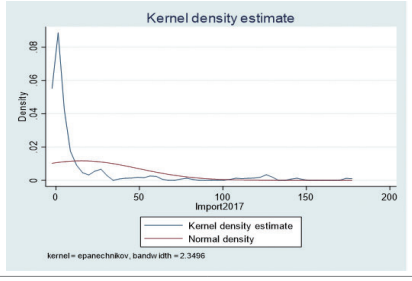
자료 : GTA 자료를 저자 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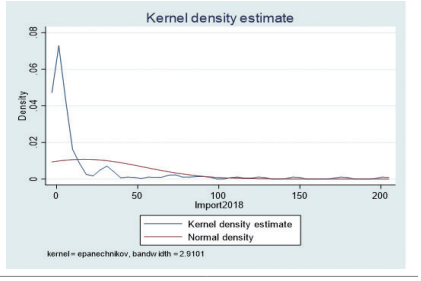
미·중 무역분쟁 기간(2018년 7월~10월), 중국의 對세계 수입, 수입국 다변화 도모

– 중국은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해 미국에서 수입하던 수산물을 타국으로 전환하는 등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2018년간 수입국은 102개국에서 107개국으로 늘었으며 동시에 표준편차 역시 86.8에서 142.8로 증가하여 수입국 다변화를 도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중국의 對세계 수산물 수입 커널밀도함수 추정 결과 |







2016년		2017년		2018년	
수입국	102	수입국	105	수입국	107
평균(백만$)	33.00	평균(백만$)	40.70	평균(백만$)	53.11
표준편차	**86.82**	**표준편차**	**114.67**	**표준편차**	**142.83**
왜도	4.29	왜도	4.51	왜도	4.40
첨도	23.16	첨도	24.22	첨도	24.80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중국이 미국에 비해 더 민감한 교역 변화를 보이고 있는 상황

– 미·중 무역분쟁은 미국이 먼저 시작하고 중국이 이에 대응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양국 간 수산물 교역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었다. 현재까지의 결과를 살펴보면 양국 모두에게 미·중 무역분쟁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중국이 보다 탄력적인 대응을 하면서 미국산 수산물 수입을 크게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원물 수입을 크게 감소시켰으므로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미국이 중국으로 수출하던 품목 중 對중 수출이 감소한 품목을 중심으로 중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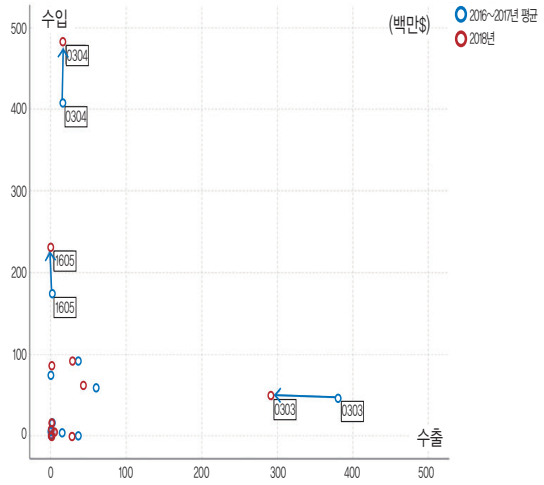
분쟁 이후 미국의 對중국 교역 동향

미국의 對중 수산물 수출 0303류 감소, 對중 수산물 수입 0304류, 1604류 증가

– 세부 부류별로 살펴보면, 미국의 對중 주요 수출감소 부류에는 0303류, 0306류, 0307류, 2301류, 2501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수입감소 부류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미국의 對중 수산물 교역 변화(7월~10월 기준) |

(단위 : 백만$)



구분	2016년~2017년 평균		2018년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전체	552	885	417	1,037
0301	1	1	1	1
0302	1	0	0	0
0303	381	46	292	49
0304	16	408	16	483
0305	2	16	1	16
0306	60	59	43	62
0307	36	92	29	92
0308	1	1	0	1
0508	0	1	0	1
0511	1	2	1	1
1212	0	5	0	8
1302	0	2	0	2
1604	0	74	1	86
1605	2	174	0	231
2008	0	0	0	0
2301	36	0	28	0
2501	15	4	4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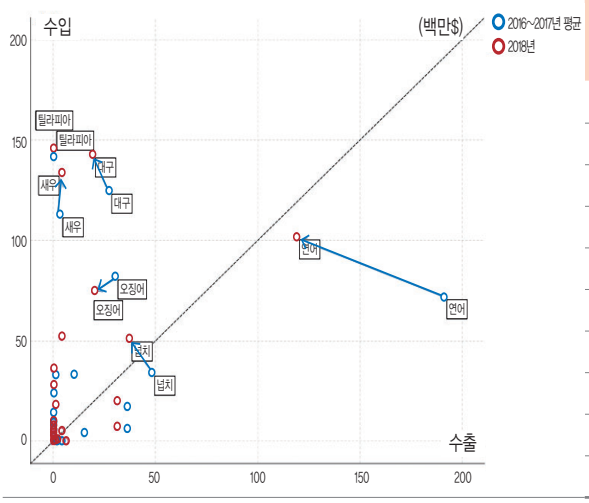
자료 : GTA 자료를 저자 가공

미국의 對중 연어·바닷가재·광어 수출 감소, 오징어·참치 수입 감소

– 미국의 對중 수산물 수출이 크게 감소한 가운데, 감소 품목으로는 연어·바닷가재·광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주력 수출품목인 알래스카산 연어, 메인 주의 바닷가재는 중국시장에서 칠레산 연어, 캐나다산 바닷가재로 대체 되었다.
반면, 미국의 對중 수산물 수입 감소 품목으로는 오징어·참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미국의 對중 수산물 교역 변화(7월~10월 기준) |

(단위 : 백만$)



구분	2016년~2017년 평균		2018년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전체	**552**	**885**	**417**	**1,037**
연어	191	72	119	102
광어	48	34	37	51
바닷가재	49	0	34	1
명태	36	17	31	20
문어	36	6	31	7
오징어	30	82	20	75
대구	27	125	19	143
서대	4	0	6	0
기타	131	549	120	638

자료 : GTA 자료를 저자 가공

[주요 수출 감소 품목] – 연어, 바닷가재, 소금, 광어, 오징어 순

| 미국의 對중 수산물 수출 감소 품목(7월~10월 기준) |

(단위 : 백만$, %)

구분		2016~2017년 평균	2018년	증감액	증감률
합계		**552**	**417**	**–135**	**–24.5%**
1	연어	191	119	–72	–37.7%
2	바닷가재	49	34	–15	–30.6%
3	소금	15	4	–11	–73.3%
4	**광어**	**48**	**37**	**–11**	**–22.9%**
5	**오징어**	**30**	**20**	**–10**	**–33.3%**
6	대구	27	19	–8	–29.6%
7	게	10	4	–6	–60.0%
8	문어	36	31	–5	–13.9%
9	명태	36	31	–5	–13.9%
10	**참치**	**1**	**0**	**–1**	**–100.0%**

[주요 수입 감소 품목] – 오징어, 참치, 민대구, 메기, 해파리 순

| 미국의 對중 수산물 수입 감소 품목(7월~10월 기준) |

(단위 : 백만$, %)

구분		2016~2017년 평균	2018년	증감액	증감률
합계		885	1,037	152	17.2%
1	**오징어**	82	75	–7	–8.5%
2	**참치**	33	28	–5	–15.2%
3	민대구	1	0	–1	–100.0%
4	메기	9	8	–1	–11.1%
5	해파리	2	1	–1	–50.0%
6	멸치	0	0	0	–
7	해삼	0	0	0	–
8	검정대구	1	1	0	–
9	고둥	0	0	0	–
10	굴	10	10	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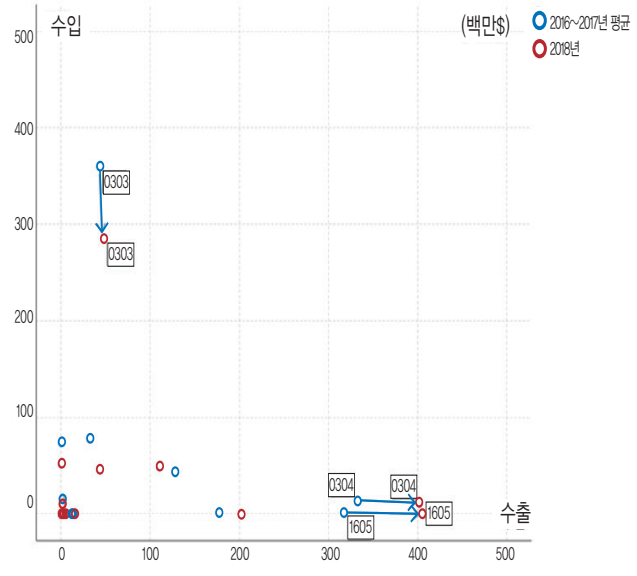
분쟁 이후 중국의 對미국 교역 동향

중국의 對미 수산물 수출 0307류 감소, 對미 수산물 수입 0303류, 0306류, 2301류, 2501류 감소

– 세부 부류별로 살펴보면, 중국의 對미 주요 수출감소 부류에는 0307류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수입감소 부류에는 0303류, 0306류, 2301류, 2501류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중국의 對미 수산물 교역 변화(7월~10월 기준) |

(단위 : 백만$)



구분	2016년~2017년 평균		2018년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전체	1,064	585	1,241	455
0301	0	0	0	0
0302	0	0	0	0
0303	43	360	48	285
0304	333	13	402	11
0305	14	0	15	0
0306	32	78	43	46
0307	128	43	110	49
0308	2	0	2	0
0508	0	0	0	0
0511	1	0	1	0
1212	1	0	5	0
1302	2	0	1	0
1604	177	1	202	0
1605	318	1	406	0
2008	12	0	4	0
2301	0	74	0	52
2501	1	15	1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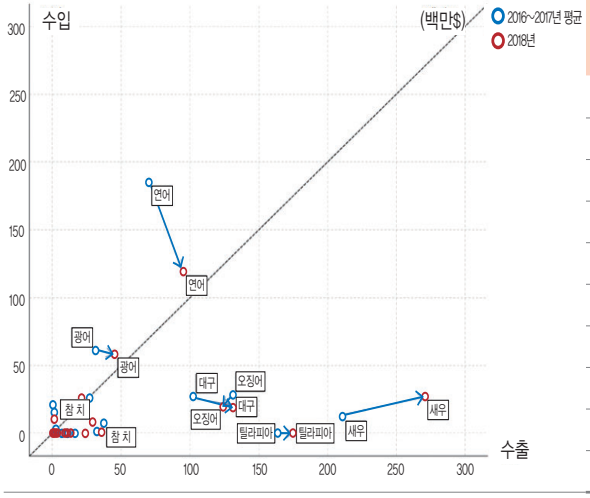
자료 : GTA 자료를 저자 가공

중국의 對미 참치·김·오징어 수출 감소, 연어·바닷가재 수입 감소

– 품목별로 살펴보면 미·중 무역분쟁 기간 동안 중국의 對미 수출 감소 품목에는 참치·김·오징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중국의 對미 수입 감소 품목에는 연어·바닷가재 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중국의 對미 수산물 교역 변화(7월~10월 기준) |

(단위 : 백만$)



구분	2016년~2017년 평균		2018년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전체	1,064	585	1,241	455
연어	70	185	95	119
광어	31	61	45	58
새우	211	12	271	27
명태	27	26	21	26
오징어	131	28	124	20
대구	102	27	131	19
바닷가재	0	44	2	13
소금	1	15	1	10
기타	491	187	551	163

자료 : GTA 자료를 저자 가공

[주요 수출 감소 품목] – 참치, 김, 오징어, 명태, 메기 순

| 중국의 對미 수산물 수출 감소 품목(7월~10월 기준) |

(단위 : 백만$, %)

구분		2016~2017년 평균	2018년	증감액	증감률
합계		1,064	1,241	177	30.3%
1	참치	37	29	–9	–23.4%
2	김	12	4	–9	–70.3%
3	오징어	131	124	–7	–5.5%
4	명태	27	21	–6	–21.4%
5	메기	6	3	–3	–47.8%
6	한천	2	1	0	–7.7%
7	검정대구	0	0	0	–99.9%
8	성게	0	0	0	–15.4%
9	멸치	0	0	0	–29.5%
10	소금	1	1	0	0.3%

[주요 수입 감소 품목] – 연어, 바닷가재, 어분, 대구, 오징어 순

| 중국의 對미 수산물 수입 감소 품목(7월~10월 기준) |

(단위 : 백만$, %)

구분		2016~2017년 평균	2018년	증감액	증감률
합계		585	455	–130	–22.2%
1	연어	185	119	–66	–35.9%
2	바닷가재	45	13	–31	–70.0%
3	어분	74	52	–23	–30.8%
4	대구	27	19	–8	–28.3%
5	오징어	28	20	–7	–26.7%
6	게	12	6	–6	–50.9%
7	소금	15	10	–5	–33.5%
8	광어	61	58	–3	–5.3%
9	민대구	3	1	–2	–77.4%
10	해삼	1	0	–1	–7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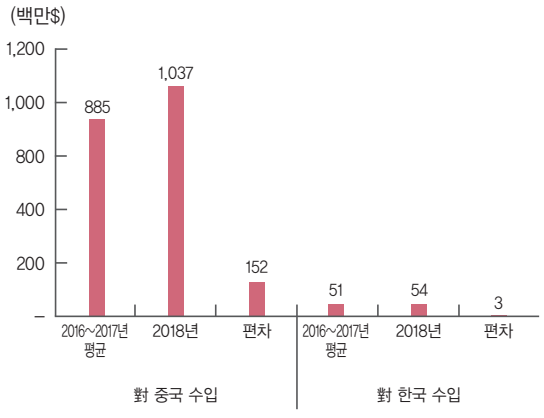
미·중 무역분쟁과 한국산 수산물 수출 변화(2018년 7월~10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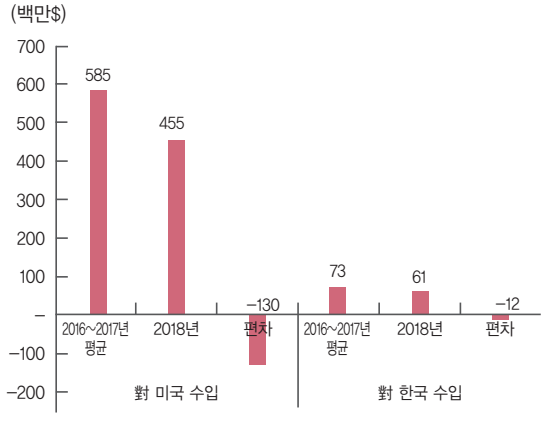
미·중 무역분쟁 기간, 미국의 對한국 수입은 증가, 중국의 對한국 수입은 감소

– 미·중 무역분쟁은 우리나라로 하여금 미국과 중국 양 국가로의 수출을 증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특히 앞서 미국과 중국 간의 교역 동향을 살펴보았을 때, 우리나라는 중국시장으로의 원물 수출 증대 기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 그러나 실제 교역 동향을 살펴보면, 미국과 중국 모두 對세계 수산물 수입을 증가시키고 있는 것에 비해 對한 수산물 수입은 크게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중국의 對한 수산물 수입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부분은 미국과 중국의 양국 간 교역 품목이 우리 수출 품목과 대체 관계가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대체 관계에 있는 품목이라고 하더라도 미국과 중국은 해당 품목을 우리나라보다는 타국으로부터 수입을 늘렸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 미·중 對상대국, 對한 수산물 수입(7월~10월 기준) |





2016~2017년 평균	2018년	편차	2016~2017년 평균	2018년	편차	2016~2017년 평균	2018년	편차	2016~2017년 평균	2018년	편차
885	1,037	152	51	54	3	585	455	–130	73	61	–12
對중 수산물 수입			對한 수산물 수입			對미 수산물 수입			對한 수산물 수입		
미국 시장						중국 시장					

자료 : GTA 자료를 저자 가공

미·중 무역분쟁과 한국산 수산물 수출 변화 - 미국 기준

미국의 對중 수입 감소 품목이자 미국의 對한국 수입 증가 주요품목은 참치, 어육연제품, 게살 등

–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을 선정하였다. 이 때 예상되는 품목은 미·중 무역분쟁 기간 동안 對중 수입 감소 수산물이자 對한 수입 증가 수산물이다. 즉, 대체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 분석 기간, 미국의 對중 수입 감소 품목이자 미국의 對한 수입 증가 품목은 참치, 어육연제품, 게살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對중 참치 피레트(냉동) 수입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對한 참치 피레트(냉동) 수입은 크게 늘린 것으로 조사되었다.

| 미국의 對중 수산물 수입 감소, 對한 수산물 수입 증가 품목(7월~10월 기준) |

(단위 : 천$)

구분			對중 수입			對한 수입		
			2016~2017년 평균	2018년	편차	2016~2017년 평균	2018년	편차
합계			885,141	1,037,047	151,906	50,926	54,221	3,295
1	참치	피레트(냉동)	4,170	2,098	–2,072	2,303	3,285	981
2	참치	날개참치(냉동)	95	89	–7	308	597	288
3	오징어	조제보존	6,004	5,952	–52	671	883	213
4	어류제품	어류 완자(밀폐용기)	163	117	–46	306	473	167
5	고등어	냉동	120	69	–51	215	378	163
6	기타어류	조제품	27	23	–4	124	267	143
7	참치	피레트(신선냉장)	849	0	–849	184	318	134
8	어류제품	어류 완자 (밀폐용기 제외)	495	353	–142	376	503	127
9	대게	조제처리 대게 어육(냉동)	458	260	–198	0	110	110
10	굴	훈제	7,268	6,429	–839	1,127	1,225	98
11	조개	조제보존	77	74	–3	1	80	79
12	고등어	피레트	67	10	–56	16	71	55
13	서대	냉동	38	0	–38	11	52	41
14	기타해초류	기타해조류	1,322	1,120	–202	107	140	33
15	성게	활신냉	17	0	–17	0	18	18
16	조개	밀폐용기	2,955	1,930	–1,025	1	19	18
17	새우	조제보존(밀폐용기 제외)	367	197	–170	7	21	15
18	어류제품	조제보존(조리된 냉동)	2,576	1,631	–945	805	813	8
19	해파리	해파리	513	425	–88	6	12	6
20	참치	날개참치(기름제외)	104	0	–104	5	9	4

미·중 무역분쟁과 한국산 수산물 수출 변화 - 중국 기준

미·중 무역분쟁 기간(2018년 7월~10월), 중국의 對미 수입 감소 품목이자 중국의 對한 수입 증가 품목은 참치, 해삼류, 연육류, 가자미류 등

– 동일 방법으로 미·중 무역분쟁 기간 동안 對미 수입 감소 수산물이자 對한 수입 증가 수산물을 살펴본 결과 참치, 해삼류, 연육류, 가자미류 등으로 나타났다. 미국시장과 유사하게 중국 역시 한국산 참치 수입을 늘린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해삼 수입을 크게 늘린 것이 특징적이다.

| 중국의 對미 수산물 수입 감소, 對한 수산물 수입 증가 품목(7월~10월 기준) |

(단위 : 천$)

구분			對미 수입			對한 수입		
			2016~2017년 평균	2018년	편차	2016~2017년 평균	2018년	편차
합계			585,338	455,439	-129,899	72,866	61,162	-11,704
1	참치	조제보존	22	0	-22	469	1,424	955
2	해삼	냉동, 건조, 염장, 훈제	364	40	-323	1	603	603
3	해삼	조제보존	724	197	-527	355	950	595
4	기타어류	기타어류어육(냉동)	1,849	1,212	-637	402	762	359
5	굴	활신냉	197	167	-30	203	428	225
6	가오리와홍어	가오리, 홍어(냉동)	20	1	-19	0	171	171
7	광어	광어(냉동)	58,242	55,580	-2,663	187	317	130
8	참치	황참치(냉동)	1,697	1,577	-120	367	485	117
9	굴	조제보존	1	0	-1	18	93	74
10	달팽이	달팽이(바다달팽이 제외)	243	132	-111	74	134	59
11	참치	눈참치(냉동)	149	37	-112	45	87	42
12	기타어류	기타어류피레트(건조, 염장)	7	0	-7	0	7	7
13	정어리	조제보존	2	0	-2	0	0	0
14	대구	냉동	520	504	-16	0	0	0

한국의 對미·중 수출 주요국과의 경합 관계 - 미국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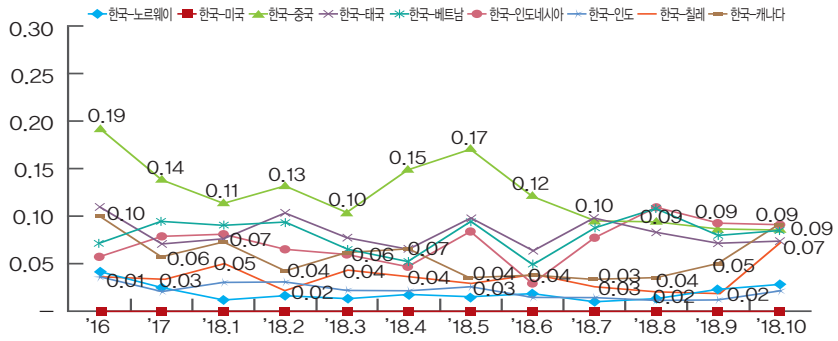
미·중 무역분쟁 기간(2018년 7월~10월), 한국의 對미 주요 수출 경합국은 ASEAN

– 수출경합도분석(ESI)[3]을 통해 미국시장에서 우리나라와 높은 수출 경합 관계에 있는 국가를 살펴보았다. 미국시장에서 우리나라와 가장 높은 경합 관계를 보이는 국가는 중국으로 2016년~2018년 상반기까지 가장 높은 경합도를 기록하였다. 그다음은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순으로 ASEAN 국가가 중국 다음으로 우리나라와 미국시장에서 높은 경합 관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러나 미·중 무역분쟁 기간인 2018년 하반기부터는 미국시장에서 중국과 우리나라 간의 수출경합도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난 반면,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의 ASEAN 국가와 경합도는 높아져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對미 수출경합국으로 ASEAN 국가가 부상했음을 알 수 있다.

– 품목별로 살펴보면 미·중 무역분쟁 전후(상반기, 하반기)로 중국과 높은 경합관계를 보였던 0303890080(기타 냉동 어류), 0307430050(냉동 오징어) 품목의 경합 관계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중 무역분쟁 기간(하반기) 우리나라와 가장 높은 경합도를 보이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경우 0304870000(참치 피레트) 수출에 있어 우리나라와 경합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 對미 주요 국가별/월별 수출경합도분석 결과(ESI)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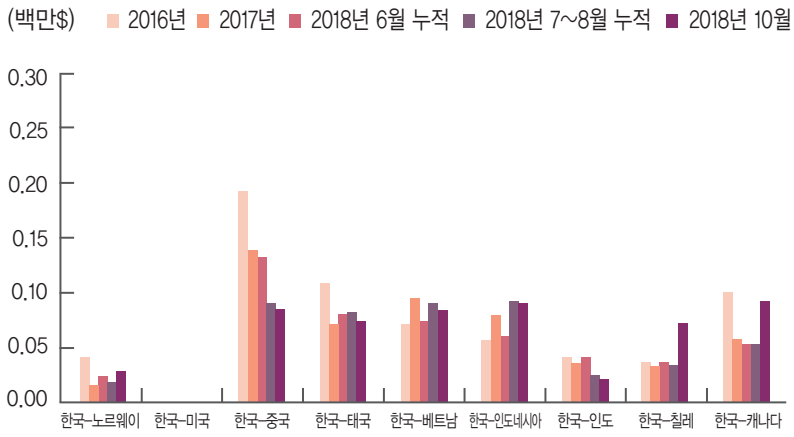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한국–노르웨이	0.04	0.02	0.01	0.02	0.01	0.02	0.01	0.02	0.01	**0.01**
한국–미국	–	–	–	–	–	–	–	–	–	**–**
한국–중국	0.19	0.14	0.11	0.13	0.10	0.15	0.17	0.12	0.10	**0.09**
한국–태국	0.11	0.07	0.08	0.10	0.08	0.07	0.10	0.06	0.10	**0.08**
한국–베트남	0.07	0.09	0.09	0.09	0.07	0.05	0.09	0.05	0.09	**0.11**
한국–인도네시아	0.06	0.08	0.08	0.07	0.06	0.05	0.08	0.03	0.08	**0.11**
한국–인도	0.04	0.02	0.03	0.03	0.02	0.02	0.03	0.02	0.01	**0.01**
한국–칠레	0.04	0.03	0.05	0.02	0.04	0.04	0.03	0.04	0.03	**0.02**
한국–캐나다	0.10	0.06	0.07	0.04	0.06	0.07	0.04	0.04	0.03	**0.04**

자료 : GTA 자료를 저자 가공

3) 수산물 HS Code 10단위 전체 품목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함

| 對미 주요 국가별/시점별 수출경합도분석 결과(ESI)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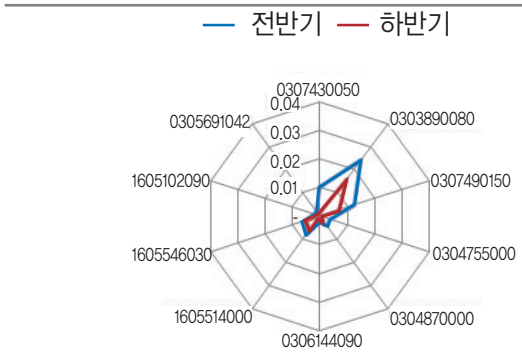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상반기	2018년 하반기	2018년 10월	2016년 경합순위	2017년 경합순위	2018년 상반기 경합순위	2018년 하반기 경합순위	2018년 10월 경합순위
한국-노르웨이	0.04	0.02	0.02	0.02	0.03	6	7	8	7	7
한국-미국	–	–	–	–	–	–	–	–	–	–
한국-중국	0.19	0.14	0.13	0.09	0.09	1	1	1	2	3
한국-태국	0.11	0.07	0.08	0.08	0.07	2	4	2	4	5
한국-베트남	0.07	0.09	0.07	0.09	0.08	4	2	3	3	4
한국-인도네시아	0.06	0.08	0.06	0.09	0.09	5	3	4	1	2
한국-인도	0.04	0.02	0.02	0.02	0.02	8	8	7	8	8
한국-칠레	0.04	0.03	0.04	0.03	0.07	7	6	6	6	6
한국-캐나다	0.10	0.06	0.05	0.05	0.09	3	5	5	5	1

자료 : GTA 자료를 저자 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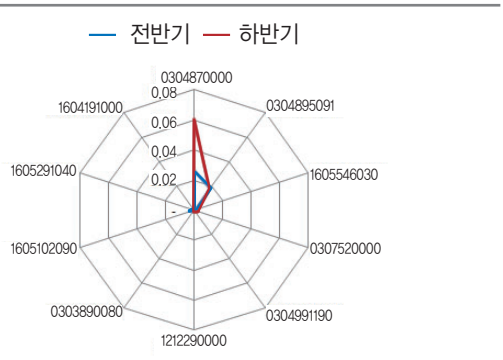
한국과 중국 간 경합 감소 품목, 0303890080(기타 냉동 어류), 0307430050(냉동 오징어)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경합 증가 품목, 0304870000(참치 피레트)

| 2018년 주요 수출 경합 품목 변화 |



對중



對인도네시아

자료 : GTA 자료를 저자 가공

한국의 對미·중 수출 주요국과의 경합 관계 - 중국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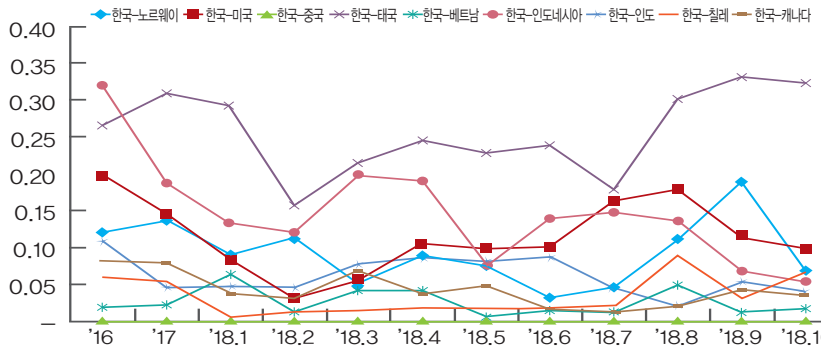
미·중 무역분쟁 기간(2018년 7월~10월), 한국의 對중 주요 수출 경합국은 태국

– 수출경합도분석(ESI)을 통해 중국시장에서 우리나라와 높은 수출 경합 관계에 있는 국가를 살펴보았다. 2016년~2018년 상반기까지 중국시장에서 우리나라와 높은 경합 관계를 보이는 국가에는 태국, 인도네시아, 미국, 노르웨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미·중 무역분쟁 기간인 2018년 하반기부터는 중국시장에서 우리나라와 태국과의 수출 경합 관계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89931(조미김) 수출에 있어 양국 간 경쟁관계가 심화되면서 나타난 결과로 풀이된다.

– 한편, 미국과 경합 관계가 낮아진 품목으로는 03074310(냉동 오징어), 25010020(소금)로 나타났는데, 이는 사실 2018년 우리나라의 오징어 생산 감소에 따른 수출 경쟁력 약화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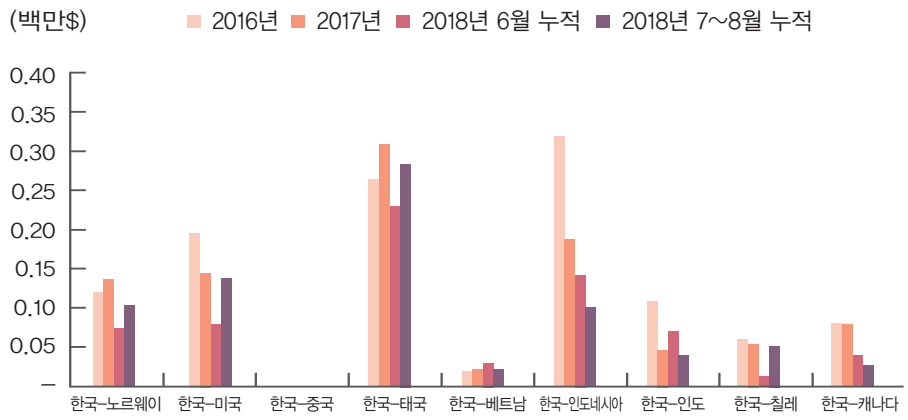
| 對중 주요 국가별/월별 수출경합도분석 결과(ESI) |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한국–노르웨이	0.09	0.11	0.05	0.09	0.08	0.03	0.05	0.11	0.19	0.07
한국–미국	0.08	0.03	0.06	0.11	0.10	0.10	0.16	0.18	0.11	0.10
한국–중국	–	–	–	–	–	–	–	–	–	–
한국–태국	0.29	0.16	0.21	0.25	0.23	0.24	0.18	0.30	0.33	0.32
한국–베트남	0.06	0.01	0.04	0.04	0.01	0.02	0.01	0.05	0.01	0.02
한국–인도네시아	0.13	0.12	0.20	0.19	0.07	0.14	0.15	0.14	0.07	0.05
한국–인도	0.05	0.05	0.08	0.09	0.08	0.09	0.04	0.02	0.05	0.04
한국–칠레	0.00	0.01	0.01	0.02	0.02	0.02	0.02	0.09	0.03	0.07
한국–캐나다	0.04	0.03	0.07	0.04	0.05	0.01	0.01	0.02	0.04	0.04

자료 : GTA 자료를 저자 가공

| 對중 주요 국가별/시점별 수출경합도분석 결과(ESI)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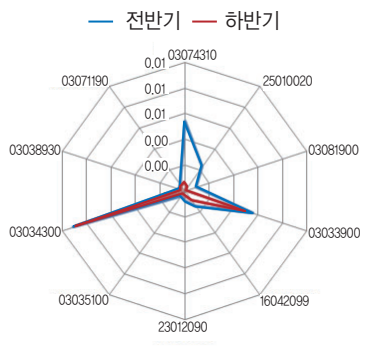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상반기	2018년 하반기	2018년 10월	2016년 경합순위	2017년 경합순위	2018년 상반기 경합순위	2018년 하반기 경합순위	2018년 10월 경합순위
한국–노르웨이	0.12	0.14	0.07	0.10	0.07	4	4	4	3	3
한국–미국	0.20	0.14	0.08	0.14	0.10	3	3	3	2	2
한국–중국	–	–	–	–	–	–	–	–	–	–
한국–태국	0.26	0.31	0.23	0.28	0.32	2	1	1	1	1
한국–베트남	0.02	0.02	0.03	0.02	0.02	8	8	7	8	8
한국–인도네시아	0.32	0.19	0.14	0.10	0.05	1	2	2	4	5
한국–인도	0.11	0.05	0.07	0.04	0.04	5	7	5	6	6
한국–칠레	0.06	0.05	0.01	0.05	0.07	7	6	8	5	4
한국–캐나다	0.08	0.08	0.04	0.03	0.04	6	5	6	7	7

자료 : GTA 자료를 저자 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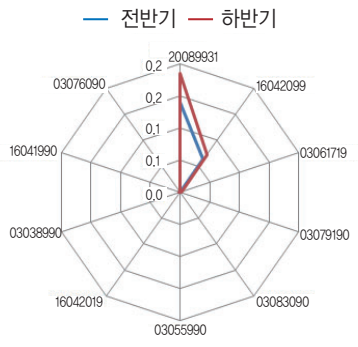
한국과 미국 간 경합 감소 품목, 03074310(냉동 오징어), 25010020(소금)

한국과 태국 간 경합 증가 품목, 20089931(조미김)

| 주요 수출 경합 품목 |



對미



對태국

자료 : GTA 자료를 저자 가공

미·중 무역분쟁,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 시사점

미·중 무역, 상호 보완관계의 형태

– 미국은 세계 제1의 수산물 수입국으로, 중국과도 수입 중심형 교역 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원물을 주로 수출하고 가공품을 수입하고 있다.
– 중국은 세계 제1의 수산물 수출국으로, 미국과도 수출 중심형 교역 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수출뿐만 아니라 수입도 크게 늘려 나가고 있다. 또한 가공품을 주로 수출하고 원물을 수입하고 있다.
– 양국 간 교역은 비교우위에 입각한 뚜렷한 보완관계의 형태를 띠고 있다.

미·중 무역분쟁, 중국의 탄력적인 대응

– 수산물 교역과 관련해서 중국이 미국보다 우선적(시점)으로, 그리고 더 크게(관세율) 대응하였다. 그 결과 중국의 對미 수입은 미·중 무역분쟁 시작 이후 즉각적으로 감소하였으며 수입국 다변화가 이루어졌다.
– 미국은 중국보다 시기적으로 늦고, 더 낮은 관세율을 부과함에 따라 수입시장에서의 변화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 관세를 부과한 시점인 9월 이후에는 일부 변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對미, 對중 수산물 수출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추정

–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한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은 제한적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 이는 미국과 중국, 양국 간의 교역 품목이 우리 수출 품목과 직접적인 대체관계 크지 않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대체관계에 있는 품목이라고 하더라도 미국과 중국은 해당 품목을 우리나라보다는 타국으로부터 수입을 늘렸기 때문이다.
– 실제 미·중 무역분쟁 기간(2018년 7월~10월) 동안 중국은 對ASEAN 수산물 수입 비중을 10.9%(2016~2017년 평균)에서 12.9%(2018년)로 증가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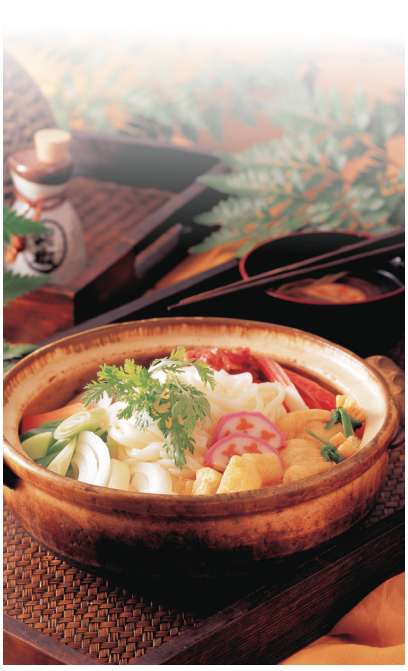
우리나라 주요 수출 영향 예상 품목은 참치 등

– 우리나라의 對미 주요 수출 영향 예상 품목은 참치, 어육연제품, 게살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의 對중 참치 피레트(냉동) 수입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對한 참치 피레트(냉동) 수입은 크게 늘어났다.
– 우리나라의 對중 주요 수출 영향 예상 품목은 참치, 해삼류, 연육류, 가자미류 등으로 나타났다. 미국시장과 유사하게 중국 역시 한국산 참치 수입을 늘린 것이 특징적이다.

미·중 무역분쟁,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경쟁국은 ASEAN

– 미·중 무역분쟁 기간 우리나라와 수출 경합도(ESI 분석)가 높아진 국가는 ASEAN으로 나타났다. 특히 對미 수출의 경우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對중 수출의 경우 태국이 우리나라의 주요 경쟁국으로 분석되었다.
– 따라서 우리나라는 현재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한 수출 영향이 제한적인 가운데,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ASEAN 국가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부산의 명물에서 세계 속 명물로 부상하는 ㈜늘푸른바다



- **업 체 명 :** ㈜늘푸른바다
- **주　　소 :**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로 1066번길 55(장림동)
- **취급품목 :** 어묵, 어묵면
- **주요 수출국 :** 미국, 캐나다, 유럽
- **회사연혁 :** 1991년 해림식품 설립
  1999년 늘푸른바다 상호변경 및 부산공장으로 이전
  2006년 식약청 HACCP 적용업소 지정
  2007년 식약청 식품안전의날 표창 수상
  2010년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2011년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인가
  2013년 고용우수기업 선정
  2014년 수산 신지식인 표창 수상, 고래사어묵 1호직영점 오픈
  2015년 부산광역시 전략산업 선도기업선정
  2017년 미주지역 해외 고래사어묵 1호점 오픈
  2018년 수산인의 날 대통령 산업포장 수상

베이커리 어묵 시장에 이바지하는 ㈜늘푸른바다

최근 몇 년간 포장마차의 주 메뉴이자 가정의 반찬으로 소비되던 겨울철 국민 간식 '어묵'의 위상이 달라졌다. 건강 및 고급 어묵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고품질의 어묵 베이커리와 어묵면 등의 간식용 어묵(즉석 조리, 소량 다품목) 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있다.

내수 부진 등으로 국내 식품산업 전반이 정체되고 있는 가운데, 맛살과 어육소시지를 포함한 어묵산업 매출액은 2007년 4,150억 원에서 2016년 8,980억 원으로 지난 10년간 두 배 이상의 성장세를 기록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대세계 어묵수출은 2009년 1천 8십만 달러(한화 121억 5천만 원)에서 2018년 4천 5백 5십만 달러(한화 511억 5천만 원)으로 지난 10년간 네 배 이상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베이커리의 사업 모델을 본뜬 베이커리 어묵 매장이 출시되면서 어묵산업의 성장세에 한몫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베이커리 어묵은 베이커리처럼 제조 후 즉석으로 판매하는 사업 모델을 말하며, 신선하면서도 고급스러운 간편 식품으로 어묵의 이미지 변신을 꾀하는 데 크게 일조했다.

㈜늘푸른바다라는 바로 이러한 베이커리 어묵시장에서 대표적인 업체 중 하나이다.

위생적 관리 등으로 길거리 간식에서 어묵 베이커리로 부활

㈜늘푸른바다는 그의 업체명보다 '고래사 어묵'이라는 브랜드명이 더 널리 알려져 있다. 동 회사는 1963년 어묵의 본고장인 부산에 설립해 50년 이상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한다.

한국 소비자들 사이에 어묵은 대중적 반찬, 평범한 길거리 음식이라는 인식이 있는데, 이러한 선입견을 깨고 프리미엄 어묵의 위상을 위해 동 회사는 수십 년의 노력을 기울였다.

우선 어묵 원재료인 어육으로부터의 위생적 생산 시스템 구축이다. 동 회사는 국내 최초로 위생적 흡입형 탈유기 개발, 자동화된 급속냉각기, 삼면포장기, 고속로터리포장기 등의 최신 설비 등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한 끝에, 2006년 부산시 1호 HACCP으로 지정되어 건강한 無방부제, 無밀가루의 웰빙형 프리미엄 어묵 생산 시설을 갖추게 되었다.

한편, 반찬에만 국한되어 있던 어묵을 베이커리식 수작업이 필요한 고급 제품으로 육성하고자 공동 브랜드 개발, R&D 투자 확대 등도 함께 수행했다. 이를 통해 '고래사 어묵'이라는 특화 브랜드를 출시하고, 베이커리형 직매장을 곳곳에 개설하면서 어묵을 새롭게 부활시켰다.

고래사 어묵, 세계 시장의 지평을 열다

프리미엄 어묵의 위상을 세우고 있는 고래사 어묵은 주재료인 어육과 전국 지역의 특산물을 융·복합한 제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해 국내에 선보이고 있다.

내수시장의 악화로 국내 유통시장 한계에 부딪혔지만, ㈜늘푸른바다는 수출을 통해 해외에서 돌파구를 찾았다.

2017년 9월 고래사는 전국 어묵업체 중 최초로 미국 시애틀에서 1호 직판매장을 오픈하여 미국 시장 진출의 첫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미국 1호점 매장의 폭발적 반응에 힘입어 2018년 4월 6일에는 캐나다 벤쿠버점, 13일에는 미국 시애틀 2호점을 연이어 오픈하였고, 특히 캐나다 벤쿠버 매장의 경우 오픈하자마자 일평균 1,000여 명의 고객 방문을 기록했다.

관계자는 "한국, 특히 부산에서는 어묵이 서민 정서를 대표하는 음식이지만 해외에서는 근사한 요리로 알리고 싶다"며 "지속적

인 혁신과 연구·개발을 통해 전 세계 시장으로 뻗어나가는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어묵의 세계화 및 고부가가치화에 끊임없이 노력하는 고래사 어묵은 수출 스타 상품 발굴을 위한 사업을 활용하여 신제품인 어묵면 스파게티를 출시했다.(어묵면 스파게티의 경우 연평균 10%대 성장세 중인 북미 '글루텐 프리' 시장을 겨냥하고 있으며, 현재 미국·캐나다 대형 식자재 바이어와 수출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

해외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늘푸른바다

㈜늘푸른바다는 '글루텐 프리' 및 '할랄푸드'와 같은 글로벌 트렌드에 맞추어 2019년 수출전략을 꾀하고 있다.

현재 ㈜늘푸른바다는 전세계 약 24개국에 수출 중이다. 그 중 고래사 어묵 브랜드 매장은 캐나다, 미국, 멕시코 등 북미에 집중되어 있다. 전 세계에 수출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동남아시장을 목표로 홍콩,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의 지역 전시회에 참여할 계획이며, 해당 지역 바이어를 초청하여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전 세계 식품 트렌드에 맞춰 할랄 인증 심사 계획을 갖고 있다. 할랄 식품은 중동지역과 동남아지역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심사조건 때문에 전 세계에서 믿고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평가되고 있다.

해외의 유수한 유통사와의 협의도 진행 중이다. 로컬매장 진출을 위해 미국 대형 유통사와 협의 중에 있으며, 영국을 시작으로 유럽시장도 협의 단계에 있다.





양식에서 가공까지 '굴 수출 선도 기업', 대일수산㈜

- **업 체 명 :** 대일수산㈜, 대일씨에프
- **소 재 지 :** 경남 거제시 하청면 와항1길 32-1
- **주요 생산품 :** 굴(생굴, 냉동굴, 건굴, 굴통조림), 바지락(냉동바지락, 바지락통조림)
- **주요 수출국 :** 미국, 일본, 홍콩, 싱가포르, 스페인 등
- **회사연혁 :** 1963 굴, 홍합 수하식 양식업 창업





1987 대일수산㈜ 공장 설립
1988 식품제조 가공업 등록(거제 제11호)
1992 통조림 제조 허가 필, 미국 FDA 등록
1996 생식용 생굴 가공시설 등록
1998 HACCP 공장 등록
1999 KSA/ISO 9002 인증
2000 EU 공장등록
1,000만 불 수출의 탑 수상
2007 수산물 수출 10대 기업 선정(해양수산부)
2011 ISO 22000 인증 획득
2013 SQF(Level 3) 인증 획득
2014 가공 수산물 전문업체 대일씨에프 설립
2017 (대일씨에프) HACCP 공장 등록 및 EU, 중국, 러시아 공장 등록
SQF Code Edition 7.2 인증 획득

한국 굴 역사와 함께 하는 대일수산㈜

우리나라 최초의 굴양식은 1897년 원산만 부근에서 살포식으로 이루어졌지만, 실제 현재 굴양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하식 양식은 1962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긴 역사와 함께 걸어온 업체가 있다. 그게 바로 대일수산㈜이다.

1963년 굴, 홍합 양식 사업으로 시작한 대일수산㈜은 현재 생굴, 냉동굴, 굴 통조림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 가공, 판매하고 있다. 동 업체는 현재 굴 양식 및 채취, 굴 박신, 제품 제조·가공을 포함해 총 200여 명의 전문 인력을 보유하

고 있는 한국 굴 산업에서의 선도업체이다. 설립 당시에는 단순 굴 양식만 했지만, 1987년 가공공장 설립 이후 가공까지 사업영역을 확대했다.

현재 대일수산㈜에서 생산하고 있는 제품은 신선제품(굴) 냉동제품(굴, 홍합, 바지락)과 건조제품(굴, 홍합), 통조림 제품(굴, 홍합, 바지락)등으로 다양하다. 생산 제품의 60~70%는 수출을 하고 있으며, 신선과 냉동은 주로 일본 등으로 수출, 건조제품은 홍콩, 싱가포르, 통조림은 미국, 유럽으로 주로 수출하여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나머지 30~35%는 국내 대기업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제품이고, 약 5%는 자체 브랜드인 델리씨(DELISEA)로 판매되고 있다.
지금의 대일수산㈜은 일본, 미주, 유럽, 동남아 등 세계 각지로 1,500만 불 이상을 수출하는 한국의 대표적인 굴 수출업체로 성장했다. 이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동 업체만의 비결은 안전성 확보, 수출 상품군 다양화 및 수출시장 다변화로 요약할 수 있다.

굴 수출 '안전성 확보'가 최우선

굴은 식품안전에 취약한 수산물 중 하나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안전관리 제도를 마련해 운영함으로써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에 굴 안전성 확보는 필요가 아닌 필수조건으로 안전한 굴 제품 생산은 내수 판매는 물론, 해외시장에서도 굉장히 큰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요소이다.

이를 위해 대일수산㈜은 철저한 양식장 관리부터 위생적 생산공정까지 안전성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다. 특히 사내 분석실을 구축해 해외 기준치에 맞게 세균 및 패류독소에 대한 자체 검사를 내부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기준치 초과 시 바로 양식 환경에 대해 검사·통제 등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안전성 문제를 원천으로부터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2012년 노로바이러스 검출로 한국산 굴의 對미국 수출이 중단된 적이 있었어요. 안전성 관리는 늘 하고 있었지만, 그때부터 중요성이 더 크게 느끼면서 자체 분석실을 강화했죠. 원물부터 수출 제품의 안전성 확보까지 원스톱으로 통제가 가능하다 보니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선호합니다."

다양한 상품군 개발을 통해 블루오션 시장 개척 및 대내외 리스크 관리

대부분의 굴 수출업체처럼 당 업체의 수출도 생굴, 냉동 굴의 의존도가 높은 편으로, 수출 판로 개척과 함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신규 가공품 개발을 통한 수출 경쟁력 강화 필요성이 확대되었다. 이에 동 업체는 굴 가공품 개발에 나섰으며, 이를 위해 2014년에는 가공품 생산에 특화되어있는 대일씨에프라는 업체를 설립하였다. "냉동굴만 수출하는 업체는 불가피한 외부 요인으로 판로가 막혀 생산을 줄여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시즌별로 다양한 가공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통조림을 늘린다거나 건조굴을 늘린다거나 하는 식으로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계자는 "가공공장이 힘들어도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는 직접 원료를 공급함으로써 안정적인 공장 가동률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라며 "원물만 생산하거나 가공만 할 경우에는 대내외적인 시장 환경에 따른 타격을 많이 받기 때문

에 이러한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다양한 제품의 원스톱 생산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수출시장 다변화를 도모하는 대일수산㈜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은 상위 수출국에 대한 의존도 개선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굴의 경우 對일본 수출이 전체 굴 수출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수출국 다변화가 필요한 품목 중 하나이다.

대일수산㈜은 일본시장에 집중된 수출 구조 개선과 함께 국내 업체 간 경쟁 심화를 피하기 위해 세계 최대 소비 시장인 중화권으로 신시장을 개척하기 시작했다. 가공 시설 확대 및 해외 소비시장 맞춤형 상품 개발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신시장 개척한 결과, 홍콩 등 중화권으로의 수출이 전체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만큼 다른 수출업체와 차별된 수출 구조를 가지게 되었다.

대일수산㈜, 세계로 향하다

향후 수출 계획 및 목표에 대해 관계자는 주요 수출시장을 중심으로 특정 수출 제품의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것을 꼽았다. 중국시장에서 굴 가공품, 미주시장에서 굴 통조림, 아시안 마켓에서 냉동굴 등의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세계 굴 수출시장은 프랑스, 한국과 중국 등이 주도하는 시장으로, 프랑스는 품질 경쟁력, 중국은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품질에서는 프랑스, 가격에서는 중국에 비해 우위를 선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굴 통조림 수출업체들이 현재 해외 바이어들은 한국산 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면 바로 중국으로 눈을 돌리는 불안전한 시장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에 향후 대일수산㈜은 가격 경쟁력보다는 원료의 미생물 검사, 패류독소검사 등에 대한 자체 실시를 통해 원료 안전성 확보에 심혈을 기울일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관계자는 "지금은 고부가가치 상품을 중심으로 우리 수산식품산업이 질적 성장을 거두어 나가야 할 시기"라고 평가하면서, "대일수산㈜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수출 활성화를 위해 고차 가공품 개발 및 품질 개선, 연구개발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중국 연육 시장 관찰기

세계 연제품 시장 성장

경제 성장,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인구 구조적 변화로 인해 수산물 소비에 있어서도 가공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수산 가공품 중에서도 연육을 활용하여 가공한 연제품의[1] 소비가 늘었다. 세계 연제품 교역 규모는 2001년 19억 6천 9백만 달러에서 2017년 43억 8천 6백만 달러로 연평균 5.1%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 전 세계 어육 가공품 교역 추이 |



주 : HS 160420류로 산출함

자료 : ITC Trade Map 원자료 KMI 해외시장분석센터 가공(2019.01.24.)

세계 연육 생산 80만 톤 수준에서 정체

어묵, 생선소시지 등 연제품은 명태, 갈치, 조기 등의 연육을 활용하여 가공한 제품으로 연제품의 수요 증가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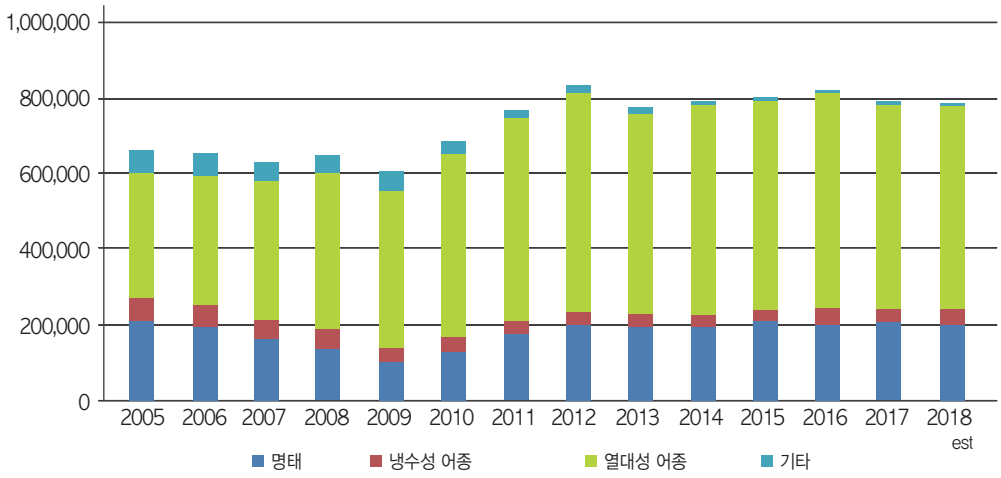
1) HS 160420류로 산출

연육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졌다. 실제 세계 연육 생산은 2000년대 중반 60만 톤 수준에서 2018년에는 80만 톤 수준으로 약 20만 톤 증가하였다. 하지만 최근 연육 생산은 동남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주요 어종의 자원이 고갈되면서 80만 톤 수준에서 정체를 보이고 있다. 반면 어육 가공품에 대한 수요는 높아짐에 따라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면서 연육의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가 주로 수입하는 중국산 갈치 연육 가격의 경우 2017년 중반 8위안(1,330원)/kg에서 2018년에는 최고 11위안(1,830)/kg까지 약 40% 상승하였다.

| 전 세계 연육 생산 추이 |

(단위 : 톤)



자료 : The 12th Surimi School Asia(2018.9.)

중국 내수면 어종 활용 연육 상용화 (연간 4~5만 톤 생산)

2017년 기준 중국의 연제품 생산량은 약 120만 톤으로 전 세계 생산량의 약 40% 생산하는 세계 최대 생산국으로 연육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은 국가이다. 한편 중국 내 연육 생산량은 20만 톤(해면 어종 : 12만 톤, 내수면 어종 : 4~5만 톤) 수준이다.[2)]

최근 해면 어종의 자원 감소에 따른 연육 생산 감소와 함께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중국은 내수면 어종을 활용한 연육을 생산하여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있다. 중국 내 내수면 어종 연육 생산은 2000년대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된 후 2010년대에는 연간 4~5만 톤의 연육을 생산하는 등 세계 최초로 내수면 어종 활용 연육 제품의 상용화를 이루었다.
내수면 어종 연육 산업화에 있어 초기 기술 개발은 정부와 학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이후 산업화로는 발전은 업체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2) The 12th Surimi School Asia(2018.9.)

주요 생산지역은 후베이성, 가공 어종은 백련어

내수면 어종 연육 생산지역은 내수면 수산자원이 풍부한 후베이성(湖北省(호북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초기 내수면 어종 연육 생산은 백련어와 초어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현재는 대부분 백련어를 활용하여 연육을 생산하고 있다. 이는 백련어와 초어의 가격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백련어를 가공하는 것이 경제성이 더 높기 때문이다.[3] 또한 내수면 어류 중에서도 연육의 특성을 비교적 잘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다. 중국은 백련어와 초어 외에도 메기, 잉어 등 다양한 내수면 어종의 연육 가공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상품의 품질 및 경제성 때문에 중국 내 내수면 어종의 연육 생산은 대부분 백련어로 이루어지고 있다.[4]

백련어 연육, 해면 연육보다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어 백련어 산업 활성화 기여

중국 내 냉동 연육 등급은 크게 8개 등급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이 중 2A가 가장 많이 생산되고 있다. 2018년 11월 기준 kg 연육 가격(2A)은 갈치가 7~10위안, 해면 잡어가 10위안 이하, 백련어가 18위안 수준으로 백련어 연육이 해면 어종의 연육보다 가격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일반적으로 백련어의 경우 중국 내에서 부가가치가 낮은 품목으로 인식되었다. 백련어의 연간 생산량은 약 400만 톤 수준으로 연육으로 활용되기 이전에는 주로 초어의 초기 사료로 활용되었다. 이후 백련어가 연육의 원료로 활용되기 시작하면서 백련어 가격이 2배 이상 상승하는 등 연육 산업이 백련어 양식산업의 성장을 이끈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부산물(머리, 내장 등) 활용을 통해 부가가치 극대화

그럼에도 불구 백련어 연육 산업은 일반 양식산업에 비해 부가가치가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에 중국 업체들은 연육 생산에서 발생하는 머리, 내장 등의 부산물을 활용하여 가공 제품, 미용 제품, 사료 등 다양한 형태의 제품을 개발함으로써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다. 실제 내장 등의 경우 사료용 활용되고 있으며, 머리 부분의 경우 구이, 찜 등의 식자재로 활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추출물을 활용한 건강제품, 미용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도 진행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육 등급제 도입을 통한 품질 제고 및 안전성 확보

내수면 어종 연육 산업화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위생 및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공급하는 것이다. 중국에서는 냉동 연육에 대해 국가표준을 마련하여 품질을 관리하고 있다. 국가표준은 중국 전역에 적용되는 표준으로 크게 GB와 GB/T로 구성된다. GB 규정의 경우 강제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의무 규정이며, GB/T 규정은 권고적 성격의 규정이다.

냉동 연육의 경우 GB/T 규정을 통해 등급을 관리하고 있다. 총 9개의 등급이 있으며, 겔 강도, 이물질 개수, 수분, pH, 중심온도, 백도, 전분 등이 등급 판정의 기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겔 강도의 경우 높을수록, 이물질 개수와 수분은 적을수록 등급이 우수하다. 한편 모든 냉동 연육은 pH는 6.5~7.4, 중심온도는 18℃ 이하, 백도는 규정에 부합, 전분은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

---

3) 원어에서 연육 획득 비율은 초어(30~35%)가 백련어(25~30%)보다 높지만, 가격 부문에서 있어 백련어(6위안/kg)가 초어(10위안/kg)보다 우위를 점함

4) 메기와 잉어의 경우 높은 지방 함유와 함께 붉은색 살 등으로 인해 연육으로 가공할 수 있지만 경제성은 낮은 것으로 조사됨

| 중국 냉동 연육 등급 기준 |

구분	내용
색깔	흰색, 흰색 계열
형태	덩어리가 완전해야 하며, 해동 후 평평하며 부드러운 상태
냄새	물고기 특유의 냄새, 이상한 냄새가 없어야 함
이물질	외부 기인 이물질이 없어야 함

자료 : GB/T 36187–2018

| 중국 냉동 연육 등급 분류 |

구분	내용								
	TA	SSA	SA	FA	AAA	AA	A	AB	B
겔 강도(g · cm)	≥900	≥700	≥600	≥500	≥400	≥300	≥200	≥100	〈100
이물질 개수(/5g)	≤8	≤10	≤12			≤15			≤20
수분(%)	≤75	≤76				≤78			≤80
pH	6.5~7.4								
중심온도(℃)	≤–18								
백도(색)	규정부합								
전분	검출 불가								

자료 : GB/T 36187–2018

연육 공급 안정화, 중국 사례 등의 벤치마킹

우리나라는 대표적 연육 수입국으로 연제품 가공에 있어 원료 대부분을 수입산에 의존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연제품 소비에 있어서도 연간 35만 톤에 달하는 거대 소비 시장으로, 단일 시장으로는 중국,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3번째로 큰 시장을 보유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는 연제품에 있어 거대 시장을 형성하고 있음에도 불구, 원료인 연육의 자급률은 5% 미만으로 수급 불균형이 심한 국가이기도 하다.

최근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연육 생산이 감소함에 따라 연육 가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어묵 업체를 중심으로 연제품 생산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문제는 자원 고갈로 인한 연육 수급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우리나라의 연제품 시장을 유지 혹은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연육 수급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상황이다.

이런 측면에서 중국의 내수면 어종을 활용한 연육 생산은 우리나라가 벤치마킹 해야 할 좋은 사례이다. 앞서 살펴보았지만 중국의 경우 내수면 어종을 활용하여 연육을 생산함으로써 안정적인 연육 공급은 물론, 양식산업까지 활성화시켰다. 우리나라도 양식부문에 있어서는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양식 어류를 활용한 연육 생산에 관심을 가져볼 시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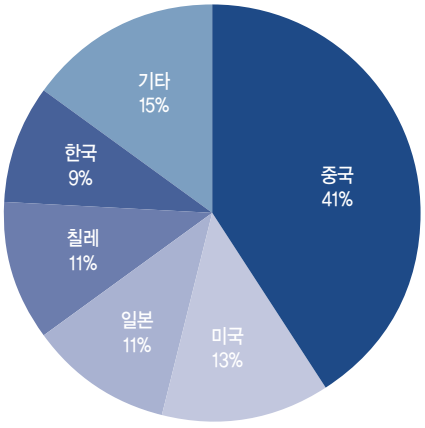
EU의 해조류 통관 부적합 동향 분석

요오드 편

성장하는 EU 해조류 시장

Allied Market Research의 보고서[1]에 따르면 세계 해조류 시장의 규모는 2017년 약 40억 9,793만 불에 달했으며, 2018년 이후 연평균 12.0%로 빠르게 성장하여 2024년에는 약 90억 7,565만 불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된다. EU 해조류 시장 역시 성장하고 있으며, 2015~2017년 연평균 2,537만 불을 수입했다. 한국은 중국(1,037만불, 41%), 미국(332만불, 13.1%), 일본(269만불, 10.6%), 칠레(269, 10.6%)의 뒤를 이어 5위 수입대상국(241만불, 9.5%)이다.

| EU 식용 해조류 수입대상국 (2015~2017년 연평균 금액 기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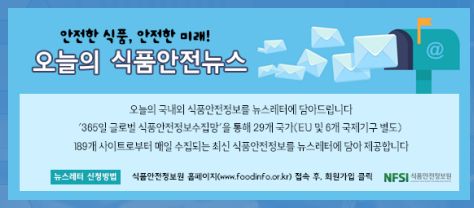
주 : HS 1212.21(Seaweeds And Other Algae, Fresh, Chilled, Frozen Or Dried, Whether Or Not Ground, Fit For Human Consumption) 기준 집계, 조미제품 제외
자료 : Global Trade Atlas 원자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외시장분석센터 가공(2018.11.6.)

한국의 對EU 식용 해조류 주요 수출대상국은 프랑스, 독일, 영국으로 세 국가의 비중이 총 80%를 차지한다. 특히 對독일 수출은 2015년 32만 불에서 2018년 71만 불로 2.2배 증가했다. 주요 품목은 미역이 61%로 가장 많고, 김(23%), 다시마(10%) 순으로 나타났다.

가공제품 및 기타 해조류 제품을 모두 포함한 對EU 해조류 수출금액[2]은 2015년 1,314만 불에서 2018년 2,883만 불로 2.2배 증가했다. 주요 수출대상국은 영국(25%), 독일(24%), 프랑스(20%)이며, 주요 품목은 김(91%), 미역(6%), 다시마(1%)이다.

1) https://www.alliedmarketresearch.com/seaweed-market (검색일 : 2018. 12. 26) 식용 및 비식용 해조류, 해조류 제품 등을 모두 포함
2) HS1212.21, HS1212.29, HS2106.90기준 집계, 원물 및 가공 해조류를 모두 포함

본 자료는 글로벌 식품안전정보수집망을 통해 수집된 '해외 주요국 정부의 한국산 식품 부적합 정보'를 활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우리나라의 對EU 식용 해조류 수출(국가별) |

(단위 : 만 $)

국가	2015	2016	2017	2018	2015~2018	
					평균	비중
총합계	187	146	193	183	177	100%
프랑스	59	41	51	53	51	29%
독일	32	40	60	71	51	29%
영국	40	34	47	36	39	22%
네덜란드	34	23	21	15	23	13%
체코	1	2	6	3	3	2%
기타	20	5	8	5	10	6%

주 : HS 1212.21(Seaweeds And Other Algae, Fresh, Chilled, Frozen Or Dried, Whether Or Not Ground, Fit For Human Consumption) 기준 집계, 조미제품 제외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원자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외시장분석센터 가공(2019.1.1.기준)

| 우리나라의 對EU 식용 해조류 수출(품목별) |

(단위 : 만 $)

국가	2015	2016	2017	2018	2015~2018	
					평균	비중
총합계	187	146	193	183	177	100%
미역	135	98	111	92	35	61%
김	34	22	50	56	162	23%
다시마	11	18	19	24	72	10%
기타	8	8	14	11	41	6%

주 : HS 1212.21(Seaweeds And Other Algae, Fresh, Chilled, Frozen Or Dried, Whether Or Not Ground, Fit For Human Consumption) 기준 집계, 조미제품 제외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원자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외시장분석센터 가공(2019.1.1.기준)

| 우리나라의 對EU 해조류 수출(국가별) |

(단위 : 만 $)

국가	2015	2016	2017	2018	2015~2018	
					평균	비중
총합계	1,314	1,307	2,657	2,883	2,040	100%
독일	231	309	740	732	503	25%
영국	368	371	622	597	490	24%
프랑스	359	294	559	399	403	20%
네덜란드	160	118	325	257	215	11%
이탈리아	66	67	129	183	112	5%
기타	130	145	283	715	318	16%

주 : HS 1212.21(Seaweeds And Other Algae, Fresh, Chilled, Frozen Or Dried, Whether Or Not Ground, Fit For Human Consumption), HS 1212.29(Seaweeds And Other Algae, Fresh, Chilled, Frozen Or Dried, Whether Or Not Ground, Other), HS 2106.90(Miscellaneous edible preparations, Food preparations not 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d, Other) 기준 집계, 조미제품 포함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원자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외시장분석센터 가공(2019.1.1.기준)

| 우리나라의 對EU 해조류 수출(품목별) |

(단위 : 만 $)

국가	2015	2016	2017	2018	2015~2018	
					평균	비중
총합계	1,314	1,307	2,657	2,883	2,040	100%
김	1,150	1,166	2,443	2,697	1,864	91%
미역	135	98	111	92	109	5%
다시마	11	18	19	24	18	1%
기타	19	25	84	71	50	2%

주 : HS 1212.21(Seaweeds And Other Algae, Fresh, Chilled, Frozen Or Dried, Whether Or Not Ground, Fit For Human Consumption), HS 1212.29(Seaweeds And Other Algae, Fresh, Chilled, Frozen Or Dried, Whether Or Not Ground, Other), HS 2106.90(Miscellaneous edible preparations, Food preparations not 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d, Other) 기준 집계, 조미제품 포함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원자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외시장분석센터 가공(2019.1.1.기준)

EU 해조류 유통 시 관련 라벨링 규정 준수 필요

유럽 내 해조류 유통 시 의무 표시사항 및 영양성분 함량 등의 정보를 표기해야 한다. 의무 표시사항은 제품의 일반 정보 및 안전성 정보 등을 포함한다. 영양성분 함량은 제품에 포함된 영양성분의 정보를 의미한다. 그 외에도 영양분의 일일 필요량의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건강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 관련 문구를 표기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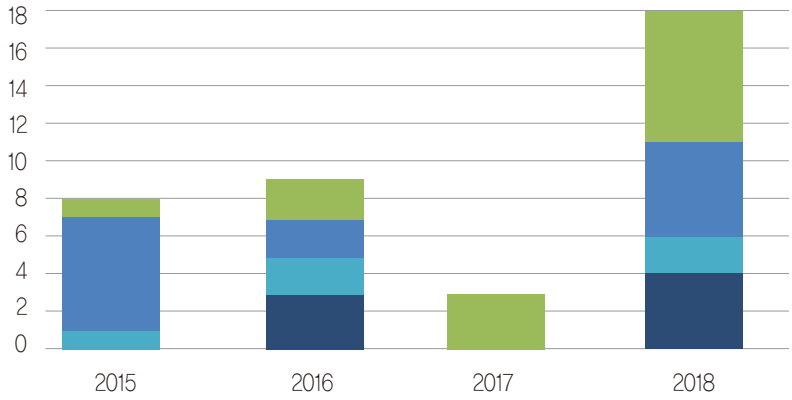
구분	내용
의무 표시사항	– 제품명, 성분 함량, 알레르기 유발 성분, 유통기간, 보관방법, 제조사명, 제조사 주소, 섭취방법, 중량, 영양성분, 알코올 도수(1.2% 이상 시), 원산지
영양성분 함량	–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섬유소, 나트륨 – 라벨에 인쇄된 문구에 해당 품목이 열량 혹은 일정 영양가를 포함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의미할 경우 의무 표기
비타민, 미네랄	– 일일 필요량(RDAs)이 상당량 포함되는 경우 의무 표기 *상당량: 특정 제품의 일인용 포장 100g 혹은 100㎖당 상기 명시된 영양분 및 미네랄 일일 필요량의 15%가 포함된 경우 **요오드의 일일 필요량은 150㎎이므로 100g당 22.5㎎ 초과 시 의무표기
요오드 고함유 제품	– 갑상선 주의 문구, 1회당 섭취량 등

자료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7. 독일 요오드 포함 해조류 수출관련 동향 (원자료: Commision Regulation(EC) No 178/2002)

EU 해조류 통관 부적합 주요 원인, 요오드 과다 검출

EU 식품 및 사료 긴급경보시스템(RASFF)에 따르면 2015~2018년 EU 국가의 해조류 수입 통관 거부 사례는 총 38건으로 집계되었다. 한국, 중국, 일본이 각각 13건, 13건, 5건으로 총 82%(31건)를 차지했다. 주요 원인은 요오드 과다 검출(23건, 60%)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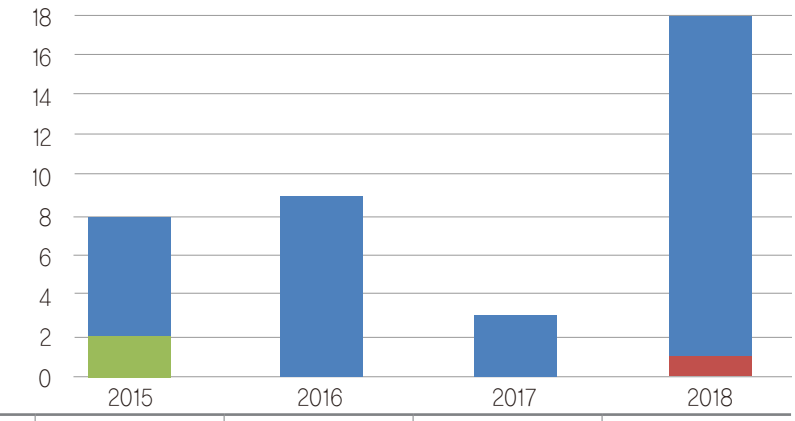
| 국가별 EU 해조류 통관 부적합 추이(2015~2018년) |



	2015	2016	2017	2018
한국	1	2	3	7
중국	6	2	0	5
일본	1	2	0	2
기타	0	3	0	4

자료 : EU RASFF 원자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외시장분석센터 가공(2019.1.4.)

| 원인별 EU 해조류 통관 부적합 추이(2015~2018년) |



	2015	2016	2017	2018
요오드	6	9	3	17
비소	0	0	0	1
기타	2	0	0	0

자료 : EU RASFF 원자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외시장분석센터 가공(2019.1.4.)

독일에서 요오드 기인 한국산 해조류 통관 거부 사례 지속 발생

2015~2018년의 사례를 살펴보면 한국의 경우 EU의 해조류 수입 1위, 3위 국가인 중국과 일본보다 많은 사례가 발생하여 해조류 수출에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 해조류 제품의 통관 거부 사유는 모두 요오드 과다 검출이다. 총 13건 중 12건이 독일에서 발생한 점을 감안하면 독일의 관련 기준 및 규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 한·중·일의 EU 국가별 해조류 통관 부적합 원인(2015~2018년) |

(단위 : 건)

원산국 \ 검역국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스페인
한국 (13건)				
– 요오드	12		1	
중국 (13건)				
– 요오드	6	3	2	
– 색소				1
– 프로메트린				1
일본 (5건)				
– 요오드	1	4		
기타 (7건)				
– 요오드	4		2	
– 비소				1
총합계	23	7	5	3

자료 : EU RASFF 원자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외시장분석센터 가공(2019.1.4.)

독일, 연방위해평가원의 유해 제품 평가 기준인 20mg/kg을 관리 기준으로 활용

독일의 성인 일일 요오드 권장섭취량은 200㎍/일이며, 일일 상한섭취량은 500㎍/일이다. 단, 해조류 등 요오드 고함유 제품으로부터 섭취하는 요오드 일일 상한섭취량은 200㎍/day으로, 일반 식이로부터의 일일 상한섭취량보다 엄격하다. 또한 독일은 요오드 함량이 20mg/kg을 초과하는 해조류 제품의 경우 독일 식품사료법 제5조의 '건강에 유해한 제품'으로 평가·관리한다는 독일 연방위해평가원(BfR)의 권고를 안전관리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 독일 요오드 관련 기준·권고 사항 |

구분		요오드 기준·권고
해조류 중 요오드 최대함량		20mg/kg (건조중량)
성인 일일 권장섭취량		200㎍/일 (51세 이상의 경우 180㎍/일)
일일 상한섭취량	식이	500㎍/일
	요오드 고함유 제품 (해조류 등)	200㎍/일
주의사항		주의성분 표기의무의 준수 여부와 관계없이 제품 섭취 시 소비자가 200㎍을 초과하는 요오드를 섭취하는 해조류 제품은 '건강에 유해한 제품'으로 판매 불가능

자료 : 식품안전정보원, 2018. 글로벌 식품 안전 포커스(4분기) (원자료: 독일 연방위해평가원, 독일 영양협회)

따라서 건조중량 기준 요오드 함량이 200㎍ 초과하는 경우 및 해당 제품 섭취 시 소비자가 200㎍을 초과하는 요오드를 섭취하는 해조류 제품의 경우 독일 내에서 판매할 수 없다.

| 對독일 해조류 제품 수출 시 주의사항 |

주의사항
– 주의성분 표기의무의 준수여부와 관계없이 제품 섭취 시 소비자가 200㎍을 초과하는 요오드를 섭취하는 해조류 제품은 '건강에 유해한 제품'으로, 판매 불가능 – 요오드 20㎎/㎏ 혹은 이상 함유하는 건조 해조류는 '건강에 유해한 제품'으로, 판매 불가능 – 식품군으로 분류되지 않는 해조류 가공품의 경우 제조업체 및 공급업체는 제조과정 중 해조류 사용량, 요오드 함량, 일일 권장섭취량 등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표기해야 함

자료 : 식품안전정보원, 2018. 글로벌 식품 안전 포커스(4분기). (원자료 : 독일 연방위해평가원, 독일 영양협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7. 독일 요오드 포함 해조류 수출관련 동향(원자료 : 독일 식품, 담배제품, 화장품과 기타 일용품 관리법)

해조류 요오드 함량, 건조 시 증가하지만 인위적으로 조정하기 어려워

해조류의 요오드 함량은 가공하면서 농축되어 생물 단계에서보다 염장, 조미제품에서 높게 나타난다. 특히 건조제품의 요오드 함량은 독일을 비롯한 해외 기준을 크게 초과하기 때문에 건조제품의 부적합 사례가 수시로 발생한다. 실제로 2015~2018년 對EU 수출 한국산 해조류 제품의 부적합 사례는 모두 건조 제품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해조류 중 요오드는 자연적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 한국의 주요 해조류 제품 요오드 함량 |

(단위 : mg/kg)

식품군	대분류	소분류	평균 (최소~최대)
김	원재료	생물	2.26 (1.34 ~ 3.25)
		건조	**51.6 (12.8 ~ 174)**
	가공	조미김	18.6 (7.47 ~ 46.5)
미역	원재료	생물	10.9 (2.61 ~ 29.2)
		건조	**158 (13.9 ~ 334)**
	가공	염장	26.1 (6.18 ~ 83.4)
		염장미역줄기	2.52 (0.98 ~ 6.53)
다시마	원재료	생물	13.4 (2.88 ~ 28.8)
		건조	**1,927 (18.8 ~ 5,010)**
	가공	염장	41.2 (12.4 ~ 92.9)

자료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015. 해조류의 요오드 기준규격 국제화 연구

2) https://www.onmeda.de/magazin/algen_vorsicht_jod.html
https://www.anses.fr/fr/system/files/NUT2017SA0086.pdf

| 한국 해조류의 EU 통관 부적합 품목 |

(단위 : 건)

품목	2015	2016	2017	2018
총계	1	2	3	7
건조 김	1	2	–	4
건조 미역	–	–	3	3

주 : 건조 김은 건조 자른 김(Dried Cut Seaweed) 및 건조 볶은 김(Dried Roasted Seaweed)을 포함
자료 : EU RASFF 원자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외시장분석센터 가공(2019.1.4.)

EU, 해조류 관련 기준 개정·설정을 위한 준비작업 돌입

그동안 EU는 2006년 회원국의 지리적 차이에 따른 식품 중 요오드 함량과 개인별 요오드 섭취량의 차이 등의 사유로 요오드 관련 문제는 EU 차원이 아닌 회원국 또는 지역적 차원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그러나 2018년 3월 유럽집행위원회(EC)에서 회원국에 해조류 중 중금속 및 요오드 함량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보고할 것을 권고하며, EU 차원의 대응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해조류 제품의 요오드 및 중금속 함량으로 인한 소비자의 건강 리스크를 평가하고, 관련 기준 개정 및 설정 등의 조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EU 모니터링 경과를 예의주시하여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중금속 및 요오드 모니터링 대상 제품 (2018~2020) |

구분	대상 제품
해조류	Arame(Ecklonia bicyclis), Bladderwrack(Fucus vesiculosus), Dulse(Palmaria palmata), Hiziki(Hizikia fusiforme), Irish moss(Chondrus crispus), Oarweed(Laminaria digitata), Kombu(Laminaria japonica, Saccharina japonica), Nori or Purple laver(Porphyra and Pyropia spp.), Rockweed (Ascophyllum nodosum), Sea lettuce(Ulva sp.), Sea spaghetti(Himanthalia elongata), Serrated wrack(Fucus serratus), Sponge seaweed(Codium sp.) Sugar kelp(Sacharina latissima), Wakame(Undaria pinnatifida), Winged kelp(Alaria esculenta)
식품첨가물	E400, E401, E403, E404, E405, E406, E407, E407a, E160a(iv)
식용 염생식물	Salicorna europaea, Tetragonia tetragonoides

자료 : Commission Recommendation(EC) No 464/2018

해조류 중 요오드 기준·규격 도입에 대한 대비 필요

유럽국가 및 국제기구의 요오드 일일 상한섭취량은 한국, 중국, 일본 등 해조류를 풍부하게 섭취하는 아시아 국가보다 엄격하게 설정되어있다. 유럽국가의 요오드 과잉 섭취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실제 우리나라의 對EU 수출 해조류 제품의 요오드 기인 통관 부적합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일부 유럽 국가 내 해조류 제품을 유통·판매하기 위해서는 라벨링 및 요오드 함량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현재 EU에서는 해조류 및 해조류 제품의 요오드 함량에 대한 기준·규격이 설정되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독일, 프랑스 등 일부 국가에서 미디어를 통해 해조류로 인한 요오드 과다 섭취 문제를 보도하는 등 해조류 중 요오드에 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2] 각 국가별 혹은 EU 차원에서 요오드 성분에 대한 기준·규격을 검토하고 있다. 향후 우리나라 해조류 제품의 안정적인 수출을 위해서는 해조류 중 요오드에 관한 논의 동향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 주요 국가별 요오드 섭취량 관련 기준 |

(단위 : ㎍/일)

구분	한국	중국	일본	EU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WTO
일일 권장섭취량	150	150	130	150	200	200	150	150
일일 상한섭취량	2,400	1,000	3,000	600	500	500	5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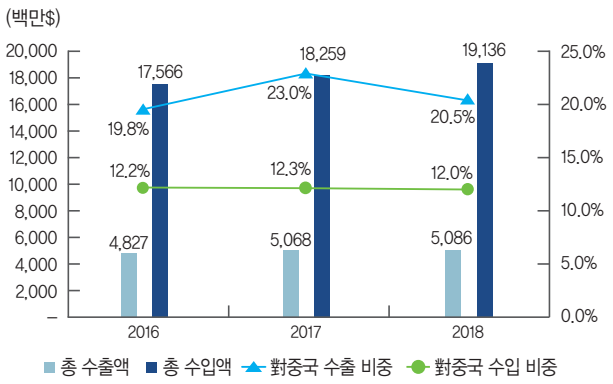
주 : 일일 권장섭취량 및 상한섭취량은 성인(19세 이상) 기준임
독일의 경우 성인 일일 권장섭취량은 200㎍/일 이며, 51세 이상의 경우 180㎍/일임

자료 : 식품안전정보원, 2018. 글로벌 식품 안전 포커스(4분기)
보건복지부, 2015. 201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요약본)
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 2014. Scientific Opinion on Dietary Reference Values for iodine
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 2006. Tolerable Upper Intake Level For Vitamins and Minerals
Minister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2015. Overview of Dietary Reference Intakes for Japanese.
Food and Environmental Hygiene Department, 2011. Dietary Iodine Intake in Hong Kong Adul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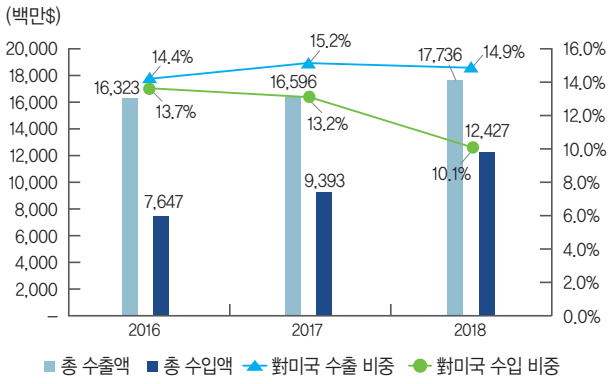
2018년 세계 수산물 시장의 핫 이슈!
통계로 파헤쳐보는 미·중 무역분쟁[1)]

미·중 수산물 무역 구조(2016년~2018년 10월 누적)

| 미국 무역 구조 |



| 중국 무역 구조 |



– 2018년 전 세계 교역 시장은 미·중 무역분쟁이라는 이슈로 뜨거웠다. 세계경제의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양국 간의 갈등은 양국 뿐 만 아니라 전 세계 교역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었고 전 세계 교역 시장에 긴장감이 맴도는 한해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수산물 교역 시장 또한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해 많은 혼란을 겪었다. 2018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미·중 분쟁으로 미국과 중국, 양국 간의 교역에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 시장의 경우 양국 간 무역분쟁에 따른 변화에 신경이 곤두설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본 파트에서는 수산물 교역 시장에서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양국 간의 무역분쟁이 수산물 교역 시장에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양국 간의 수출입 교역 자료를 통해 간략하게 알아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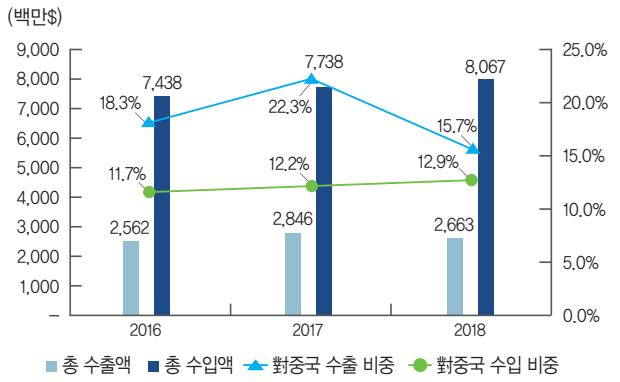
–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3년의 1월부터 10월까지의 누적 수출입 자료를 통해 미국의 무역 구조를 살펴보면 미국은 對세계 수산물 수출입은 지속적으로 증가시켜왔다. 하지만 미·중 무역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2018년을 기점으로 미국은 對중 수산물 수출, 수입 모두를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 같은 시기 중국의 무역 구조를 살펴보면 중국 또한 對세계 수산물 수출입을 모두 증가시켜왔지만, 미·중 무역분쟁이 발생한 2018년을 기점으로 對미국 수산물 수출입 모두 감소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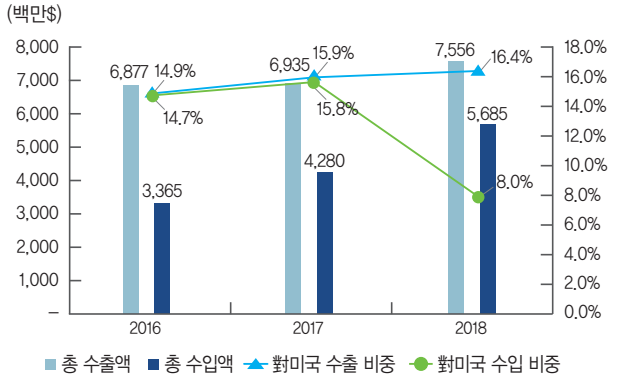
1) 1. 분석에 사용된 통계는 GTA(Global Trade Atlas, 2018년 12월 28일 기준)의 잠정치로, 이후 수정될 수 있음
2. 통계 자료는 품목별·국가별 집계 상의 차이로 인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됨

미·중 수산물 무역 구조(2016년~2018년 7월~10월, 미· 중 무역분쟁 시점)

| 미국 무역 구조 |



| 중국 무역 구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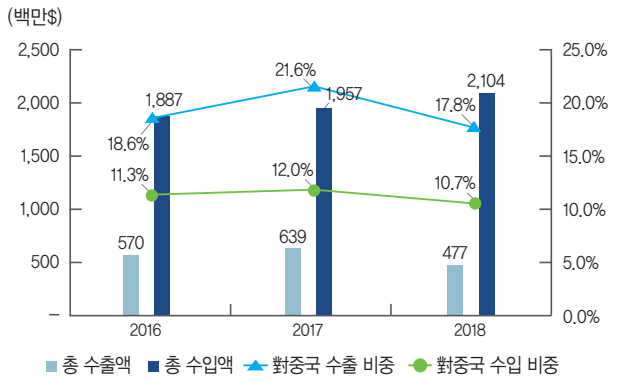


– 최근 3년간 무역분쟁이 시작된 시점(미·중 무역분쟁 시작 시점, 7월)부터 무역분쟁에 따른 교역 변화(7~10월)를 살펴보면 미국은 對세계 수산물 수입은 증가한 수치를 보였지만 수산물 수출은 감소한 양상을 보였다. 같은 시기 2017년에 22.3%의 수산물 수출 비중을 보이던 미국의 對중 수출은 2018년 15.7%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반면 미국의 對중 수산물 수입 비중은 소폭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이는 미·중 무역분쟁의 장기화 대비에 따른 물량 확보 차 수입을 일시적으로 증가시킨 요인이 작용했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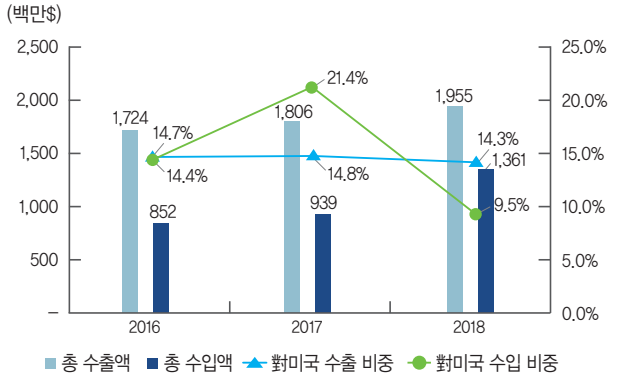
– 중국의 무역 구조를 살펴보면 對세계 수산물 수출입 모두 증가한 수치를 보였으나 같은 시기 對미 수산물 수출은 소폭 증가, 수입은 크게 감소하였다.

미·중 수산물 무역 구조(2016년~2018년 10월, 미·중 무역분쟁, 관세부과 시점)

| 미국 무역 구조 |



| 중국 무역 구조 |



– 7월부터 시작된 미·중 무역분쟁에서 상대국 수산물에 대한 관세 부과 시점은 서로 상이하였다. 중국은 미·중 무역분쟁이 시작된 7월부터 수산물에 대한 관세도 부과하였으나, 미국은 수산물에 대한 관세는 10월부터 부과하기 시작하였다. 미·중 양국이 동일하게 관세를 부과한 시점인 10월 당월의 무역 구조를 살펴보면 미국의 對세계 수산물 수입은 증가, 수출은 감소한 수치를 보였다. 같은 기간 미국의 對중국 수산물 수출입은 감소하였으며, 수출 비중이 수입 비중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한 모습을 보였다.

– 같은 시기 중국 무역 구조를 살펴보면 對세계 수산물 수출입은 모두 증가하였으나 對미 수산물 수출입 모두 감소한 수치를 보였으며 수입 비중이 더 큰 폭으로 감소한 모습을 보였다.

– 종합적으로 미·중 분쟁으로 인한 미·중 무역 구조 변화의 특징을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수산물 수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중국으로의 수출이 감소함에 따라 전체 수산물 수출이 크게 감소하였다. 중국의 경우 전체 수산물 수입은 증가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미국으로의 수산물 수입은 크게 줄인 것으로 보아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던 물량을 타국가로부터 충당하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미국 對중국 수입 - 2017년

		전체(백만$)	중국(백만$)	비중(%)	주요국(백만$, %)	한국(백만$, %)
구분	총합계	22,135	2,723	12.3		
1	틸라피아	659	418	63.4	중국(418, 63.4), 콜롬비아(48, 7.3), 인도네시아(47, 7.2), 온두라스(46, 7.0), 코스타리카(31, 4.7)	(–, –)
2	대구	722	391	54.2	중국(125, 54.2), 아이슬란드(125, 17.3), 노르웨이(70, 9.7), 캐나다(46, 6.4), 러시아(30, 4.2)	(–, –)
3	새우	6,754	340	5.0	인도(2,171, 32.1), 인도네시아(1,186, 17.6), 태국(812, 12.0), 베트남(634, 9.4), 에콰도르(574, 8.5)	(1, 0.0)
4	연어	3,732	263	7.0	칠레(1,627, 43.6), 캐나다(753, 20.2), 노르웨이(554, 14.8), 중국(263, 7.0), 영국(139, 3.7)	(–, –)
5	오징어	399	239	59.8	중국(239, 59.8), 인도(34, 8.6), 대만(32, 8.1), 태국(26, 6.4), 페루(11, 2.8)	(9, 2.2)
6	게	1,939	128	6.6	캐나다(713, 36.8), 러시아(397, 20.5), 인도네시아(310, 16.0), 중국(128, 6.6), 필리핀(91, 4.7)	(12, 0.6)
7	참치	1,560	123	7.9	태국(430, 27.6), 베트남(190, 12.2), 인도네시아(177, 11.3), 에콰도르(125, 8.0), 중국(123, 7.9)	(13, 0.9)
8	광어	258	98	38.1	캐나다(115, 44.5), 중국(98, 38.1), 태국(7, 2.7), 네덜란드(7, 2.6), 아르헨티나(6, 2.3)	(4, 1.4)
9	가리비	264	70	26.5	캐나다(78, 29.5), 중국(70, 26.5), 일본(64, 24.3), 아르헨티나(33, 12.3), 페루(5, 2.0)	(–, –)
10	해덕	125	66	53.0	중국(66, 53.0), 노르웨이(22, 17.6), 아이슬란드(19, 14.9), 러시아(8, 6.2), 캐나다(8, 6.1)	(–, –)
미국 총 수입액 (22,135백만$)		캐나다(3,414백만$, 15%), 중국(2,723백만$, 12%), 인도(2,281백만$, 10%), 칠레(2,022백만$, 9%), 인도네시아(1,859백만$, 8%), 한국(199백만$, 1%)				

주 : 1) 어종명의 순위는 미국의 對중 수입 순위를 기준으로 나열됨
2) '–'는 실적이 없는 경우임

출처 : GTA(Global Trade Atlas), KMI 재가공

– 일반적인 미·중 수입 구조를 살펴보면 2017년 미국의 對중 수입은 틸라피아, 대구, 새우를 중심으로 수입을 하고 있으며 전체 수입의 각각 63.4%, 54.2%, 5.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 어종 중에서 對중 의존도가 높은 품목[2]은 틸라피아, 대구, 오징어, 광어, 가리비, 해덕 등으로 나타났다.

중국 對미국 수입 - 2017년

구분	총합계	전체(백만$) 11,300	미국(백만$) 1,527	비중(%) 13.5	주요국(백만$, %)	한국(백만$, %)
1	연어	929	319	34.4	미국(319, 34.4), 칠레(211, 22.7), 러시아(113, 12.2), 페로제도(79, 8.5), 호주(71, 7.6)	(–, –)
2	광어	375	187	49.9	미국(187, 49.9), 러시아(70, 18.6), 노르웨이(25, 6.7), 그린란드(21, 5.7), 캐나다(21, 5.5)	(2, 0.4)
3	어분	2,228	161	7.2	페루(1,286, 57.7), 미국(161, 7.2), 베트남(160, 7.2), 칠레(99, 4.5), 러시아(93, 4.2)	(1, 0.0)
4	대구	749	157	21.0	러시아(337, 45.0), 미국(157, 21.0), 노르웨이(138, 18.5), 뉴질랜드(43, 5.7), 그린란드(40, 5.3)	(7, 0.9)
5	바닷가재	327	123	37.6	캐나다(196, 60.0), 미국(123, 37.6), 영국(6, 1.8), 아일랜드(1, 0.4), 아이슬란드(0, 0.1)	(–, –)
6	게	771	114	14.9	캐나다(207, 26.8), 러시아(122, 15.8), 미국(114, 14.9), 방글라데시(47, 6.1), 칠레(42, 5.4)	(3, 0.4)
7	명태	671	90	13.4	러시아(565, 84.2), 미국(90, 13.4), 중국(11, 1.6), 일본(4, 0.6), 캐나다(1, 0.1)	(–, –)
8	오징어	598	76	12.6	인도네시아(130, 21.8), 북한(129, 21.5), 페루(96, 16.1), 미국(76, 12.6), 대만(33, 5.6)	(18, 3.1)
9	새우	1,373	56	4.1	뉴질랜드(209, 15.2), 캐나다(167, 12.1), 호주(156, 11.4), 태국(142, 10.4), 아르헨티나(141, 10.3)	(–, –)
10	소금	316	43	13.6	인도(163, 51.5), 호주(66, 21.0), 미국(43, 13.6), 멕시코(8, 2.4), 파키스탄(4, 1.3)	(2, 0.0)
중국 총 수입액 (11,300백만$)		러시아(1,542백만$, 14%), 미국(1,527백만$, 14%), 페루(1,440백만$, 13%), 캐나다(751백만$, 7%), 칠레(507백만$, 4%), 한국(200백만$, 2%)				

주 : 1) 어종명의 순위는 중국의 對미 수입 순위를 기준으로 나열됨
2) '–'는 실적이 없는 경우임

출처 : GTA(Global Trade Atlas), KMI 재가공

– 2017년 중국의 對미 수입은 어분, 새우, 연어를 중심으로 수입을 하고 있으며, 전체 수입의 각각 34.4%, 49.9%, 7.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 어종 중에서 對미 의존도가 높은 품목은 어분, 새우, 대구 등으로 나타났다.

2) 의존도가 높은 품목은 비중의 30%가 넘는 품목으로 산정함

미국 對중국 수입 – 2018년 10월 누적

		전체(백만$)	중국(백만$)	비중(%)	주요국(백만$, %)	한국(백만$, %)
구분	총합계	19,136	2,294	12.0		
1	대구	627	329	52.5	중국(329, 52.5), 아이슬란드(129, 20.5), 노르웨이(52, 8.3), 캐나다(36, 5.8), 러시아(29, 4.6)	(–, –)
2	틸라피아	519	323	62.3	중국(323, 62.3), 콜롬비아(44, 8.5), 온두라스(40, 7.7), 인도네시아(36, 7.0), 코스타리카(26, 5.0)	(–, –)
3	새우	5,252	274	5.2	인도(1825, 34.7), 인도네시아(1009, 19.2), 베트남(507, 9.6), 에콰도르(454, 8.6), 태국(433, 8.2)	(1, 0.0)
4	연어	3,404	242	7.1	칠레(1532, 45.0), 캐나다(670, 19.7), 노르웨이(535, 15.7), 중국(242, 7.1), 영국(115, 3.4)	(–, –)
5	오징어	331	179	54.1	중국(179, 54.1), 인도(33, 9.9), 대만(28, 8.4), 태국(19, 5.9), 스페인(11, 3.4)	(8, 2.4)
6	게	1,806	116	6.4	캐나다(621, 34.4), 러시아(404, 22.4), 인도네시아(298, 16.5), 중국(116, 6.4), 필리핀(80, 4.5)	(7, 0.4)
7	참치	1,460	100	6.9	태국(409, 28.0), 인도네시아(174, 11.9), 베트남(173, 11.9), 에콰도르(129, 8.8), 중국(100, 6.9)	(10, 0.7)
8	광어	247	99	40.2	캐나다(106, 42.9), 중국(99, 40.2), 아르헨티나(8, 3.0), 네덜란드(7, 2.7), 태국(2, 2.2)	(4, 1.5)
9	해덕	125	69	55.0	중국(69, 55.0), 노르웨이(25, 19.8), 아이슬란드(16, 12.6), 러시아(9, 7.0), 캐나다(5, 4.3)	(–, –)
10	뱀장어	53	49	93.9	중국(49, 93.9), 대만(1, 2.0), 일본(0, 0.9), 뉴질랜드(0, 0.7), 캐나다(0, 0.6)	(0, 0.1)

주 : 1) 어종명의 순위는 미국의 對중 수입 순위를 기준으로 나열됨
2) '–'는 실적이 없는 경우임

출처 : GTA(Global Trade Atlas), KMI 재가공

– 한편 2018년 10월 누적 기준 미국의 對중 수입은 대구, 틸라피아, 새우를 중심으로 수입을 하고 있으며, 전체 수입의 각각 52.5%, 62.3%, 5.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 어종 중에서 對중 의존도가 높은 품목은 대구, 틸라피아, 오징어, 광어, 해덕, 뱀장어 등으로 나타났다.

중국 對미국 수입 – 2018년 10월 누적

구분	총합계	전체(백만$) 12,427	미국(백만$) 1,254	비중(%) 10.1	주요국(백만$, %)	한국(백만$, %)
1	광어	497	158	31.8	미국(158, 31.8), 러시아(103, 20.8), 그린란드(59, 11.9), 캐나다(48, 9.6), 노르웨이(38, 7.7)	(2, 0.3)
2	연어	1,130	156	13.8	칠레(309, 27.3), 러시아(303, 26.8), 미국(156, 13.8), 노르웨이(131, 11.5), 페로제도(85, 7.5)	(–, –)
3	대구	680	131	19.3	러시아(323, 47.5), 미국(131, 19.3), 노르웨이(116, 17.1), 뉴질랜드(41, 6.1), 그린란드(38, 5.5)	(3, 0.5)
4	게	887	121	13.6	러시아(237, 26.7), 캐나다(185, 20.9), 미국(121, 13.6), 방글라데시(52, 5.9), 인도네시아(45, 5.1)	(0, 0.1)
5	어분	2,054	114	5.5	페루(1,185, 57.7), 베트남(141, 6.9), 칠레(121, 5.9), 미국(114, 5.5), 멕시코(102, 5.0)	(1, 0.1)
6	바닷가재	400	111	27.9	캐나다(280, 70.1), 미국(111, 27.9), 영국(5, 1.3), 아일랜드(1, 0.4), 호주(0, 0.1)	(–, –)
7	오징어	553	85	15.4	인도네시아(166, 30.0), 페루(144, 26.1), 미국(85, 15.4), 아르헨티나(32, 5.7), 뉴질랜드(4, 0.7)	(31, 5.6)
8	명태	610	72	11.8	러시아(532, 87.2), 미국(72, 11.8), 중국(3, 0.5), 일본(3, 0.4), 캐나다(0, 0.1)	(0, 0.1)
9	새우	2,173	47	2.2	에콰도르(398, 18.3), 호주(387, 17.8), 아르헨티나(218, 10.0), 뉴질랜드(196, 9.0), 태국(195, 9.0)	(1, 0.0)
10	소금	291	37	12.8	인도(160, 55.1), 호주(71, 24.4), 미국(37, 12.8), 덴마크(4, 1.4), 멕시코(3, 1.1)	(1, 0.3)

주 : 1) 어종명의 순위는 중국의 對미 수입 순위를 기준으로 나열됨
2) '–'는 실적이 없는 경우임

출처 : GTA(Global Trade Atlas), KMI 재가공

– 2018년 10월 누적 기준 중국의 對미 수입은 광어, 연어, 대구를 중심으로, 전체 수입의 각각 31.8%, 13.8%, 19.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 어종 중에서 對미 의존도가 높은 품목은 광어로 나타났다.

미국 對중국 수입 – 2018년 7~10월

구분	총합계	전체(백만$)	중국(백만$)	비중(%)	주요국(백만$, %)	한국(백만$, %)
		8,067	1,037	12.9		
1	틸라피아	220	146	66.0	중국(146, 66.0), 콜롬비아(17, 7.7), 온두라스(16, 7.2), 인도네시아(12, 5.7), 코스타리카(11, 4.9)	(–, –)
2	대구	263	143	54.2	중국(143, 54.2), 아이슬란드(50, 19.1), 캐나다(16, 6.2), 러시아(16, 6.0), 노르웨이(12, 4.5)	(–, –)
3	새우	2,349	134	5.7	인도(865, 36.8), 인도네시아(374, 15.9), 베트남(264, 11.2), 에콰도르(189, 8.0), 태국(187, 8.0)	(–, –)
4	연어	1,372	102	7.4	칠레(609, 44.4), 캐나다(266, 19.4), 노르웨이(231, 16.8), 중국(102, 7.4), 영국(43, 3.1)	(–, –)
5	오징어	142	75	53.1	중국(75, 53.1), 대만(17, 11.9), 인도(13, 9.5), 태국(7, 4.8), 스페인(5, 3.8)	(2, 1.2)
6	게	713	52	7.3	캐나다(185, 26.0), 러시아(167, 23.4), 인도네시아(133, 18.6), 중국(52, 7.3), 필리핀(40, 5.5)	(2, 0.3)
7	광어	119	51	43.1	캐나다(53, 44.8), 중국(51, 43.1), 태국(2, 1.9), 아이슬란드(2, 1.5), 네덜란드(2, 1.5)	(1, 1.2)
8	해덕	50	36	72.0	중국(36, 72.0), 아이슬란드(6, 11.7), 노르웨이(3, 5.5), 캐나다(3, 5.2), 러시아(2, 4.8)	(–, –)
9	참치	568	28	4.9	태국(36, 25.7), 베트남(6, 13.1), 인도네시아(3, 11.6), 에콰도르(3, 9.6), 필리핀(2, 5.2)	(5, 0.8)
10	뱀장어	25	24	94.6	중국(24, 94.6), 대만(0, 1.5), 캐나다(0, 0.8), 일본(0, 0.8), 베트남(0, 0.6)	(0, 0.1)

주 : 1) 어종명의 순위는 미국의 對중 수입 순위를 기준으로 나열됨
2) '–'는 실적이 없는 경우임

출처 : GTA(Global Trade Atlas), KMI 재가공

– 2018년 7월~10월 기준 미국의 對중 수입은 틸라피아, 대구, 새우를 중심으로 수입을 하고 있으며, 전체 수입의 각각 66.0%, 54.2%, 5.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 어종 중에서 對중 의존도가 높은 품목은 틸라피아, 대구, 오징어, 광어, 해덕, 뱀장어 등으로 나타났다.

중국 對미국 수입 – 2018년 7~10월

구분		전체(백만$)	미국(백만$)	비중(%)	주요국(백만$, %)	한국(백만$, %)
구분	총합계	5,685	455	8.0		
1	연어	653	199	18.2	러시아(286, 43.9), 칠레(129, 19.7), 미국(119, 18.2), 노르웨이(45, 6.9), 페로제도(26, 4.0)	(–, –)
2	광어	232	58	24.8	미국(58, 24.8), 러시아(51, 21.8), 노르웨이(31, 13.2), 그린란드(26, 11.2), 캐나다(17, 7.5)	(0, 0.2)
3	어분	1,175	52	4.4	페루(855, 72.8), 칠레(62, 5.2), 베트남(54, 4.6), 미국(52, 4.4), 멕시코(35, 3.0)	(–, –)
4	새우	976	27	2.8	에콰도르(215, 22.0), 인도(110, 11.2), 호주(101, 10.3), 아르헨티나(98, 10.0), 뉴질랜드(84, 8.6)	(1, 0.1)
5	명태	129	26	19.9	러시아(100, 77.5), 미국(26, 19.9), 중국(3, 2.0), 일본(0, 0.4), 한국(0, 0.2)	(0, 0.2)
6	오징어	242	20	8.4	페루(88, 36.4), 인도네시아(71, 29.2), 미국(20, 8.4), 대만(13, 5.3), 러시아(7, 3.0)	(3, 1.2)
7	대구	277	19	7.0	러시아(156, 56.2), 노르웨이(40, 14.5), 뉴질랜드(33, 11.9), 미국(19, 7.0), 그린란드(3, 1.1)	(14, 5.2)
8	바닷가재	169	13	7.9	캐나다(151, 89.3), 미국(13, 7.9), 영국(3, 1.9), 아일랜드(1, 0.5), 호주(0, 0.2)	(–, –)
9	소금	103	10	9.6	인도(54, 52.9), 호주(29, 28.4), 미국(10, 9.6), 멕시코(3, 3.1), 덴마크(2, 0.4)	(0, 0.4)
10	참치	91	8	8.9	스페인(17, 18.5), 대만(14, 15.4), 마셜제도(12, 13.4), 미크로네시아(10, 11.0), 미국(8, 8.9)	(3, 3.8)

주 : 1) 어종명의 순위는 중국의 對미 수입 순위를 기준으로 나열됨
2) '–'는 실적이 없는 경우임
출처 : GTA(Global Trade Atlas), KMI 재가공

– 2018년 7월~10월 기준 중국의 對미 수입은 연어, 광어, 어분를 중심으로 수입을 하고 있으며, 전체 수입의 각각 18.2%, 24.8%, 4.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시장개척, KMI 해외시장분석센터에서 시작됩니다.



수산물수출정보포털을 이용하자(www.kfishinfo.net)

1	2	3	4	5	6
• 수산물 수출 사업 • 사업 실시간 공고 확인	• 지자체·수출관련기관 • 수출 사업 집적	• 맞춤형 수출 계획에 필요한 정보 실시간 제공	• 2018년 전시회·박람회 일정 제공	• 국내 최대 통계 정보 제공	• 콜센터 실시간 운영 • 수출 현안 서포터

KMI 해외시장분석센터 정보 실시간 확인 방법

Method

1. 콜센터 1644-6419로 문의
2. 대표 이메일 kfic@kmi.re.kr로 신청

Benefit

1. 수출 사업 주1회 정기 이메일 제공
2. KMI 해외시장분석센터 분석자료 실시간 제공
3. KMI 해외시장분석센터 주최 세미나, 정보 교류회 상시 초청장 발송

해양수산부 KMI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외시장분석센터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Tel.** 1644-6419(콜센터) **Fax.** 051)797-4599
E-mail. kfic@kmi.re.kr **Homepage.** www.kfishinfo.net(수산물수출정보포털)